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2차년도)

-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 사업구상 -

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2nd Year)

- Building governance for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and
commercializing a business model -

2019. 12.

박상우 | 황재희 | 이호림 | 김충재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로 수행한 결과물입니다.
보고서를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에 두 기관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강원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연구진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종합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이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	----------	--

협동연구기관	 	김충재 강원연구원 공간창조연구실 연구위원
---------------	----------	------------------------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박상우 연구총괄, 제1장, 제5장
협동기관 연구책임자	 	김충재 연구총괄, 제2장, 제2장 제4절, 제3장 제4절

연구진	 	황재희 제2장 제4절 이호림 제3장 제4절
------------	----------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홍영기 삼척시 장호어촌계 계장 이서구 한국어촌어항공단 팀장 이동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광 강원도 환동해본부 계장
-----------------------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어촌은 국토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과소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촌사회 문제는 해양영토 수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국호, 수산업을 이끄는 어업전진기지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소외되고 낙후된 어촌·어항의 현대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인프라 개선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연구는 강원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지난 2년 동안 수행하면서 강원도 어촌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해양수산 혁신체계를 구축·확산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지역현안에 기반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형 어촌정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연구는 강원형 어촌 신활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강원도 환동해본부 등 지자체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민관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연구결과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수산연구본부 어촌·어항연구실 박상우 실장과 강원연구원 김충재 부연구위원의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동 연구에 참여한 황재희 전문연구원, 이호림 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연구가 방향성을 갖고 정책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의 자문위원께도 필자를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올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감리를 맡아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준 조정희 수산연구본부를 비롯하여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 영 태

목차

❖ 요약 · i

❖ Executive Summary · v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4
1. 연구범위	4
2. 주요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7
1. 연구방법	7
2. 연구수행 체계	9

제 2 장 강원도 어촌마을의 실태분석 · 11

제1절 강원도 어촌의 현주소	11
1. 강원도 수산업·어촌사회의 위상	11
2. 강원도 어촌사회의 위축 원인	15
제2절 강원도 동해안 어촌의 인구소멸 위기 심화	18
1. 어촌 인구감소	18
2. 어촌 인구소멸지수	19

3. 어촌의 고령화	21
4. 어촌의 한계 정도	23
제3절 어촌 활성화 정책 도입의 당위성	24
1. 어촌소멸 위험의 심각성	24
2. 어촌계 계원수 감소	26
3. 어촌의 낮은 개방성과 역량 부족	28
4. 어촌 활성화 정책 추진과 거버넌스 구축 시급	30
제4절 어촌 활성화 사업모델 방향 설정	34
1. 현장 조사	34
2. 설문조사	49

제 3 장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 구상 · 83

제1절 어촌 활성화 유형 검토	83
1. 수산 중심형 마을	84
2. 해양레저형 마을	85
3. 쇠퇴형 마을	86
제2절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 마을 선정	87
1.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 유형 및 개수	87
2.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 선정	87
제3절 어촌 활성화 추진 방향	89
1. 고성군 초도어촌	89
2. 삼척시 신남어촌	92
제4절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방안	97
1. 고성군 초도어촌 활성화 방안	97
2. 삼척시 신남어촌 활성화 방안	120

제 4 장 강원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27

제1절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필요성	127
1. 개요	127
2.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128

	제2절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 131
	1. 강원형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 추진 131
	2.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거버넌스 132
	3. 역할과 기능 135
	4. 거버넌스 체계 137
	5. 지원단 설립 추진 방안 139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1
	제1절 결론 141
	제2절 정책 제언 142
	1. 민·관 협의체 (가칭) ‘강원형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 추진 142
	2.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151
	3. 강원형 어촌현장포럼 운영 153

❖

참고문헌 · 157

❖

부 록 · 161

표 목차

❖	
〈표 1-1〉 연차별 수행연구의 내용적 범위	5
〈표 2-1〉 경제활동별 GDP 현황	12
〈표 2-2〉 경제활동별 GDP 비중 현황	13
〈표 2-3〉 강원도 어가수, 어업가구원수, 어업인수 감소 추이	25
〈표 2-4〉 강원도 동해안 수협별 어촌계 계원 20명 이하인 어촌계	27
〈표 2-5〉 강원도 2019년 어촌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예산	33
〈표 2-6〉 현장조사 주요 항목	34
〈표 2-7〉 초도리 인구구조	39
〈표 2-8〉 현장조사 결과	40
〈표 2-9〉 신남어촌의 인구구조 추이	46
〈표 2-10〉 신남어촌 현장조사 결과	48
〈표 2-11〉 설문 개요	50
〈표 2-12〉 설문 화면	51
〈표 2-13〉 조사 항목 구성	52
〈표 2-14〉 응답자 개요	52
〈표 2-15〉 설문대상 및 방법	62
〈표 3-1〉 수산 중심형으로 분류된 어촌	84
〈표 3-2〉 해양레저 중심형으로 분류된 어촌	85
〈표 3-3〉 쇠퇴형으로 분류된 어촌	86
〈표 3-4〉 쇠퇴형으로 분류된 어촌의 특징	88
〈표 3-5〉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초도어촌 활성화 방향	90
〈표 3-6〉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신남어촌 활성화 방향	93
〈표 3-7〉 초도어촌 브랜드화 제안	113
〈표 3-8〉 신남어촌 브랜드화 제안	124

〈표 4-1〉 강원도 2019년 어촌 활성화 관련 사업과 지원기관	130
〈표 4-2〉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 사업내용(안)	136
〈표 4-3〉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조직 및 역할	140
〈표 5-1〉 어촌 신활력 지원을 위한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안)	143
〈표 5-2〉 어촌지원단 TF 사업내용(안)	146
〈표 5-3〉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구성 및 역할(안)	150
〈표 5-4〉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1

그림 목차



〈그림 1-1〉 공간적 범위	4
〈그림 1-2〉 현장조사	8
〈그림 1-3〉 어촌현장포럼	9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도	10
〈그림 2-1〉 강원도 어업가구수 및 전국 비중 추이	14
〈그림 2-2〉 강원도 어업종사자수 및 전국 비중 추이	15
〈그림 2-3〉 강원도 주요 품종의 어획량 추이	16
〈그림 2-4〉 천해양식 품종별 생산량 추이	17
〈그림 2-5〉 시군별 어촌의 인구감소 및 감소율	18
〈그림 2-6〉 어촌의 인구감소율(10% 이상 감소)	19
〈그림 2-7〉 강원도 시군 어촌별 소멸지수	20
〈그림 2-8〉 마을소멸지수 0.2 미만의 어촌	21
〈그림 2-9〉 강원도 동해안 어촌의 고령화 지수	22
〈그림 2-10〉 강원도 동해안 어촌마을의 시군별 준한계마을 비율	23
〈그림 2-11〉 시도별 어업가구수 증감 추이	25
〈그림 2-12〉 시도별 어업인수 증감 추이	26
〈그림 2-13〉 강원도 동해안 어촌계원수 추이	27
〈그림 2-14〉 강원도 동해안 어업인의 60세 이상 비율 추이	29
〈그림 2-15〉 강원도 동해안 어업인의 65세 이상 비율 추이	30
〈그림 2-16〉 초도항의 지리적 입지	37
〈그림 2-17〉 초도리의 행정구역	38
〈그림 2-18〉 초도항 입지	38
〈그림 2-19〉 고성군 어촌의 마을소멸지수	39
〈그림 2-20〉 고성군 어촌의 고령화지수	39

〈그림 2-21〉 고성군 초도항 모습	40
〈그림 2-22〉 신남항의 입지	44
〈그림 2-23〉 갈남리 행정구역	45
〈그림 2-24〉 신남항 모습	46
〈그림 2-25〉 삼척시 어촌의 마을소멸지수	47
〈그림 2-26〉 삼척시 어촌의 고령화율	47
〈그림 2-27〉 삼척시 신남항 모습	48
〈그림 2-28〉 강원도 바다에 대한 이미지	53
〈그림 2-29〉 대표적인 강원 어촌지역	54
〈그림 2-30〉 강원 어촌 방문 경험 및 이유	54
〈그림 2-31〉 강원 어촌에 대한 인지수준 및 정보창구	55
〈그림 2-32〉 강원 어촌의 쇠퇴 전망	56
〈그림 2-33〉 강원 어촌의 쇠퇴 이유	56
〈그림 2-34〉 강원 어촌의 현상유지·성장 이유	57
〈그림 2-35〉 강원 어촌의 경쟁력 요인	57
〈그림 2-36〉 강원 어촌의 경쟁력 요인 워드클라우드	58
〈그림 2-37〉 강원 어촌의 활성화 전략	59
〈그림 2-38〉 강원 어촌의 특화사업 유망 분야	59
〈그림 2-39〉 강원 어촌의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60
〈그림 2-40〉 주요 결과 및 시사점	61
〈그림 2-41〉 거주기간	64
〈그림 2-42〉 연령	64
〈그림 2-43〉 직업	64
〈그림 2-44〉 어업활동의 종류	64
〈그림 2-45〉 어촌 침체 또는 쇠퇴 인식 여부	65
〈그림 2-46〉 어촌 쇠퇴의 원인(1순위)	65
〈그림 2-47〉 어촌 쇠퇴의 원인(2순위)	65
〈그림 2-48〉 어촌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65
〈그림 2-49〉 수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	65
〈그림 2-50〉 어촌 고령화에 대한 인식	65

〈그림 2-51〉 마을 갈등에 대한 인식	65
〈그림 2-52〉 마을 소멸에 대한 가능성	65
〈그림 2-53〉 어촌이 쇠퇴하지 않는 이유	66
〈그림 2-54〉 어촌 활성화 방안(1순위)	68
〈그림 2-55〉 어촌 활성화 방안(2순위)	68
〈그림 2-56〉 인구유입 방안(1순위)	68
〈그림 2-57〉 인구유입 방안(2순위)	68
〈그림 2-58〉 수산업 활성화 방안(1순위)	68
〈그림 2-59〉 수산업 활성화 방안(2순위)	68
〈그림 2-60〉 어촌 활성화 특화자원(1순위)	69
〈그림 2-61〉 어촌 활성화 특화자원(2순위)	69
〈그림 2-62〉 어촌 활성화 사업	69
〈그림 2-63〉 수산업 분야의 강점	69
〈그림 2-64〉 관광자원의 강점	69
〈그림 2-65〉 마을 갈등에 대한 인식	69
〈그림 2-66〉 마을 갈등의 원인	69
〈그림 2-67〉 마을 갈등의 자체해소 가능 여부	69
〈그림 2-68〉 마을 갈등 해소방안(1순위)	70
〈그림 2-69〉 마을 갈등 해소방안(2순위)	70
〈그림 2-70〉 거주 기간	72
〈그림 2-71〉 연령대	72
〈그림 2-72〉 직업의 종류	72
〈그림 2-73〉 어업의 종류	72
〈그림 2-74〉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인식	74
〈그림 2-75〉 쇠퇴의 원인(1순위)	74
〈그림 2-76〉 쇠퇴의 원인(2순위)	74
〈그림 2-77〉 어촌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74
〈그림 2-78〉 수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	74
〈그림 2-79〉 고령화에 대한 인식	74
〈그림 2-80〉 마을 갈등에 대한 인식	74

〈그림 2-81〉 어촌 갈등에 대한 인식(60대 이하)	74
〈그림 2-82〉 어촌 갈등에 대한 인식(70대 이상)	75
〈그림 2-83〉 마을 소멸에 대한 인식	75
〈그림 2-84〉 마을의 침체, 쇠퇴에 부정적인 이유	75
〈그림 2-85〉 어촌 활성화 방안(1순위)	78
〈그림 2-86〉 어촌 활성화 방안(2순위)	78
〈그림 2-87〉 인구유입 방안(1순위)	78
〈그림 2-88〉 인구유입 방안(2순위)	78
〈그림 2-89〉 수산업 활성화 방안(1순위)	79
〈그림 2-90〉 수산업 활성화 방안(2순위)	79
〈그림 2-91〉 어촌 특화자원(1순위)	79
〈그림 2-92〉 어촌 특화자원(2순위)	79
〈그림 2-93〉 어촌 활성화 사업	79
〈그림 2-94〉 수산업 분야의 강점	79
〈그림 2-95〉 관광자원의 강점	79
〈그림 2-96〉 마을갈등에 대한 인식	79
〈그림 2-97〉 마을 갈등의 원인	80
〈그림 2-98〉 마을 갈등의 원인(60대 이하)	80
〈그림 2-99〉 마을 갈등의 원인(70대 이상)	80
〈그림 2-100〉 마을 갈등의 자체해소 가능 여부	80
〈그림 2-101〉 갈등의 자체해소 가능 여부(60대 이하)	80
〈그림 2-102〉 갈등의 자체해소 가능 여부(70대 이상)	80
〈그림 2-103〉 갈등해소 방안(1순위)	80
〈그림 2-104〉 갈등해소 방안(2순위)	80
〈그림 3-1〉 강원도 시군 어촌의 유형별 분류	83
〈그림 3-2〉 초도어촌 어촌 활성화 전략	97
〈그림 3-3〉 초도어촌 인구현황(1995~2017)	98
〈그림 3-4〉 초도어촌 어촌계 현황(1995~2017)	99
〈그림 3-5〉 초도어촌 어선척수(1995~2017)	99
〈그림 3-6〉 초도어촌 어선현황(2018년)	100

〈그림 3-7〉 수산물 생산량 현황	100
〈그림 3-8〉 초도어촌 어가소득(1995~2017)	101
〈그림 3-9〉 초도어촌 인근 방문객 현황	102
〈그림 3-10〉 초도어촌 문제점 진단	103
〈그림 3-11〉 초도어촌 방향성 설정	105
〈그림 3-12〉 초도어촌 어촌 활성화 전략	106
〈그림 3-13〉 기초 어촌역량강화사업 실시	110
〈그림 3-14〉 스페인 갈리시아 문어 초절임 상품화 사례	112
〈그림 3-15〉 사토수산 연어상품 판매방식	114
〈그림 3-16〉 어촌의 청결성 및 어촌다움 제고	115
〈그림 3-17〉 서산 중왕어촌계의 사회적 가치 실천 사례	116
〈그림 3-18〉 초도어촌 활성화 사업화 방안(안)	117
〈그림 3-19〉 초도어촌 사업구상(안)	118
〈그림 3-20〉 소비시장 확대	119
〈그림 3-21〉 초도어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120
〈그림 3-22〉 신남어촌 어촌 활성화 전략	121
〈그림 5-1〉 강원 어촌지원단 TF 구성(안)	144
〈그림 5-2〉 강원 어촌지원단 TF 지원업무 커버리지	147
〈그림 5-3〉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 체계(안)	149
〈그림 5-4〉 강원형 어촌현장포럼 운영방안	154
〈그림 5-5〉 충청남도 어촌현장포럼 운영사례(태안군 대야도 어촌)	155
〈그림 5-6〉 전라북도 어촌현장포럼 운영사례(군산시 개야도 어촌)	155

요약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2차년도)

-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모델사업화 방안 -

1.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강원 어촌지역의 현안문제를 토대로 지역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안) 실증구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강원 어촌지역 신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모델(안)은 지역소멸 위험성이 높은 2개소 어촌마을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 어촌주민, 해당 공무원이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어촌현장포럼 방식으로 어촌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현안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
 - 둘째,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는 어촌 지역소멸 등의 심각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강원도 환동해본부 및 6개 연안지역의 기초지자체 간 상호협력체계를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 어촌마을의 실태 분석, ii)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 구상, iii)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현장조사, 통계분석, 어촌현장포럼 등을 통해 수행함

〈요약 그림 1〉 연구수행 체계 및 방법

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업무분장
연구의 개요	• 연구개요, 내용 및 연구목표	-	KMI
어촌마을의 실태분석	• 인구사회 구조 분석 • 어촌 쇠퇴 실태 분석 • 어촌 활성화 필요성 • 강원 어촌 현장조사 • 강원 어촌 인식도조사	• 현장조사 • 통계분석	강원연구원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 구상	•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 선정 •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방안	• 설문조사 • 어촌현장포럼 • 모델사업 구상	강원연구원 (삼척 신남) KMI (고성 초도)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어촌 활성화 체계(거버넌스) 구축 방안	•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강원연구원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 정책 제언	-	KMI

2) 연구의 특징

- ▶ 강원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년간 공동연구로 수행하여 지역 현안문제의 전문성과 정책화 방안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해양수산 혁신체계의 일환으로 지역현안 연구를 토대로 정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임
- ▶ 본 연구는 수산자원 감소, 인구과소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 어촌문제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행정, 연구자가 어촌현장에서 사업모델(안)을 모색하는 실증적인 방안으로 접근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 강원지역은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어촌으로 최근 중국 및 북한의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 급감과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반면 해양레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잠재력도 갖추고 있어 강원 어촌 신활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 정부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 생활SOC 일환으로 어촌 지역재생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사업전개에 국한되지 않고 강원형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구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 특히,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을 단계적으로 설립하는 방안과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와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 본 연구는 수산업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강원 어촌의 신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증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마련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관 협의체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1단계(2020~2021년)에는 어촌지원단 TF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모사업 유치 등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2단계(2022년 이후)는 상설조직으로 강원 어촌의 종합·체계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둘째,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안) 11개 조항으로 목적 및 설치근거, 기능·구성, 지원단 운영·관리, 예산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향후 강원도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강원형 어촌현장포럼을 제시하여 전문가, 어촌주민, 지원단이 함께 지역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주민주도형 사회문제해결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시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본 연구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소외되고, 수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어촌의 신활력 사업모델(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강원 어촌정책 마련의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2nd Year)

- Building governance for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and commercializing a business model -

1. Purpose

- ▶ This study aims to build the empirical design of a business model (proposal) to enhance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based on current affairs of the region. This study also seeks to establish a governance model, tentatively named the 'Support Group for the Revitalization of Gangwon Fishing Villages,' to systematically provide support. The specific content that will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se goals are outlined as follows:
 - First, the business model for enhancing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proposal) targets two fishing village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selected by objective standards. Having applied the method of a rural on-site forum

in the form of a living lab participated by outside experts from a number of relevant sectors, local residents in fishing villages and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this study diagnoses the pending problems that fishing villages are currently engaged in and suggests solutions.

- Second,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ance of the tentatively named 'Support Group for the Revitalization of Gangwon Fishing Villages' should be built under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specialized institu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capable of responding to serious regional issues such as local extinction of fishing village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6 coastal areas including the EastSea Rim Headquarters in Gangwon province.

2. Methodology and Feature

1) Methodology

- Consisting of five chapters, this study carried out an on-site investigation, a statistical analysis and on-site forum in fishing villages with major contents listed as follows: 1)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fishing villages, 2) design of a business model for revitalizing fishing villages, and 3) building a governance system for invigorating fishing villages.

〈Summary Pic 1〉 Process and method of the study

Research flow	Specific contents	Methods	Job assignment
Overview	• Overview, contents and goal of the study	–	KMI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s of fishing villages	•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demographic society •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s of declining fishing villages • Necessity of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 On-site investigation of Gangwon fishing villages • Survey on the awareness of Gangwon fishing villages	• On-site investigation • Statistical analysis	RIG
Design a business model for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 Selecting targets for commercializing a business model to revitalize fishing villages - Measur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 model to revitalize fishing villages	• Survey • On-site forum in Fishing villages • Design a business model	RIG (Samcheok, Sinnam) KMI (Goseong, Chodo)
Building a governance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 Measures to construct a system (governance) for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 Workshop, Advisory meeting with experts	RIG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Conclusion • Policy Suggestion	–	KMI

2) Feature

- ▶ Joint research between the Research Institute of Gangwon (RIG) and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over the past 2 years has granted expertise of regional pending issues, while generating a synergetic effect in turning results into policies. As part of building an innovative system for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this study intends to turn current regional research into actual policies.
- ▶ After diagnosing problems surrounding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facing the potential risk of local extinction which include de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a declining population, this study takes an empirical approach in constructing a business model that function in actual sites of fishing villages participated by local residents, administrators and researchers.

3. Results

1) Summary

- ▶ Having developed as a fishing village centering on capture fisheries, Gangwon province is now facing a more serious situation than other regions resulting from overfishing by North Korea, ever reducing fishery resources and a risk of local extinction due to an aging and declining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this region also holds potential with a continued increasing demand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which urgently require measures to revitalize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 ▶ As part of livelihood improvement SOC which includes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he government is actively regenerating fishing villages. Not being restricted to running a public contest for project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lanning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customized to Gangwon province as well as improving the governance system to systematically proceed with the plan.
- ▶ In particular, the study presents phased measures to establish the Support Group for the Revitalization of Gangwon Fishing Villages as well as specific ways of securing the legal basis by legislating the ordinance and supporting the budget.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 This study seeks to draw a specific empirical model to bring new vibrancy to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suffering from a declining fisheries industry and facing at risk of local extinction. As this study concentrates on arranging the Support Group for the Revitalization of Gangwon Fishing Villages which will systematically carry out the model in the mid-to-long term, major contents are outlined as follows:

-
- First, the study suggests a phased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entatively named) Support Group for the Revitalization of Gangwon Fishing Villages, a private and public cooperative organization. In addition, specific measures are suggested to promote quantitative growth during the 1st stage (2020-2021) by organizing a task force for supporting fishing villages and attracting public contest projects such as Fishing Village 300 Project. And measures for 2nd stage (post 2022) were presented to run the task force as a regular organization, drawing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for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 Second, this study laid the legal and systematical basis for the Support Group for the Revitalization of Gangwon Fishing Villages. Therefore, 11 articles for corresponding ordinance (proposal) consist of contents including purpose,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function/structur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upport group and budget support, which can be specified in the future through policy meetings with Gangwon province.
 - Lastly, this study suggests a local residents-driven solution program in the form of on-site forum customized to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Participated by experts, residents in fishing villages and the support group, this program is to discuss regional issu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and find solutions.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This study is expected to establish a business model (proposal) for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as well as a governance system to systematically proceed with the model. In doing so,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policy framework for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which has been suffering from a declining fisheries industry, being left behind in terms of policy making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시·도연구원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발굴과 공동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강원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강원도의 어촌지역 현안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지난 2018년(1차년도) 공동연구는 강원도 어촌의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2019년 3월 전국해양수산정책포럼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1차년도 공동연구

에서는 소규모 마을단위로 강원도 어촌의 지역소멸 위기와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강원도 정책방향에 대한 포괄적으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포럼에서는 위기의 강원 어촌마을 중 침체된 지역을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모델구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가칭) 강원형 어촌지원단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사업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필요성

강원도 어촌은 2000년대 이후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촌 쇠퇴의 위기와 해양레저 관광 수요 확대 등 기회가 양립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잡는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강원 어촌은 어업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어촌공동체가 빠르게 이완·해체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강원 어촌의 지역소멸 위기는 수산업 및 지역침체 문제를 넘어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지역 어촌개발은 정부사업을 매칭하여 추진하는 수동적인 접근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현안에 대응한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을 도입하여 주민주도의 능동적인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원형 어촌 신활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부는 미래의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어촌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 역시 해당 지자체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어촌분야의 강원형 거버넌스 체계 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이번 연구는 지난 1차년도에 수행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던 강원 어촌지역의 현안문제를 토대로 지역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모델(안) 구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강원형 어촌지원단 거버넌스 체계(안)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 어촌지역 신활력 제고를 위한 모델(안)은 지역소멸 위험성이 높은 2개소 어촌마을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고, 분야별 외부전문가, 어촌주민, 행정기관 등이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어촌현장포럼에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현안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는 어촌 지역소멸 등의 심각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강원도 환동해본부 및 6개 연안지역의 기초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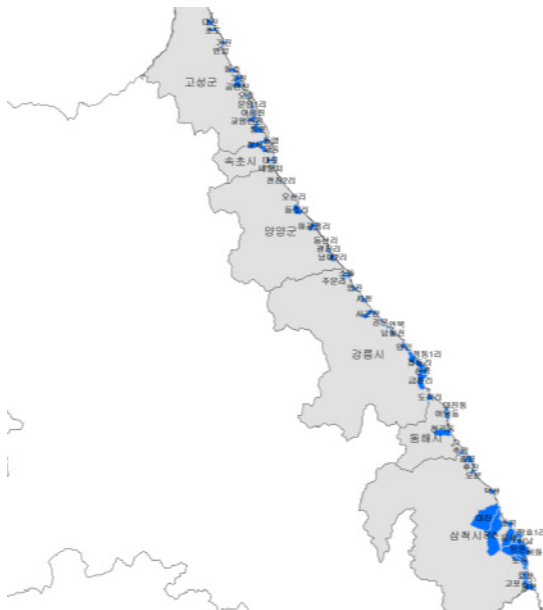
제2절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1.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수행했던 연구의 공간적 범위¹⁾ 중 6개 연안 시·군(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내 74개소 어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내륙어촌은 공동체 규모의 과소화와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으로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내용적 범위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1차년도에서 도출되었던 강원지역 어촌의 실태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신활력 사업구상을 위한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어촌마을의 모델사업화 구상 마련과 강원형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1차년도에 수행한 연구는 강원 어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강원도 어촌 신활력의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반면, 2차년도 연구는 침체된 어촌지역을 2개소 선정하고, 지자체, 전문가, 어촌주민 간 현장포럼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신활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내륙어촌을 포함한 강원도 어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상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 1-1〉 연차별 수행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1차년도 연구	2차년도 연구
연구내용	- 강원도 어촌의 여건변화와 실태 - 국내외 어촌 활성화 사례 - 주민 인식조사 및 어촌지역 유형화 - 강원 어촌 신활력 전략 및 추진과제	- 강원도 어촌의 실태 - 강원 어촌 신활력 모델 선정 및 방향 -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방안 - 강원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쇠퇴하는 강원 어촌의 진단과 신활력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실증연구와 이를 중장기적으로 민관협업체 신설을 통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로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6개 연안시군 74개소 어촌으로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고,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어촌 신활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리빙랩 방식의 어촌현장포럼 등의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2장은 어촌사회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쇠퇴현상, 어촌마을 현장조사, 강원 어촌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도 조사 등 강원 어촌마을의 실태를 진단하였다. 강원 어촌은 수산자원 감소와 지역소멸 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반면 해양레저 관광수요는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계와 잠재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신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장은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 구상으로 강원도 내 지역소멸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어촌마을 2개소를 선정하고, 행정,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어촌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현안을 진단하고, 신활력 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의 어촌현장포럼을 통한 실증모델을 제시하였다. 고성군 초도어촌과 삼척시 신남어촌은 자원감소와 인구감소 등 여건은 어려우나 마을주변의 관광 집객력과 특화된 상품개발을 통해 판매방식과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신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강원 어촌 신활력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단기, 중·장기 등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한 정책제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강원도 어촌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1. 연구방법

1) 통계분석

강원 어촌마을의 수산업 현황과 공동체 여건 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자료,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등을 활용하여 인구, 귀어귀촌, 소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소멸성 분석(지역소멸지수 산정),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는 신활력 제고방안 어촌마을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되었다.

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어촌 신활력 모델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하고, 과업기간 내 2회에 걸쳐 행정기관, 전문가, 어촌주민, 연구진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수산업 활동 및 어업 기반시설, 관광 인프라 여건, 정주생활여건 및 삶의 질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어촌계장 등 주민들과 면담도 병행함으로써 지역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어촌공동체 내부에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갈등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 내 갈등요인, 대립구조, 갈등 표출 등을 조사하고, 이를 사업구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림 1-2〉 현장조사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자: 2019. 12. 18~19)

3) 인식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강원도에 대한 인식조사와 어촌주민들의 인식도를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동 인식도 조사는 일반 국민들과 해당 지역 어촌주민들의 니즈 파악과 활성화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선, 강원 어촌에 대한 어촌 외부의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강원 어촌 활성화를 파악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조사기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 구상을 위해 선정된 강원도 관내 어촌 2개소 5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어촌현장에서 면담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4) 어촌현장포럼

어촌현장포럼은 분야별 전문가, 행정, 어촌주민이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어촌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외부전문가도 수산, 어항개발, 어촌 브랜드개발, 지역재생

컨설팅, 관광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행정에서도 강원도 환동해본부, 고성군청, 삼척시청,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등에서 적극 참여하였다.

〈그림 1-3〉 어촌현장포럼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자: 2019. 10. 10~11, 2019. 11. 15, 2019. 12. 17~18)

5) 전문가 자문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어촌 신활력 제고에 관한 연구로 강원도 어촌정책 담당자, 강원 어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지역재생, 어촌공동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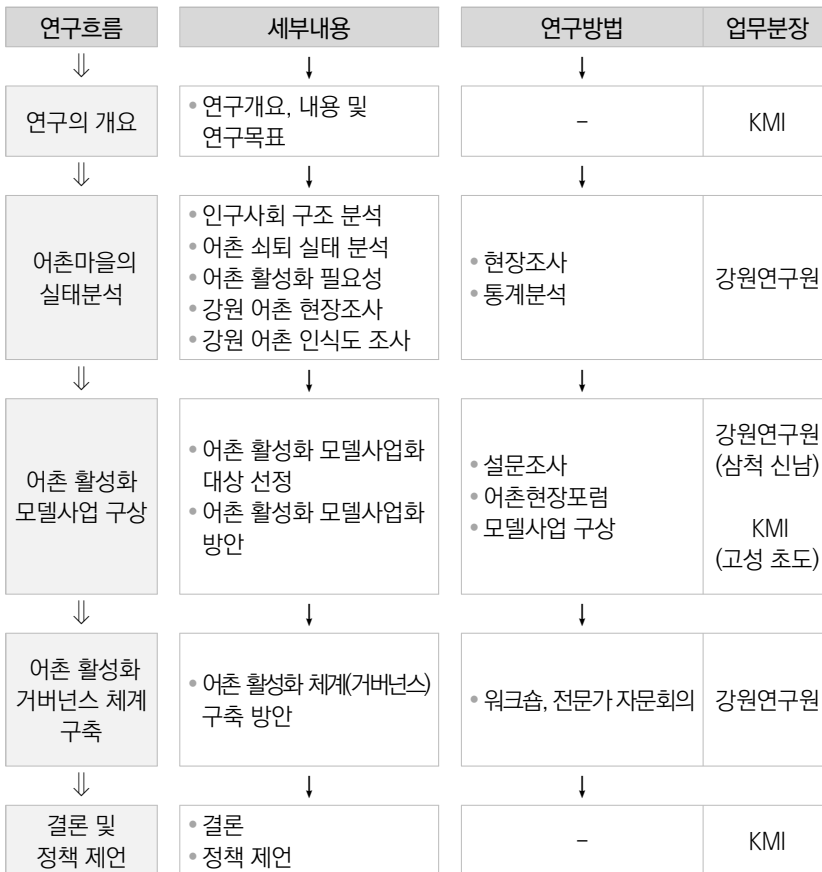
특히, 강원형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는 강원도 환동해본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였고, 본 연구가 완료된 이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2. 연구수행 체계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세부 연구수행 체계는 〈그림 1-4〉와 같다. 어촌의 실태 및 강원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는 강원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내용을 집약한 정책 제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담당했다. 나머지 어촌 활성화 모델화 방안은 각 기관에서 1개 어촌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 2 장

강원도 어촌마을의 실태분석

제1절 강원도 어촌의 현주소

1. 강원도 수산업·어촌사회의 위상

1) 수산업 위상

어업총생산(명목 GDP)은 1970년 436억 원에서 2018년 3조 7259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동기간 1.56%에서 0.21%로 감소했다. 1차산업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은 2010년 27.8%까지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어업생산은 1970년 대비 2018년은 85배로 확대되었지만, 제조업은 1,000배 이상, 서비스업은 800배 이상 성장했다. 어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제한적이었고, 정책적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수산물은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그만큼 상승했지만, 생산량은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어획(일반해면어업)은 연간 1백만 톤을 하회하기도 하고 있다²⁾. 다행히도 양식을 통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증가는 부가가치가 낮은 해조류, 패류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일반해면 수산물의 감소는 어선의 감척, 어업인의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어업인 감소는 어촌의 낙후로 이어지고 있다.

〈표 2-1〉 경제활동별 GDP 현황

경제 활동별	연도별 GDP(십 억)						증가 정도 (2018/ 1970)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농림어업	736.80	5,582.30	15,029.90	25,049.50	28,297.40	35,347.90	47.97
재배업	577.10	4,298.00	11,378.00	18,551.40	17,580.20	19,355.00	33.54
축산업	57.50	400.40	1,409.00	2,633.70	4,853.40	9,116.60	158.55
임업	49.60	385.40	676.50	1,255.40	1,764.40	2,314.30	46.66
어업	43.60	425.40	1,342.90	2,206.90	3,425.80	3,725.90	85.46
농림어업 서비스	9.00	73.10	223.50	402.10	673.60	836.10	92.90
광업	41.30	480.60	1,306.70	1,681.60	2,199.30	2,772.10	67.12
제조업	479.80	8,518.80	48,640.90	165,229.20	351,770.60	485,281.20	1,011.4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4.80	762.30	3,844.30	16,069.20	25,632.30	43,780.60	1,258.06
건설업	128.70	2,671.20	16,933.20	34,231.80	58,633.70	94,158.00	731.61
서비스업	1,128.40	17,071.30	92,645.80	327,961.40	678,590.80	954,651.60	846.02
전산업	2,794.80	39,471.30	197,712.30	635,184.60	1,265,308.00	1,782,268.90	637.7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2. 20)

2) 통계청

〈표 2-2〉 경제활동별 GDP 비중 현황

경제활동별	연도별 GDP 비중(%)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농림어업	26.36	14.14	7.60	3.94	2.24	1.98
재배업	20.65	10.89	5.75	2.92	1.39	1.09
축산업	2.06	1.01	0.71	0.41	0.38	0.51
임업	1.77	0.98	0.34	0.20	0.14	0.13
어업	1.56	1.08	0.68	0.35	0.27	0.21
농림어업서비스	0.32	0.19	0.11	0.06	0.05	0.05
광업	1.48	1.22	0.66	0.26	0.17	0.16
제조업	17.17	21.58	24.60	26.01	27.80	27.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25	1.93	1.94	2.53	2.03	2.46
건설업	4.60	6.77	8.56	5.39	4.63	5.28
서비스업	40.37	43.25	46.86	51.63	53.63	5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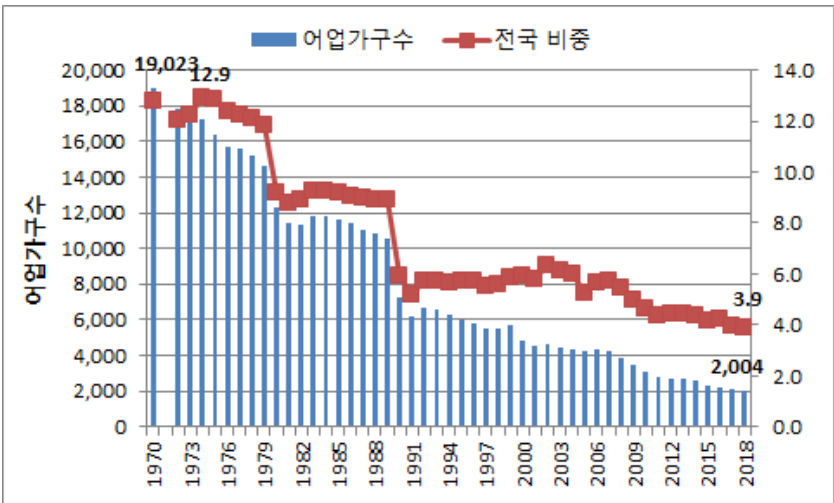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2. 20)

2) 어촌사회의 위상

강원도 어업가구수는 1970년 19,023가구에서 2018년 2,004가구로 감소했고, 동기간 전국 비중은 1970년 12.9%에서 2018년 3.9%로 낮아졌다. 어업종사자수는 1973년 22,689명(지금까지 가장 많은 어업조사자수)에서 2018년 2,682명으로 감소했고, 전국 비중은 1974년 7.6%(지금까지 가장 높은 비중)에서 2018년 3.2%로 낮아졌다. 어업가구 및 어업인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문제는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인이 감소한 어촌 공간에는 해양레저가 산업을 형성하면서 수산업은 날로 위축되고 있다. 화력발전소 건립, LNG기지 건립 등으로 많은 수역이 항계수역으로 묶이면서 어장이 축소되고, 어촌계도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로 어촌은 대부분이 초고령화 상태에 있다.

강원도 어촌은 어업인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촌의 90% 이상이 소멸 위험이거나 고위험 상황에 있다³⁾. 강원도의 수산물 생산량은 과거 15만 톤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은 5만 톤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⁴⁾. 수산물 생산량 감소는 수산유통, 수산가공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지역의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수산가공의 경우 오징어, 명태 등을 주로 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도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의 수산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수산자원 보호, 자체적 가공품화 등의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수입량 확보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2-1〉 강원도 어업가구수 및 전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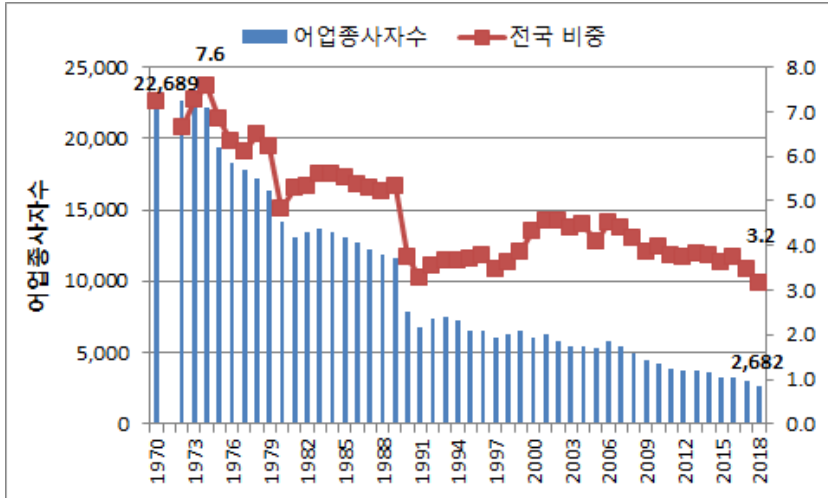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김과 박(2019)

4)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2〉 강원도 어업종사자수 및 전국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강원도 어촌사회의 위축 원인

강원도 수산업 위축의 첫 번째 원인은 수산물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명태는 자원이 고갈되었거나 이동하여 거의 어획되지 않고 있고, 오징어와 같이 동해안을 회유하여 남하하는 품종의 경우는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조업으로 자원량의 80% 이상이 줄어든 상태이다⁵⁾. 무엇보다 해면어업의 위축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 어업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명태, 노가리, 오징어 등이 대폭 감소했지만 대안으로 새로운 품종이 없고, 양식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식은 우렁챙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류에 비해서는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량도 5천 톤 내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양식어류 생산은 265톤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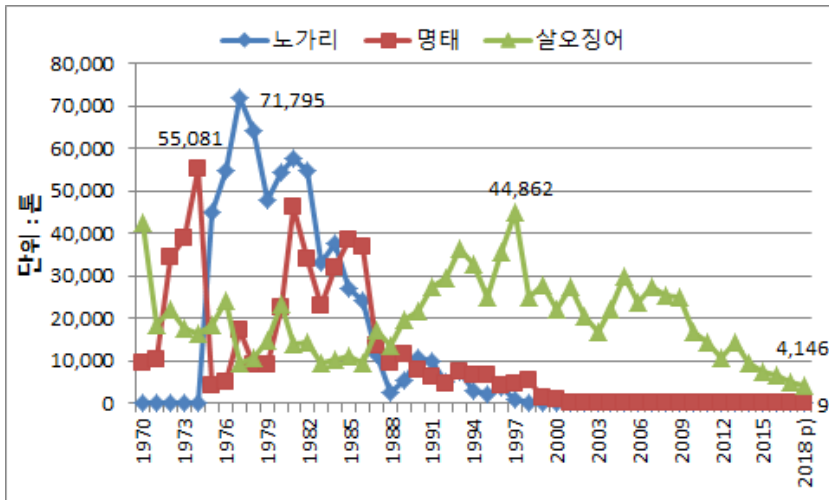
5)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고, 주로 가자미, 넙치, 송어, 방어류 등이었다⁶⁾.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어선도 감소하고 있고, 어선은 연안 어업 중심의 소형 어선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연안에서의 어업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해수온 상승, 갯녹음 현상 등으로 자원량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어선이 없는 어업인들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양레저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해변과 어촌은 각종 레저시설에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어촌과 수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어업인 감소, 수산업 활동 공간 부족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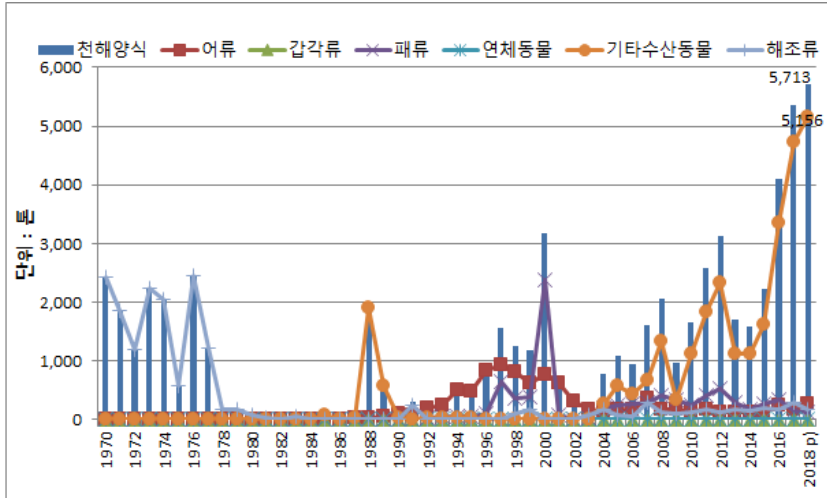
〈그림 2-3〉 강원도 주요 품종의 어획량 추이



자료: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6)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4〉 천해양식 품종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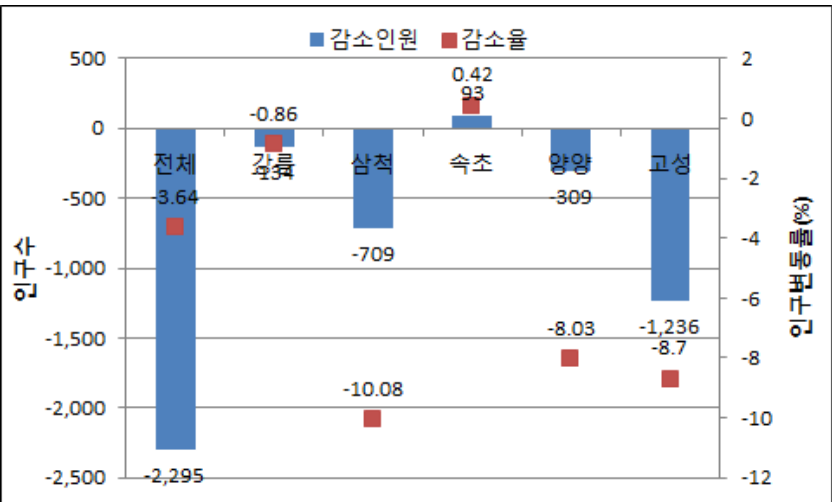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절 강원도 동해안 어촌의 인구소멸 위기 심화

1. 어촌 인구감소

강원도 동해안 어촌의 인구는 2014~2018년 동안 63,009명에서 60,714명으로 2,295명이 감소했다.⁷⁾ 10% 이상 감소한 경우도 18곳이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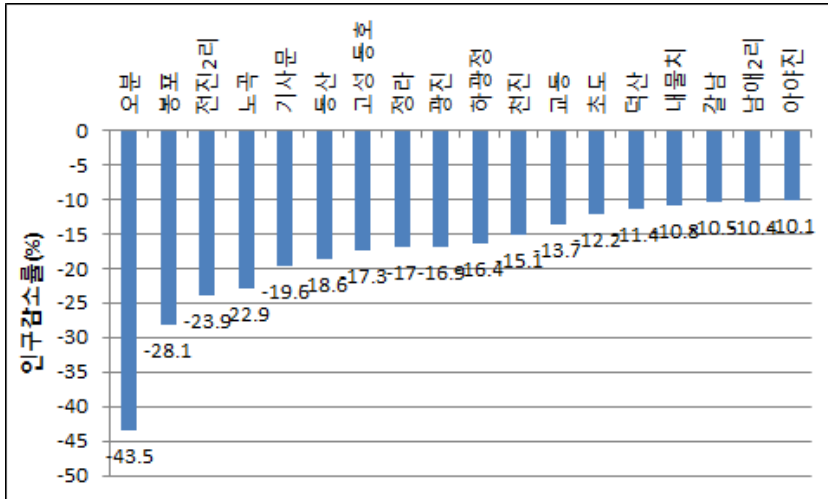
〈그림 2-5〉 시군별 어촌의 인구감소 및 감소율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2

7) 김충재·박상우(2019), p. 2. 어촌의 인구조사는 자료가 불충분한 동해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강릉시 주문진을 제외한 65개 어촌을 대상으로 하였음. 2018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3~2017년으로 하였음.

〈그림 2-6〉 어촌의 인구감소율(10% 이상 감소)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2

2. 어촌 인구소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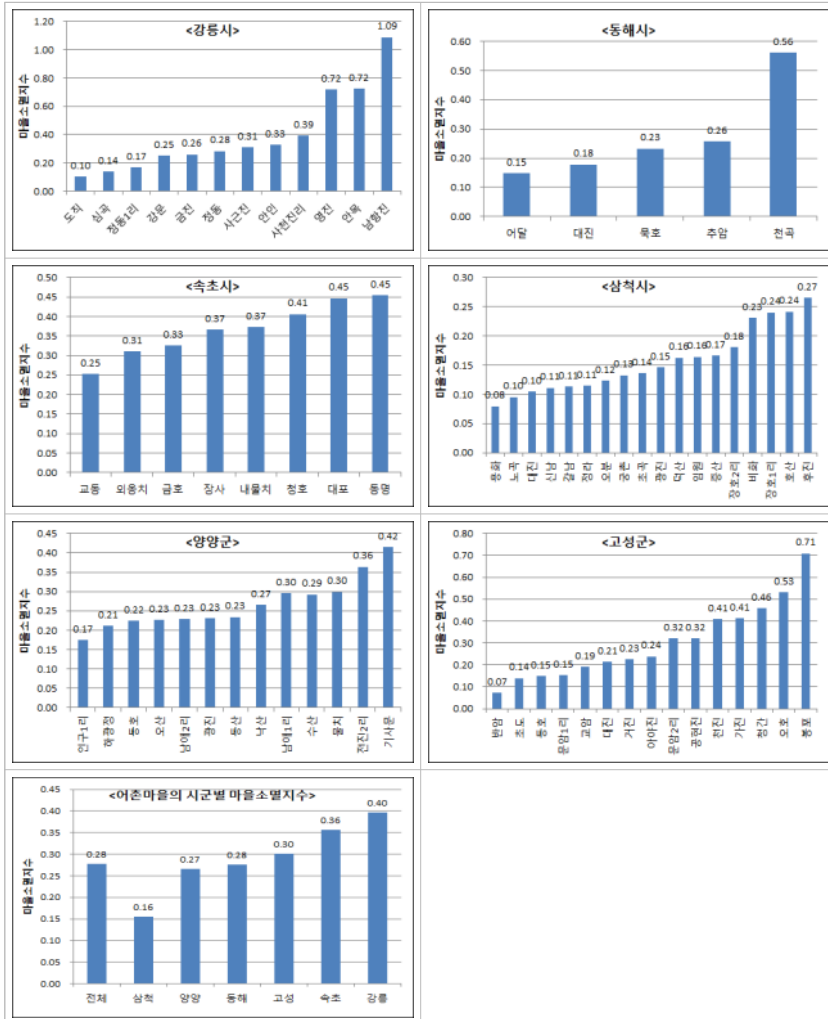
김충재·박상우(2019)의 연구에서 강원도 동해안 어촌의 인구소멸지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동해안의 어촌 74개 중 7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소멸 고위험은 25개, 마을소멸 진입은 39개로 전체의 91%가 마을소멸 고위험이거나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각 어촌의 소멸지수 평균은 0.28로 마을소멸 고위험 직전이었고, 삼척은 0.16으로 고위험, 양양 0.27, 동해 0.28, 고성 0.30, 속초 0.35, 강릉 0.40으로 소멸 위험 진입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참조). 이는 강원도 전체의 지방소멸지수 0.58⁹⁾보다 2배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예측에서 2041년에는 마을소멸 고

8) 김충재·박상우(2019), p. 3.

9) 한국고용정보원(2018), p. 7.

위험은 52개로 증가하고 마을소멸지수가 '0'인 마을도 10개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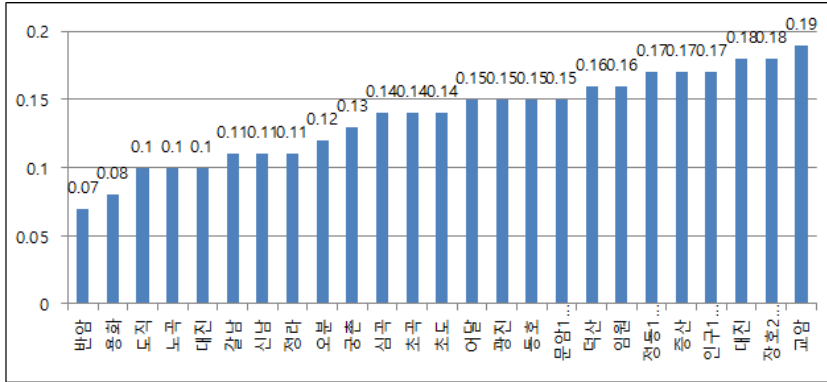
〈그림 2-7〉 강원도 시군 어촌별 소멸지수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4

10) 김충재·박상우(2019), p. 4.

〈그림 2-8〉 마을소멸지수 0.2 미만의 어촌



자료: 김충재·김주원(2018), p. 25-32.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어촌의 고령화

어촌의 고령화는 70개 어촌 중 63개(전체의 90%)가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상태였고, 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14%)는 1개에 불과했다¹¹⁾. 전체 어촌의 고령화지수 평균은 29.4였고 삼척은 36.09로 가장 높고, 속초는 23.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2-9〉 참조). 2041년에는 고령화지수 70 이상도 18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¹²⁾.

마을소멸지수 0.1 이하의 반암, 용화, 도직, 노곡 등은 가임여성이 10명 미만¹³⁾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없다면 마을소멸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11) 김충재·박상우(2019), p. 4-5.

12) 김충재·박상우(2019), p. 5.

13) 김충재·박상우(2019), p. 13.

〈그림 2-9〉 강원도 동해안 어촌의 고령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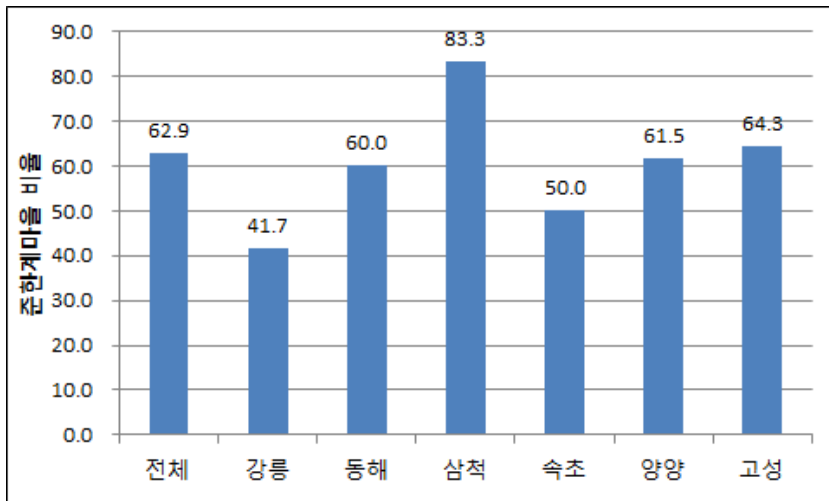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5

4. 어촌의 한계 정도

한계정도를 조사한 결과¹⁴⁾, 한계마을(고령화지수 50% 이상)은 없었으나 한계마을에 근접한 마을(고령화지수 40% 이상)은 6개나 되었고,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인 준한계마을은 44개로 전체의 63%였다. 삼척은 준한계마을이 83.3%로 가장 높았다.

〈그림 2-10〉 강원도 동해안 어촌마을의 시군별 준한계마을 비율



주: 2018년 기준(단, 강릉 사천진, 고성 가진, 거진, 교암, 문암, 반암, 오호, 공현진, 속초 장사, 동명, 삼척 갈남, 신남, 임원은 2017년 기준)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6

14) 김충재·박상우(2019), p. 6.

제3절 어촌 활성화 정책 도입의 당위성

1. 어촌소멸 위험의 심각성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서부터 시작된 강원도 동해안 어촌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가임여성의 비율은 상당수 마을이 5% 미만이다¹⁵⁾. 이러한 마을은 특히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 위험성이 높다. 김충재·김주원(2018)의 연구는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했지만, 시 지역의 경우는 비어업인이 많기 때문에 어촌 소멸지수나 고령화지수는 심각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실제 어업을 중심으로 한 어촌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이는 어업가구, 어업인의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

강원도 어가수는 1970년 19,023명에서 2018년 2,004명으로 89.5% 감소, 어업가구원수는 동기간 106,189명에서 4,917명으로 95.4%, 어업인수는 22,204명에서 3,040명으로 8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동기간 각각 어가수 65.5%, 어업가구원수 87.2%, 어업인수 72.4% 감소하여 강원도는 전국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어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최근 3년(2015~2018)을 비교해보면, 강원도 어가는 12.6% 감소로 부산, 울산, 경기, 경남 다음으로 높았고, 어업인은 동기간 20.0% 감소로 경남(20.2%) 다음으로 높았다. 동기간 강원도 농가는 73,082가구에서 67,809가구¹⁶⁾로 7.2% 감소했고, 이는 어가보다 낮은 감소율이었다. 이와 같이 강원도 어업인구의 급격

15) 김충재·박상우(2019), p. 13.

16)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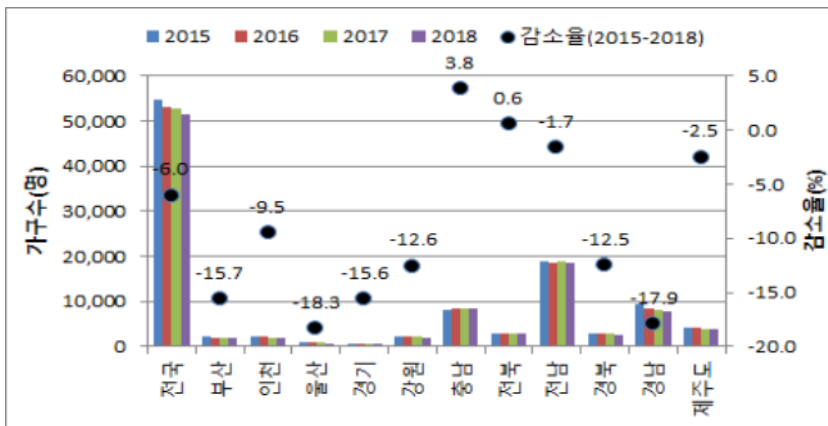
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어촌, 수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강원도 어가수, 어업가구원수, 어업인수 감소 추이

구분	어가수		어업가구원수		어업인수	
년도	1970	2018	1970	2017	1970	2017
강원도	19,023	2,004	106,189	4,917	22,204	3,040
전국비중(%)	12.8	3.9	11.6	4.2	7.2	3.6
강원도감소율(%)	-89.5		-95.4		-86.3	
전국감소율(%)	-65.5		-87.2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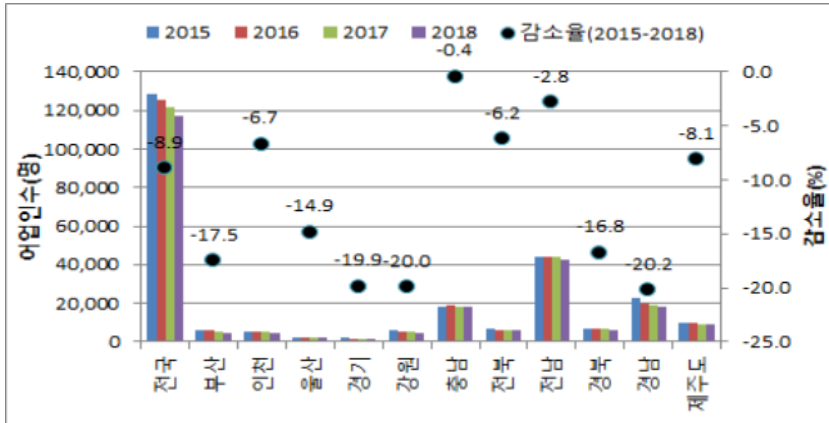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1. 일부 수정. 내수면 미포함

〈그림 2-11〉 시도별 어업가구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12〉 시도별 어업인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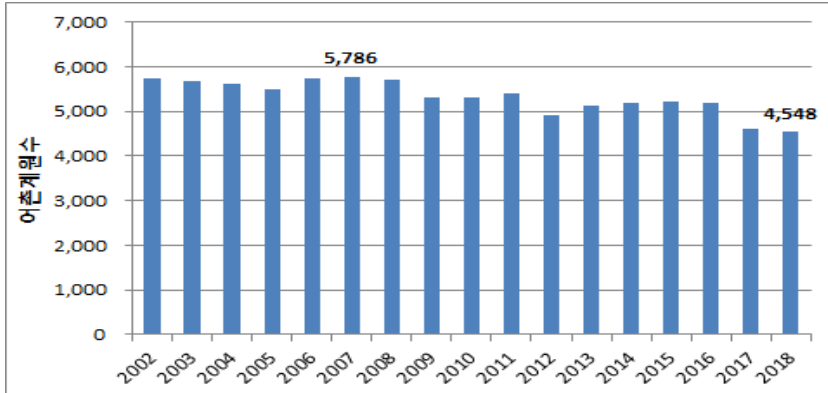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어촌계 계원수 감소

어촌계는 어업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모든 계원은 어업을 비롯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체적인 규정에 기반하여 공동어업, 양식, 가공, 체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의 소득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의 쇠퇴에 따라 어촌계의 구성원도 감소하고 있어 어촌의 구심점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강원도 동해안의 어촌계는 74개소가 있고 어촌계원은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4,548명이었다. 어촌계원이 20명 이하인 어촌계는 20개나 되고, 이중에서는 15명 이하도 8개나 된다. 15명 미만인 어촌계는 어촌계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림 2-13〉 강원도 동해안 어촌계원수 추이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각 연도(2012~2017)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4〉 강원도 동해안 수협별 어촌계 계원 20명 이하인 어촌계

수협별	어촌계명(개소)	어촌계원(명)
강릉시 수협	강 문	20
	남향진	13
	정동1리	16
	심 곡	12
동해시 수협	도 직	17
	천 곡	17
	추 압	19
삼척 수협	증 산	11
	후 진	10
	광 진	11
	용 화	20
원덕 수협	비 화	16
	노 곡	20
	동호리	16
양양군 수협	전진 2리	14
	오 산	15
	수 산	18
	동 호	16
	하광정	16
	광 진	11

자료 : 강원도 환동해본부, 각 연도(2012~2017)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어촌의 낮은 개방성과 역량 부족

어촌은 수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농반어가 많다. 마을 앞에는 해변, 바다 등의 자원이 있고, 배후로는 농지, 산림 등이 많기 때문에, 어촌 활성화를 위한 활용 가능 자원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마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어촌 고유의 폐쇄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촌계는 여전히 어촌계 가입문턱이 높다.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보통 2년 이상이고 가입비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 어업인, 어촌인구가 감소하고, 어촌계원의 수가 20명 이하인 어촌계가 20개나 되지만 어촌계의 가입문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어업인으로 가입하기 쉽지 않고 어촌에서 창업도 용이하지 않다. 어촌계에 가입하고자 하여도 고가의 어선을 구입하기 어려운 것도 어촌계원 감소를 막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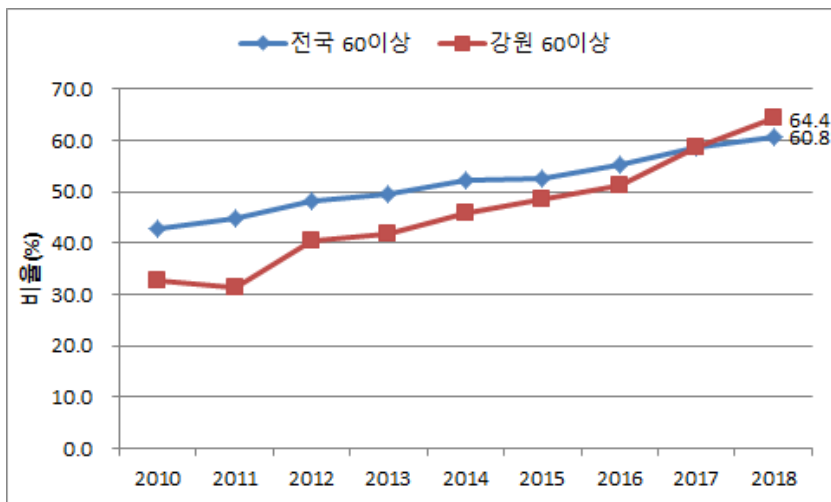
농촌만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지역민과 융화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강원도 동해안의 어촌에는 사회적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촌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외부로부터 인력이 유입된다고 해도 정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한 어촌은 이미 어촌정주여건도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술되었듯이 강원도 동해안 어촌은 초고령 사회이고 어업인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다. 어업인의 경우는 최근 고령화지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2017년부터 전국 평균을 추월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3.6%p 높아졌다. 65세 이상의 경우, 2018년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 7%p 낮지만, 전년도 10.8%p에

비해 급격히 격차가 줄었고 이러한 추세라면 곧 전국 평균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60세 이하 인구의 타 지역으로의 전출은 많지만 새로이 유입되는 젊은 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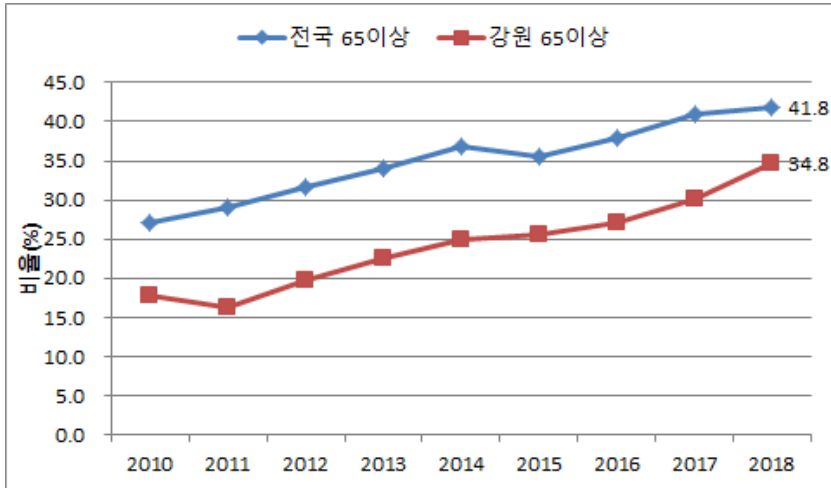
문제는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어촌에서의 공동체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발 가능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일자리, 소득 창출로 연계시키기 어렵게 된다.

〈그림 2-14〉 강원도 동해안 어업인의 60세 이상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15〉 강원도 동해안 어업인의 65세 이상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검색일: 2019. 12. 1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러한 어촌의 상황을 방지한다면 어촌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어촌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인구 유출 완화, 복지 확대, 정주여건 개선, 교역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어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현 상태로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어촌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파, 홍보하는 단기적 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4. 어촌 활성화 정책 추진과 거버넌스 구축 시급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많은 사업들은 간접적으로 어촌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항 및 항만, 수산업(어로 및 양식), 해양관광 등이 중심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밀착 지원은 어촌특화지

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은 어촌의 인구유입(귀어귀촌), 6차산업화, 어업인 역량강화 등이다. 그러나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연간 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지원사업은 한정적이다. 그 외 한시적으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2019년 3개소, 약 27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2019년 2개소, 약 200억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2019년 1개소, 0.5억 원), 어촌체험 휴양마을기반시설 확충(2019년 1개소, 1억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2019년 4개소, 약 0.8억 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2019년 1개소, 4억 원), 수산산업창업지원사업(2019년 11억 원)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어촌체험 휴양마을기반시설 확충을 제외하면 모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9개의 사업의 추진(추진주체, 대행)은 어촌특화지원센터, 수산산업창업지원센터, 해수부 및 도시군, 해수부 및 시군, 시군 등 여러 주체 또는 대행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연계,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 기반 확충, 공동체 일자리 창출, 어촌 정주여건 개선, 귀어귀촌 유도 등 종합적, 지속적 지원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원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체를 위해서도 강원도 주도적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 김충재·김주원(2018)의 연구결과에서 강원도 동해안 어촌의 54개는 이미 마을소멸 고위험 및 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내수면 어업계를 포함하면 지원이 시급한 어촌, 내수면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어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어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

원체계(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어촌이나 어촌계의 인구가 이미 심각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이웃하는 어촌, 어촌계와의 연계, 통합도 추진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어촌 활성화 지원체계의 밀착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델사업화는 시범사업적 성격이나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고 주변 지역으로 홍보하여 어촌 활성화의 실증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강원도 동해안의 어촌과 같이 인구감소, 고령화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기 쉽지 않지만, 성공적인 모델이 창출된다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정책화될 수 있고, 이웃 어촌에 미치는 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삼척 장호마을의 투명카누를 중심으로 한 어촌체험마을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는 많은 마을에서 어촌체험마을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별히 쇠퇴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활성화를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어촌 활성화의 모델로 활용한다면 이웃 마을에 미치는 파급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 활성화 모델을 추진한다.

〈표 2-5〉 강원도 2019년 어촌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예산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 원)	재원별 내역(천 원)				추진 주체(대행)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어촌뉴딜 300사업 (2019~2021)	2개소	20,000,000	14,000,000	6,000,000		-	해수부, 도시군
창업어가 멘토링	2명	12,000	8,400	3,600	-	-	해수부, 도
청년어업인 영여정착 자금지원	10명	107,600	74,320	9,233	24,047	-	해수부, 도시군
귀어홈스테이 운영	1개소	25,000	12,500	2,250	5,250	5,000	해수부, 도시군
어촌체험 휴양마을 기반시설 확충	1개소	100,000	-	20,000	50,000	30,000	도시군
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개소	83,800	41,900	-	41,900	-	해수부, 시군
마을단위 특화개발	3개소	2,753,000	1,627,000	-	698,000	428,000	해수부, 시군
지역역량 강화	1개소	50,000	35,000	-	15,000	-	해수부, 시군
어촌특화 지원센터 운영	1개소	500,000	250,000	250,000	-	-	어촌특화 지원센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1개소	400,000	200,000	200,000			어촌특화 지원센터
수산산업 창업지원	1식	1,100,000	550,000	550,000	-	-	수산산업 창업지원 센터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내부자료

제4절 어촌 활성화 사업모델 방향 설정

1. 현장 조사

어촌 활성화 추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강원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전문가 등이 고성군 초도어촌과 삼척시 신남어촌을 방문하여 어촌계원 및 어촌주민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촌의 현황, 특징, 자원, 사업화 여건, 현안 등을 파악하였다.

〈표 2-6〉 현장조사 주요 항목

항목	조사 항목
현황	• 마을의 현황, 특징, 장단점, 인구구조 등
어업현황	• 어업인, 어촌계원 현황 및 추이
	• 수산업 현황, 어가 소득 등
의지	• 어촌계 가입 규정 완화 정도
	• 리더 및 마을의 의지
자원 및 여건	• 관광자원화 여건
	• 수산물 특화 여건(사업화 자원)
	• 어촌마을 화합정도(갈등 여부)
	• 인적 구조(사업추진 가능 여부)
	• 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 주변 여건
현안	• 마을 현안
기대효과	• 지원 시 예상되는 어촌 활성화 기대효과 정도
	• 거점화 또는 거점지역 지원역할 가능성
논의결과	• 어촌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향 도출

1) 고성군 초도어촌 현장조사 결과

(1) 전체적인 현황

고성군 초도어촌은 현남면 초도리의 어촌으로 1, 2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현남면의 면소재지가 있는 대진리와 연결하여 있어, 생활권은 현남면 중심지로 볼 수 있다. 초도리에는 대진 시외버스터미널, 대진중고등학교 등이 있다. 초도리 배후에는 화진포가 있어 연안개발은 제한을 받지만,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교통은 배후의 7번 국도가 있으나 초도항과는 1km 이상의 거리에 있고, 7번 국도와 어항 사이에는 지방도가 있다. 초도항 바로 뒤편 배후에는 군사시설이 있어 각종 개발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도어항은 북쪽으로는 대진항, 남쪽으로는 거진항이 있어 두 개의 국가어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이다. 초도항 동쪽으로는 금구도라는 섬이 있어 관광자원화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 금구도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능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현재도 성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수군의 기지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인구구조

초도리의 인구구조를 보면, 2개 마을에 77가구, 총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331명이다. 2014년 377명에서 46명이 감소했다. 고령화는 전체의 34.7%로 교암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어촌소멸지수는 0.14로 반암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어촌소멸 고위험 상태이다.

(3) 어업 현황

어업가구는 85호, 어촌계원은 50명, 어선은 30여 척, 해남해녀는 14명, 마을어장은 152ha이다. 주요 수산물로는 성게를 비롯하여 문어, 전복, 미역 및 기타 어선어업 수산물이다. 최근에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자원이 감소하면서 성게자원도 많이 줄어들었다. 과거 10톤/년 생산에서 최근에는 3톤 정도로 감소했다고 한다. 초도어촌은 군 사분계선, 북방한계선과 가까이 위치하며, 저도어장에 입어하면서 문어 등 수산물 생산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4) 필요성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성게를 주요 자원으로 한 어촌체험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는 관광객이 줄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인구의 감소, 수산물 생산 감소 등으로 어촌에서는 어촌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여건

마을의 자원은 성게, 미역, 문어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어선어업 생산물이 있고, 마을 앞바다에는 금구도, 배후에는 화진포, 해변 등이 있어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어촌 활성화를 추진할 여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촌주민의 상당수가 고령화되면서 공동체 사업의 동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6) 마을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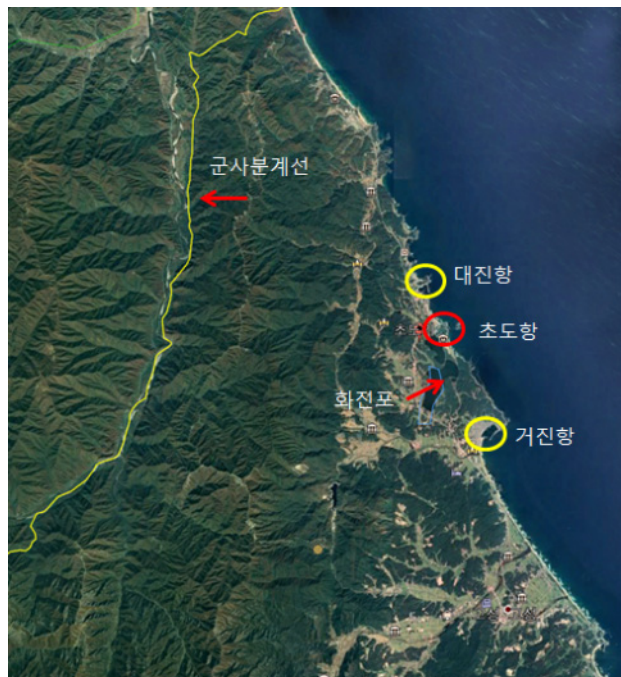
마을의 현안으로는 월파에 대한 대책, 어선 인양기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한 방안 마련, 주유소가 없어서 불편한 점, 미활용 옥개시설(위판장)로 인한 뒤편의 회센터 조망권 문제 등이 있다.

(7)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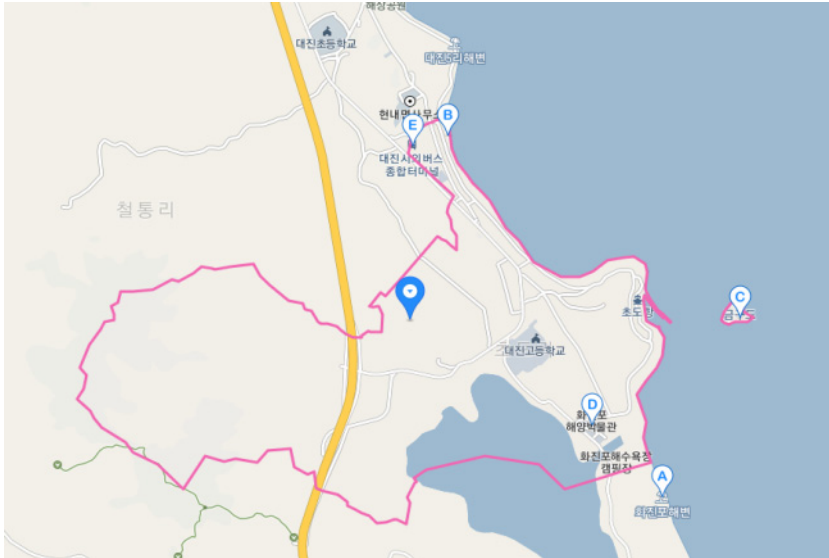
현장조사를 통한 어촌 활성화 방향으로서는 어촌역량강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계, 문어 등의 자원을 특화하고, 금구도, 화진포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수산물가공품 생산과 관광자원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회센터를 활용하여 어촌공동체사업의 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구도의 광개토대왕 스토리를 활용하여 마을의 브랜드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2-16〉 초도항의 지리적 입지



자료: Google Earth Pro(검색일: 2019. 12. 2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7〉 초도리의 행정구역



자료: 카카오맵(검색일: 2019. 12. 2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8〉 초도항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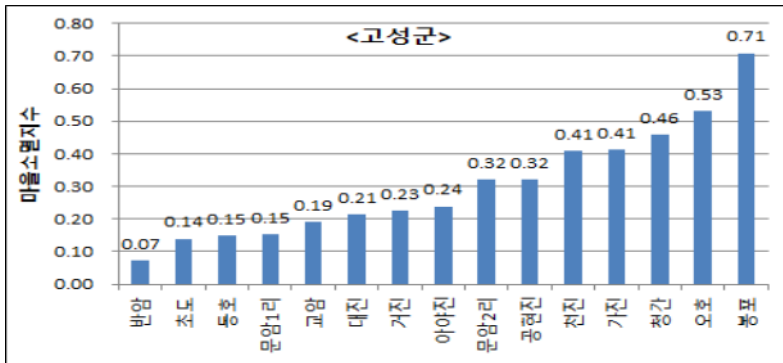
자료: Google Earth Pro(검색일: 2019. 12. 2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7〉 초도리 인구구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인구	377	368	346	340	331
가임여성	28	23	23	19	16
고령인구	113	115	108	113	115
소멸지수	0.25	0.20	0.2	0.17	0.14
고령화지수	29.97	31.25	31.21	33.24	3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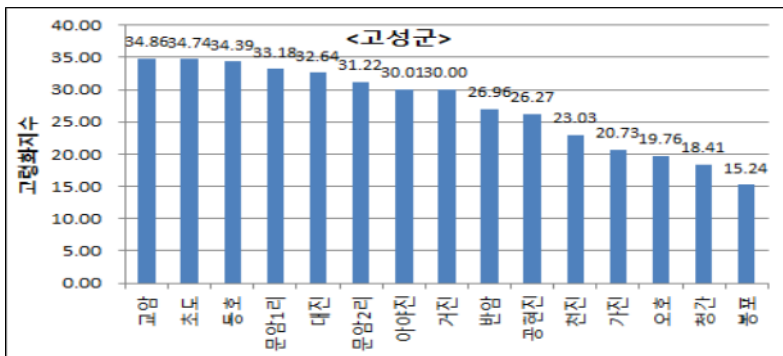
자료: 김충재·김주원(2018), p. 21-26. 가임여성은 저자 작성

〈그림 2-19〉 고성군 어촌의 마을소멸지수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4.

〈그림 2-20〉 고성군 어촌의 고령화지수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5 일부 수정

〈그림 2-21〉 고성군 초도항 모습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자: 2019. 12. 18~12.19)

〈표 2-8〉 현장조사 결과

항목	결과
현황	• 2개 마을 177호. 북쪽으로 대진항, 남쪽으로 거진항, 배후에 화진포 위치 • 생활권은 현내면소재지 대진권(인근에 연접하여 위치) • 대진중고등학교, 버스터미널 등이 있음 • 어촌정주어항이나 지방어항 수준으로 기반시설은 잘 구축되어 있음 • 위판은 대진항에서 하고 있음 • 마을 앞에는 작은 섬인 금구도가 있어 자원화 가능성 있음 • 어촌소멸지수는 0.14로 고위험, 고령화는 34.7로 높은 상황 • 어업가구 85호, 어선 30여 척, 해남해녀 14명, 마을어장 152ha • 북방한계선 인근의 저도어장에서의 조업으로 문어 등 생산량 많음 • 금강산 관광으로 성계를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계마을로 알려지게 됨
필요성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이 줄어 어촌체험마을사업 중단 • 성계, 미역 등 자원감소로 소득 감소 체감 • 소득화사업에 대한 필요성 높게 인식
의지	• 과거 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공동체사업에 대한 자신감 있음 • 어촌계장, 정보화마을사업 위원장 등 공동체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
자원 및 여건	• 성계, 미역, 문어, 패류(민들, 개랑, 전복 등), 어류 등 수산자원 - 성계는 많을 때는 연간 10톤 생산, 최근 3톤 정도(9~10만 원/kg) • 초도해변, 금구도(金龜島) 등 관광자원 있음

항목	결과
	- 금구도는 광개토대왕 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수군의 기지 역할을 했다고 함. 현재도 성터가 있음 - 군부대에 의하면 어선접안시설 설치 가능 • 성계를 테마로 어촌체험마을사업을 6년간 추진(현재는 중단, 재추진시 과거의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어법별 갈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갈등은 없음 • 어촌계원은 50명으로 많은 편. 고령화율 34.7로 높음 • 주변에는 화진포(해양박물관)가 있어, 연계 가능성 높음
현안	• 월파에 의한 어선 피해. 어선 인양기 활용도 낮음. 주유소가 없어서 애로 • 마을-어항 간 거리가 있어 동절기 폭설 등의 경우에는 불편 • 회센터 앞에 옥개시설(위판장)로 조망권 확보 곤란, 효율적 활용 필요
기대효과	• 수산,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 • 어촌의 수산물인 성게, 해삼 등을 특화하고 금구도를 활용. 주변의 관광자원 연계 등으로 소득, 일자리 창출 가능
논의결과	• 지역 수산물의 가공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역량강화사업 우선적 추진

2) 삼척시 신남어촌 현장조사 결과

(1) 전체적인 현황

삼척시 신남어촌은 원덕읍 갈남2리의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남1리와 2리는 동일한 생활권이나 어항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다. 권역별로는 원덕권역에 포함된다. 신남어촌은 야산 사이에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농지는 거의 없어 대부분 어업을 영위해왔다. 장호와 같은 민박 등 상업기능은 약하다. 갈남1리는 삼척수협에 포함되어 있고, 갈남2리(신남어촌)는 원덕수협에 포함되어 있다.

마을과 어항의 배후는 높고 낮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 개의 야산이 겹쳐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교통은 배후에 7번 국도가 있고, 마을과의 사이에 지방도가 있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신남어항은 북쪽으로는 임원항, 비화항이 있고, 남쪽으로는 갈남항, 장호항이 있다. 초도와 유사하게 국가어항인 장호항, 임원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수산업 기능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해변은 짧은 백사장이 있고, 기타는 기암괴석으로 되어 있어 경관자원으로 활용성이 높아 보인다.

남쪽 야산에는 남근조각공원, 해신당공원, 어촌민속전시관, 자연생태공원 등이 집적되어 있고,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한다.

(2) 인구구조

신남(갈남2리)에는 2017년 기준으로 100가구 167명이 거주하고 있다. 총인구는 2013년 161명에서 2015년 172명으로 증가한 후 2017년에는 167명으로 감소했다. 젊은 여성의 인구는 8명, 고령인구는 72명으로 고령화지수는 43.11로 높고, 어촌소멸지수는 0.11로 마을 소멸고위험 상황이다.

(3) 어업 현황

어업가구는 80여 가구, 어촌계원은 24명, 어선은 20여 척, 낚시어선 3척, 해녀는 3명이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자원으로는 해삼, 전복, 성게, 홍합, 미역 및 절방미역 등이 많고, 어업은 주로 문어잡이 연승이다. 어업소득 외에는 미역 등 채취 입어로, 난전에서 수산물 판매 임대료 등이 있다. 해삼종묘생산시설이 있어 해삼종자 방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삼을 어촌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필요성

빈집이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소득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상황이다. 어촌계장은 마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업인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동체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어 공동체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5) 여건

관광자원이 있어 공동체사업을 통한 관광객 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에 유리하지만, 어촌 내부의 갈등으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젊은 층이 부족한 것도 어촌 활성화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6) 마을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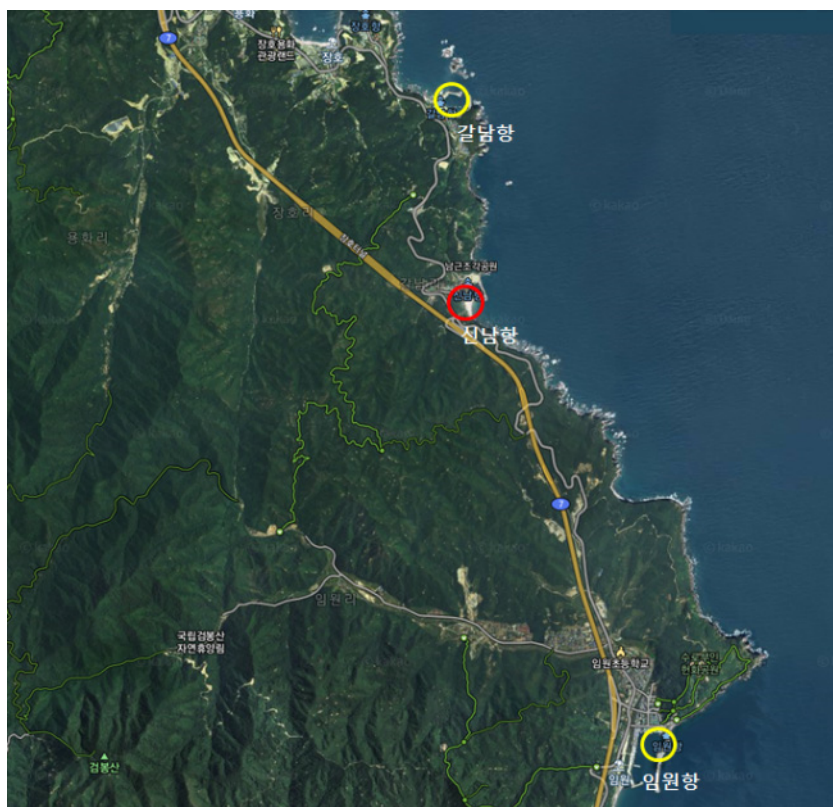
회센터(건어물센터)의 활용도가 낮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리모델링 통한 재활용 또는 철거 등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다. 회센터 임대료 문제, 난전 임대료 문제 등의 해결이 주요 현안이다.

(7) 결론

우선적으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접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촌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을 추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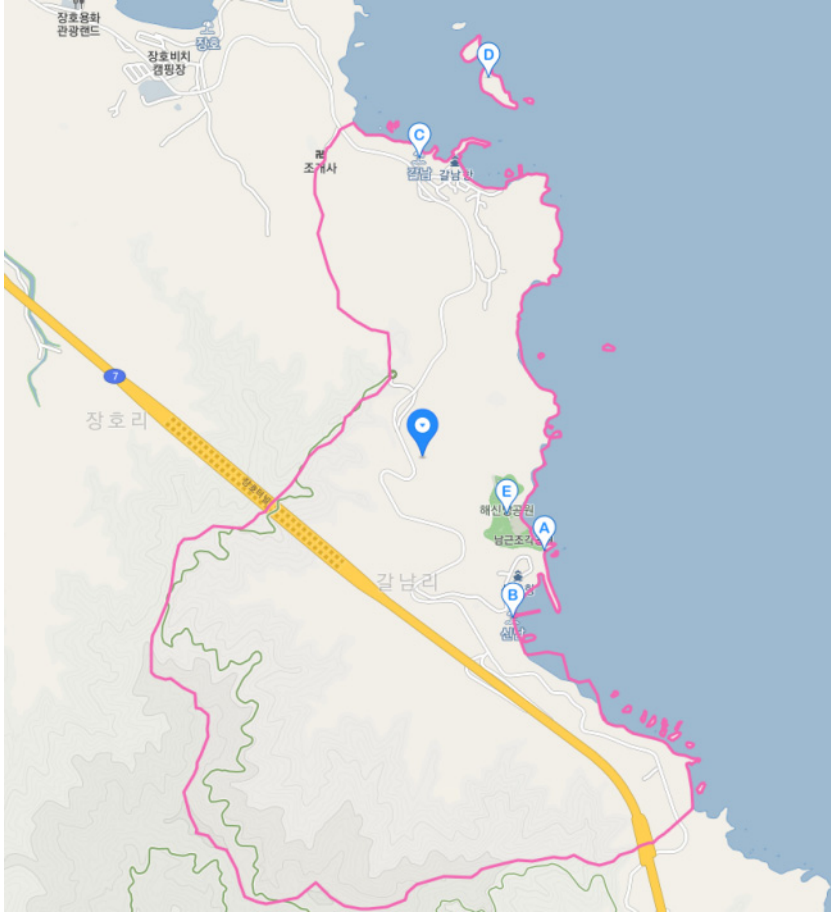
고, 어촌 내부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촌 공동체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촌 활성화사업으로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화 전략, 지역의 해삼, 미역자원 등을 특화, 상품화하는 방안, 원덕 권역의 관광거점화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2〉 신남항의 입지



자료: Google Earth Pro(검색일: 2019. 12. 2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3〉 갈남리 행정구역



자료: 카카오맵(검색일: 2019. 12. 2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4〉 신남항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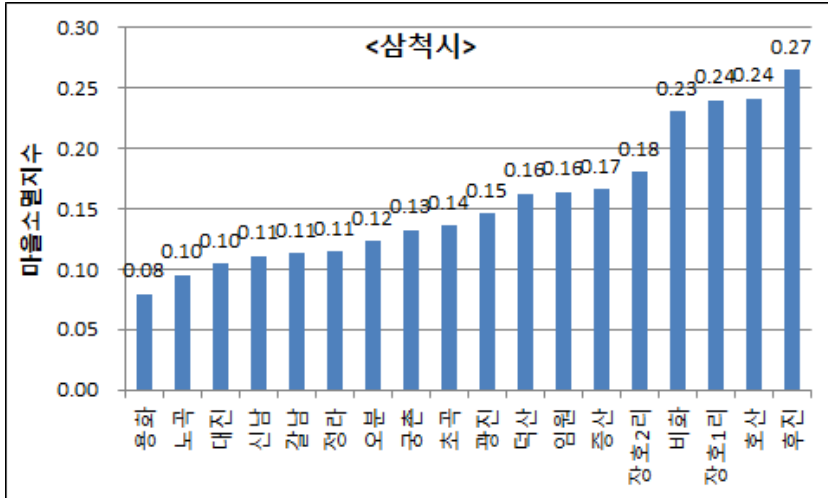
자료: Google Earth Pro(검색일: 2019. 12. 2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9〉 신남어촌의 인구구조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인구	161	168	172	169	167
가임여성	7	5	6	9	8
고령인구	75	76	75	72	72
소멸지수	0.09	0.07	0.08	0.13	0.11
고령화지수	46.58	45.24	43.60	42.60	4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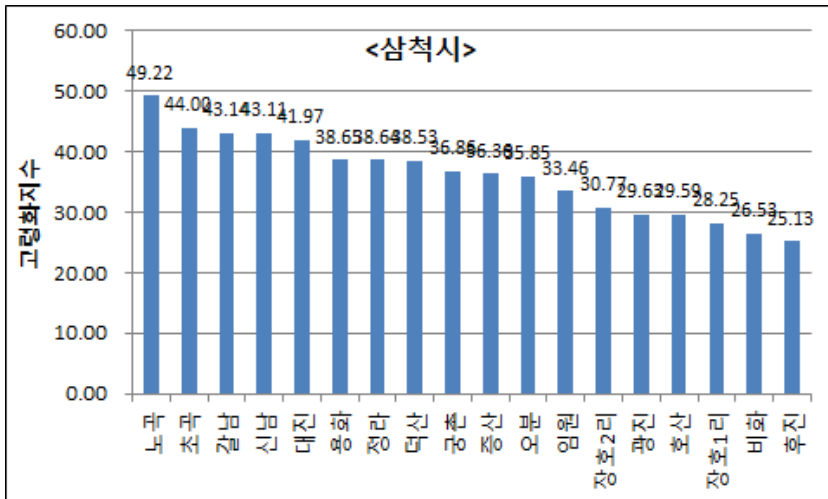
자료: 김충재·김주원(2018), p. 24-33. 가임여성은 저자 작성

〈그림 2-25〉 삼척시 어촌의 마을소멸지수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4.

〈그림 2-26〉 삼척시 어촌의 고령화율



자료: 김충재·박상우(2019), p 5.

〈그림 2-27〉 삼척시 신남항 모습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자: 2019. 12. 18~12.19)

〈표 2-10〉 신남어촌 현장조사 결과

항목	결과
현황	•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 5개 반으로 구성. 마을은 100여 가구, 167명 • 북쪽으로는 임원항, 남쪽으로는 갈남항 사이에 위치 • 어촌계원은 24명, 어선 20척, 낚시어선 3척 • 어업은 어선어업, 호망, 건망, 통발, 연승 등. 위판은 임원항에서 함 • 초등학교는 폐교 • 해신당공원, 남근조각공원, 자연생태공원, 어촌민속박물관 등이 있음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건어물 판매로 부가소득 창출 • 고령화율 43.11, 어촌소멸지수 0.11로 쇠퇴하고 있음 • 어촌계와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 • 현재까지 어촌공동체(어촌체험마을사업 등)사업은 추진한 바 없음 •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어촌역량강화 진행 중
필요성	•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소득 감소 체감 • 회센터를 건립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건어물센터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공동체사업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소득 창출 희망
의지	• 어촌계장은 갈등해소, 소득창출 방안 의지 있음 • 어촌계원, 마을주민들은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해 우려. 인구유입, 소득창출 방안 마련 의욕 있음

항목	결과
자원 및 여건	• 해신당공원, 남근조각공원, 자연생태공원, 어촌민속박물관이 집적되어 있음 • 수산물은 미역, 해삼, 문어 등을 비롯한 어선어업 생산물 등이 있음 • 마을에는 해삼종묘배양장이 있어 해삼을 특화할 수 있는 여건임 •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이 발달하여 경관자원으로 활용 가능 • 백사장은 짧지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를 전략화할 수 있음
현안	• 어항 내 모래 침적 지속으로 어항의 재개발 희망 • 어항 재개발, 해변 백사장 확대 희망 • 건어물센터(회센터)의 유희화 문화 해결, 난전 문제 해결 희망
기대효과	• 신남은 기존 관광자원이 있어 원덕권역에서는 관광거점화 가능성 있음 •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제품화로 일자리, 소득창출 가능성 높음. 해삼을 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레길은 유용한 경관자원이 될 수 있음
논의결과	• 신남어촌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어촌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역량 강화, 어촌주민 간 지속적인 대화로 갈등을 포함한 마을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 •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품화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

2. 설문조사

어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대국민 입장에서 의견과 강원 어촌 내부에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촌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설문을 통해서 어촌의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대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강원 어촌 활성화

(1) 조사 개요

강원도 어촌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과 더불어 잠재적 방문·거주자 대상의 수요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 어촌의 잠재 수요자 관점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

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명은 ‘강원 어촌에 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강원 어촌을 아시나요’이며, 총 1,007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였다.

〈표 2-11〉 설문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응답자 수	• 1,007명, 표본오차 $\pm 3.09\%$ (95% 신뢰수준)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설문조사
자료 기간	• 2019. 11. 14 ~ 2019. 11. 15 (2일간)
조사 기관	• 연구진이 직접 실시, 오픈서베이(Open Survey) 패널 활용

자료: 저자 작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조사는 〈그림 2-21〉과 같이 모바일 환경의 특성과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응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도시민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효표본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설문은 모바일 기반 조사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주요 타겟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간·비용적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모바일 조사 예시 화면(스마트폰)



51 ↘

〈표 2-13〉 조사 항목 구성

구 분	조 사 항 목
강원 어촌에 관한 인식수준	- 강원도 바다에 대한 이미지 - 대표적인 강원 어촌지역 - 강원 어촌에 대한 이해 수준 - 강원 어촌 관련 정보획득 창구
강원 어촌의 발전 전망과 경쟁력	- 강원 어촌의 쇠퇴 전망 - 강원 어촌의 쇠퇴 이유 - 강원 어촌의 현상유지·성장 이유 - 강원 어촌의 경쟁력 요인(분야별)
강원 어촌의 발전방향 제안	- 강원 어촌의 활성화 전략 - 강원 어촌의 특화사업 유망 분야 - 강원 어촌의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주: 조사표는 〈부록〉 참조

자료: 저자 작성

설문응답자 타겟팅은 성별·연령·지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자 성별은 50:50으로 균등할당 하였고, 연령대 기준으로는 30대(22.8%)와 40대(29.2%)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2018년 시도별 주민등록인구에 비례하여 할당한 관계로, 서울·경기·인천 응답자가 전체의 50.5%를 차지한다.

〈표 2-14〉 응답자 개요

연 령			거주 지역		
구 분	사례 수	비중	구 분	사례 수	비중
합 계	1,007	100.0%	합 계	1,007	100.0%
20~29세	174	17.3%	서울·경기	509	50.5%
30~39세	230	22.8%	부·울·경	154	15.4%
40~49세	294	29.2%	강원·경북	130	12.9%
50~59세	109	10.8%	전라·제주	110	10.9%
60세 이상	200	19.9%	대전·충청	104	10.3%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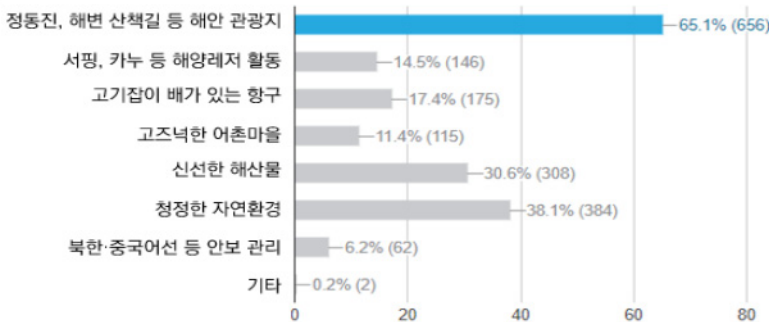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가. 강원 어촌에 관한 인식수준

응답자들은 정동진이나 해변 산책로 등 해안 관광지를 강원도 바다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연상하고 있었다. 특히, 해안 관광지로 강원도 바다를 인식하는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59세의 중장년층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과 신선한 해산물 등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강원도 바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로 응답되었다.

〈그림 2-28〉 강원도 바다에 대한 이미지
강원도의 '바다'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N=1,007, 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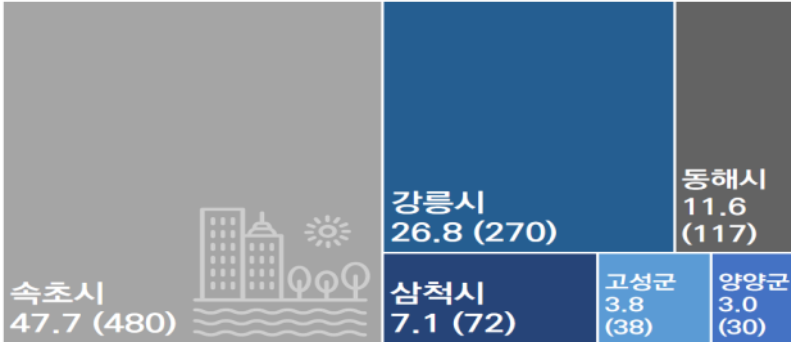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강원도의 연안·어촌지역을 질의한 결과, 속초(47.7%)와 강릉(26.7%)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해, 삼척, 고성, 양양 등으로 나타나 군(郡)단위보다는 시(市)급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29〉 대표적인 강원 어촌지역
강원도의 '어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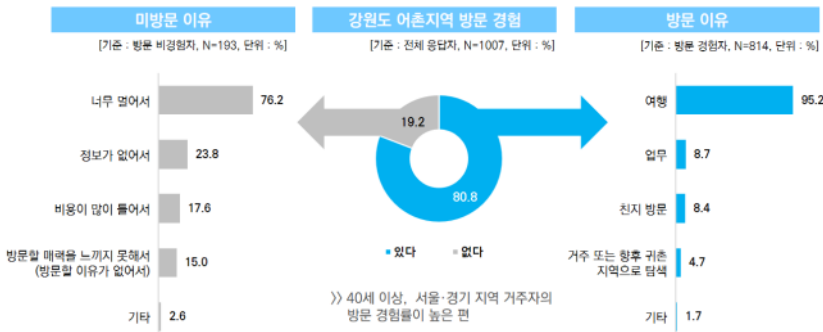
N=1,007, 단일응답, 단위: %, (명)



자료: 저자 작성

전체 응답자의 80.8%는 강원도의 연안·어촌지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및 고령층 집단에서,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서울·경기 거주자의 방문 경험률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방문 사유로는 여행(95.2%)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19.2%를 차지하는 미방문자들은 먼 거리(76.2%)와 정보 부족(23.8%)을 미방문 사유로 응답하였다.

〈그림 2-30〉 강원 어촌 방문 경험 및 이유
강원도의 연안·어촌지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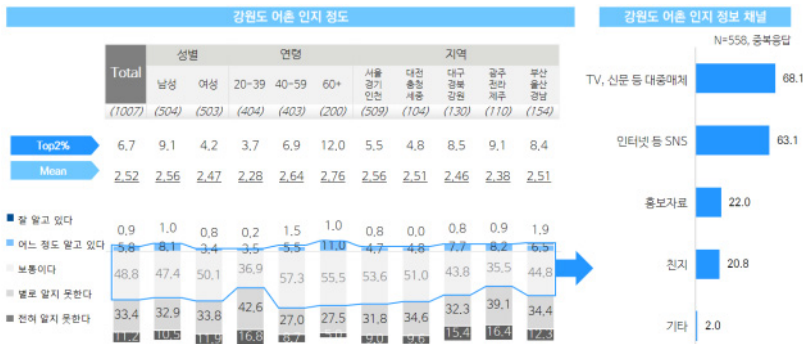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전체 응답자의 6.7%만이 강원도 어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하는 등 강원 어촌의 낮은 인지도를 대변하고 있으며,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은 주로 대중 매체(68.1%)나 인터넷 등 SNS(63.1%)로 나타났다.

〈그림 2-31〉 강원 어촌에 대한 인지수준 및 정보창구

N=1,007, 단일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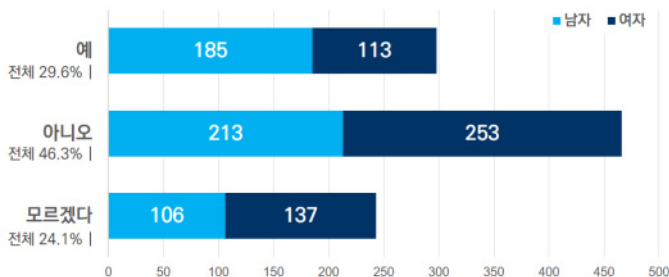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강원 어촌의 발전 전망과 경쟁력

강원 어촌이 향후 쇠퇴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29.6% 수준이었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집단이 강원 어촌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남성이 앞서 ‘강원 어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보다 41.4%p 높고, ‘강원 어촌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비중도 여성 대비 1.8%p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남성집단에서 어촌 쇠퇴 응답률이 높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30~40대에서 쇠퇴 전망이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쇠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림 2-32〉 강원 어촌의 쇠퇴 전망
강원도의 어촌이 점차 쇠퇴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N=1,007, 단일응답,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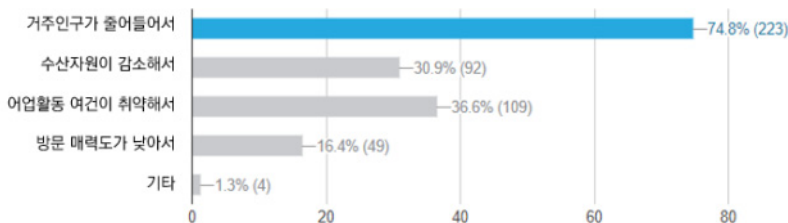


주: 어촌의 특징이 사라진 지역이 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 등
자료: 저자 작성

강원도의 어촌이 어촌의 특징이 사라진 지역이 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 등 쇠퇴하게 될 사유로는 거주인구 감소(74.8%), 어업여건 취약(36.6%)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응답자의 46.3%는 쇠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관광객 증가(79.6%)와 거주 지로서 높은 매력도(35.4%)가 그 이유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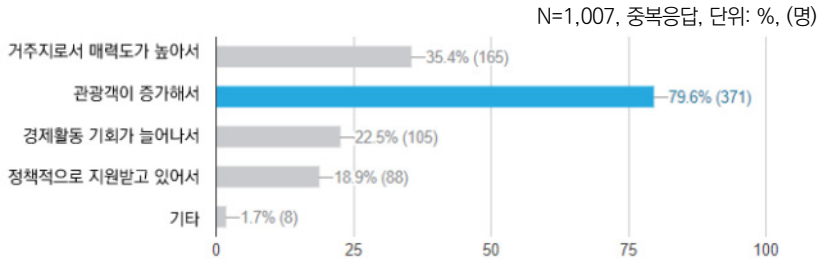
〈그림 2-33〉 강원 어촌의 쇠퇴 이유
“강원도의 어촌은 점차 쇠퇴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1,007, 중복응답, 단위: %, (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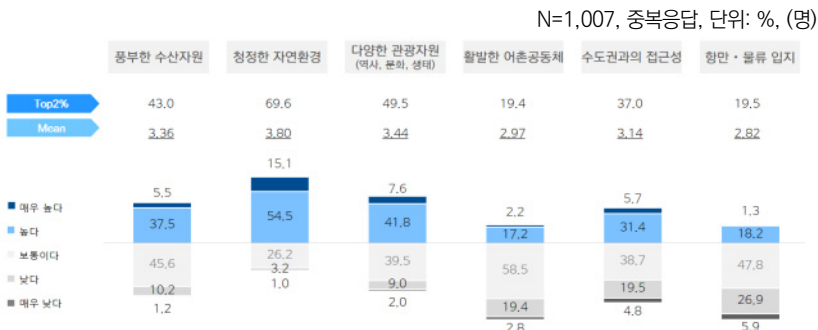
〈그림 2-34〉 강원 어촌의 현상유지·성장 이유
 “강원도의 어촌은 점차 쇠퇴할 것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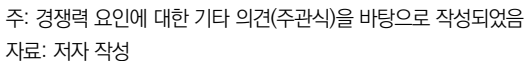
강원도 어촌의 경쟁력으로는 청정한 자연환경(69.6%), 다양한 관광자원(49.5%), 풍부한 수산자원(43.0%) 요소가 주효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반면 활발한 어촌공동체, 항만·물류 입지로서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충청 거주자가 풍부한 수산자원, 청정한 자연 환경 측면의 경쟁력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서울(57.0%)과 경기(40.9%)는 KTX, 고속도로 등 접근성 요소를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35〉 강원 어촌의 경쟁력 요인
 강원도의 어촌은 각 항목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저자 작성

N=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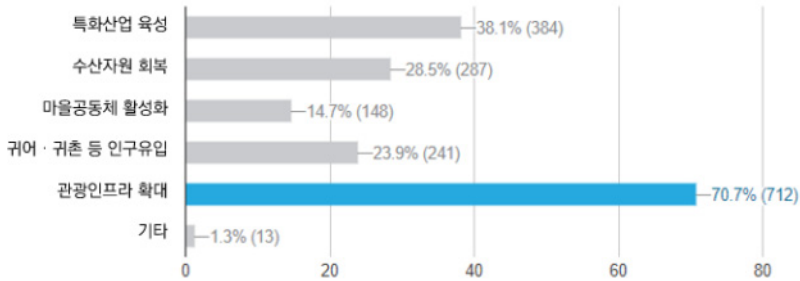
다. 강원 어촌의 발전방향 제안

58

〈그림 2-37〉 강원 어촌의 활성화 전략

강원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7, 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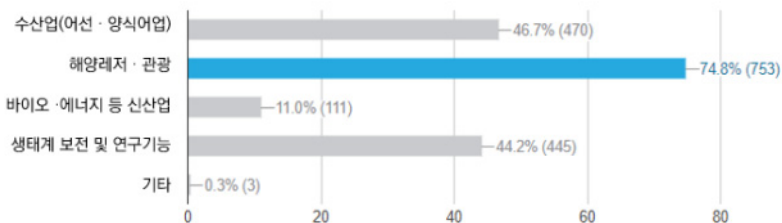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가장 유망한 특화사업 분야는 강원 어촌의 주요 경쟁요인을 반영한 해양레저·관광 등의 사업 분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층은 어선·양식어업 등 수산업 분야 활성화 또한 유력한 특화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38〉 강원 어촌의 특화사업 유망 분야

강원도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특화사업 분야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7, 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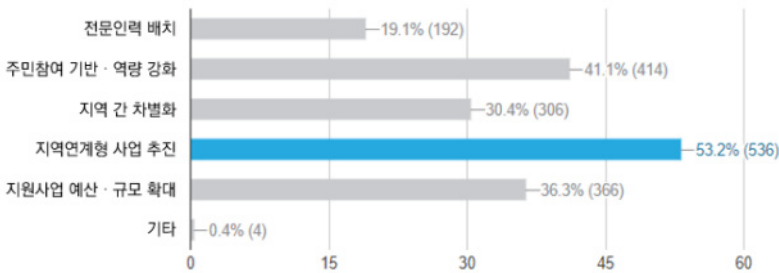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도의 연안·어촌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사업(53.2%)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 또는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거주자가 지역연계형 사업 추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기반·역량 강화(41.1%)와 사업 규모·예산 확대(36.3%)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2-39〉 강원 어촌의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강원 어촌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7, 중복응답, 단위: %, (명)



자료: 저자 작성

(3) 종합 및 시사점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강원 어촌에 대한 인식수준과 경쟁요인을 조사한 결과, 강원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프로그램 확대·내실화와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주요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해양레저·관광 중심의 인프라 확대, 강원 어촌지역 간 공통점과 차별성을 활용한 지역연계형 사업 추진, 주민참여 기반 및 역량 강화를 지목하였다. 또한 관광객 증가와 거주지로서 지니는 높은 매력도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강원 어촌의 쇠퇴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원 어촌 방문 경험률은 80.8%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어촌에 대한 이해도는 6.7%에 불과하는 등 대중매체나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0〉 주요 결과 및 시사점

Key Findings

- 강원도 바다는 해안 관광지(65.1%) 및 청정한 자연환경(38.1%)로 연상되며, 강원도 어촌의 경쟁력 역시 청정한 자연환경(69.6%, Top2 기준) 및 다양한 관광자원(49.5%, Top2 기준)에서 강세
→ 관광지원 다양화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주요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육성이 필요
- 강원도 어촌의 방문 경험률은 80.8%로 매우 높으나, 강원 어촌에 대한 인지도는 6.7%(Top2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임
→ 주로 TV,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68.1%), 인터넷 등 SNS(63.1%)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해당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강화가 효과적
- 강원도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대(70.7%) 및 특화 산업 육성(38.1%)이 필요하며, 해양레저·관광 사업 (74.8%)이 가장 유망한 특화 산업으로 나타남
→ 특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연안·어촌을 연결한 지역연계형 사업 추진(53.2%) 및 주민참여 기반·역량 강화(41.1%) 정책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내부에서 바라본 어촌 활성화

(1) 개요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상 마을로 선정된 고성군 초도어촌과 삼척시 신남어촌을 대상으로 지역민들의 어촌 활성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어촌별로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은 어촌계원과 비계원 및 일반주민, 남성과 여성의 수를 안배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7개로 구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기본사항 7, 어촌에 대한 인식 8, 어촌 활성화 방안 11, 기타 1로 하였다.

〈표 2-15〉 설문대상 및 방법

구분	신남어촌	초도어촌
설문대상수	50명	50명
어촌계원:비계원	24:26	25:25
남성:여성	31:19	32:18
문항수	27	27
설문방법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대면조사	

(2) 설문결과(초도어촌)

가. 기본사항

‘귀하는 현재 거주지역에 얼마나 거주하였습니다까?’에 대해 60년 이상 14명, 40년 이상 50년 미만이 9명, 30년 이상 40년 미만 7명, 50년 이상 60년 미만 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40년 이상이 60%, 50년 이상이 42%, 60년 이상이 28%로 장기간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은 3명으로 신규 인구유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였다.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에 대해 60대가 19명, 70대가 12명, 50대가 10명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은 64%로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도어촌의 고령화율은 34.7%로 높은 사실과 일치하는 양상이었다.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어업 21명, 농업 7명, 가정주부 6명 순으로 많았다. 어촌계원 이외의 직업으로는 농업, 상업, 유통업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어떤 어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어촌계원 중에서는 어선어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로는 맨손어업이 6명이었다.

‘귀하가 거주하는 어촌은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전체의 9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어촌의 침체 또는 쇠퇴에 대해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어촌에 대한 인식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중요한 순서대로 기재에 대해 1순위로는 수산물 등 자원감소 22명, 고령화 14명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소득감소 13명, 고령화 12명이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수산자원 감소, 고령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응답자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3번째 정도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었다.

‘어촌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심각 25명, 보통 11명, 매우 심각 9명 순으로 많았다. 심각 이상은 전체의 68%로 높았다.

‘수산물 생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감소 27명, 매우 감소 20명으로 감소 이상이 전체의 94%로 나타나, 대부분이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였다.

‘어촌의 고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심각 24명, 매우 심각 16명으로 심각 이상이 80%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대해서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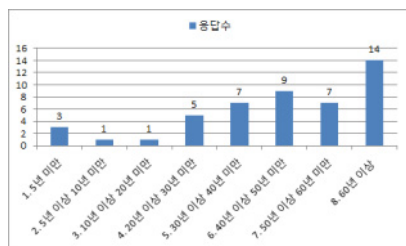
‘마을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전혀 문제없음이 26명, 보통 13명으로 나타났다.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전

체의 48%로 과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심각하지는 않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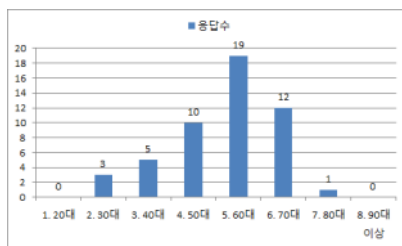
‘귀하의 마을이 향후 소멸될 것이라고 보십니까?’에 대해 전체의 94%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소멸될 정도의 위기로 인식하지는 않는 결과였다.

‘귀하의 마을이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3명이 답했고, 3명 모두 안정적 인구유지를 들었다. 실제 최근 초도어촌의 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두드러진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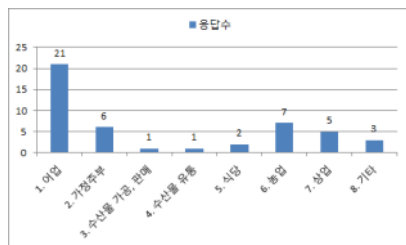
〈그림 2-41〉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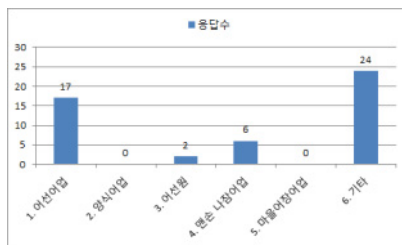
〈그림 2-4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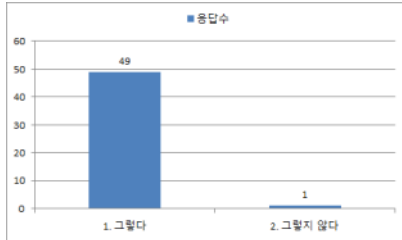
〈그림 2-43〉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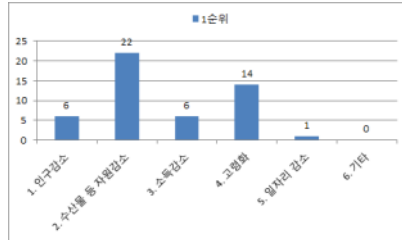
〈그림 2-44〉 어업활동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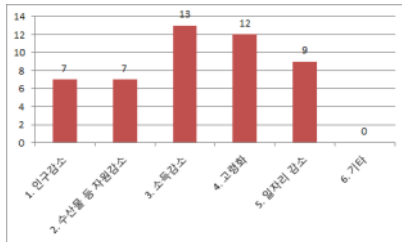
〈그림 2-45〉 어촌 참체 또는 쇠퇴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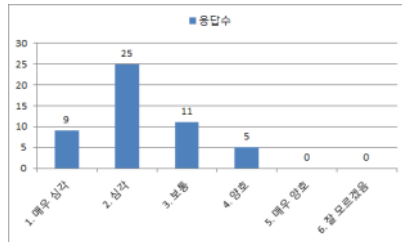
〈그림 2-46〉 어촌 쇠퇴의 원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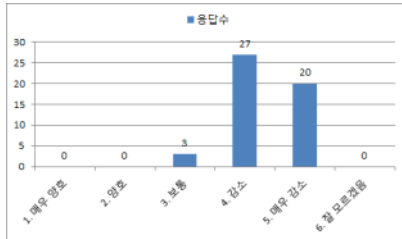
〈그림 2-47〉 어촌 쇠퇴의 원인(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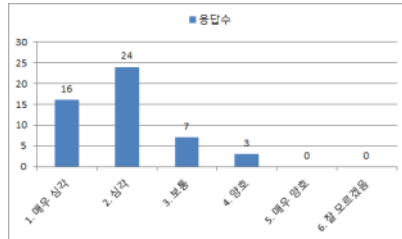
〈그림 2-48〉 어촌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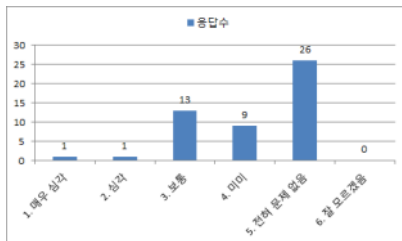
〈그림 2-49〉 수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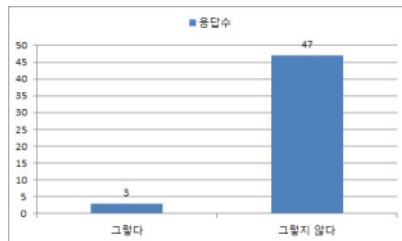
〈그림 2-50〉 어촌 고령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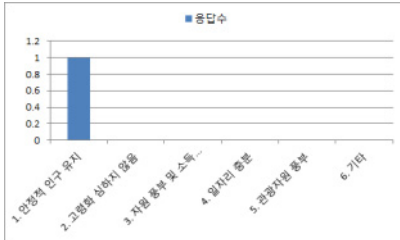
〈그림 2-51〉 마을 갈등에 대한 인식



〈그림 2-52〉 마을 소멸에 대한 가능성



〈그림 2-53〉 어촌이 쇠퇴하지 않는 이유



다. 어촌 활성화 방안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기재했을 때, 1순위로는 관광 활성화 17명, 일자리 창출 16명, 수산자원 회복 9명 순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관광 활성화 14명, 인구유입 12명, 복지강화 6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마을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1순위로는 일자리 창출 29명, 복지 확대 7명, 마을 개방 6명 순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복지 확대 11명, 일자리 창출 10명, 인구유입 활동 7명, 입주자 지원확대 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마을의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순위로는 자원조성 확대 25명, 어촌체험마을 사업 12명 순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자원조성 확대 13명, 전략품종 육성 1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자원조성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소득창출 등을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특화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해 1순위로는 풍부한 관광자원 20명, 풍부한 수산자원 20명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풍부한 관광자원 21명, 풍부한 수산자원 13명, 마을의 단합 9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풍부한 수산자원, 관광자원의 특화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복수선택 가능 응답으로 체험, 관광이 29명, 수산업 기반 강화 25명, 생태환경 자원화 18명 순으로 많았다. 즉 어촌체험마을사업과 같은 어촌공동체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하의 어촌에 수산업 분야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해 복수선택 가능 응답으로 문어, 오징어, 가자미 자원 43명, 해삼, 성게 등 자원 34명, 미역 등 해조류 자원 33명 순으로 많았다. 성게보다는 문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성게는 최근 자원감소에 따라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하의 어촌 관광자원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해 복수선택 가능 응답으로 연안 경관자원 31명, 해수욕장 등 해변자원 22명 순으로 많았다. 연안 경관자원은 금구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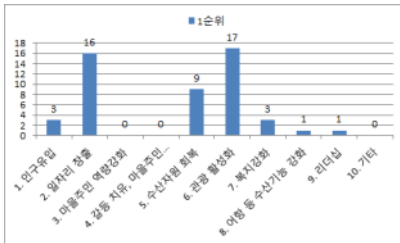
‘마을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갈등 없음 26명, 보통 13명으로 갈등이 있으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귀하의 어촌의 경우, 어촌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복합적 갈등이 28명, 리더십 부족 7명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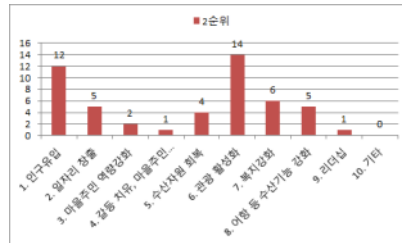
‘귀하의 어촌의 경우, 어촌의 갈등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그렇다 48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즉, 갈등은 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였다.

‘귀하의 어촌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1순위로는 지속적 대화 22명, 조금씩 양보 19명, 규정준수 5명 순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지속적 대화 25명, 조금씩 양보 12명, 리더의 역량 6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대화와 양보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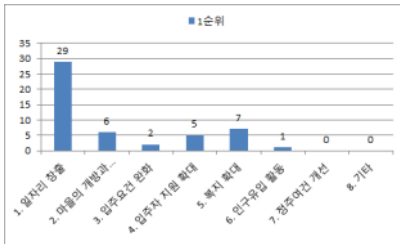
〈그림 2-54〉 어촌 활성화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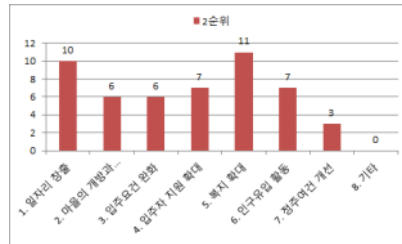
〈그림 2-55〉 어촌 활성화 방안(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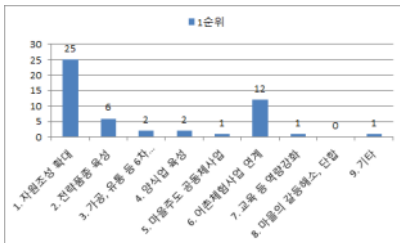
〈그림 2-56〉 인구유입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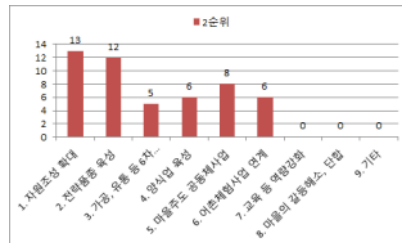
〈그림 2-57〉 인구유입 방안(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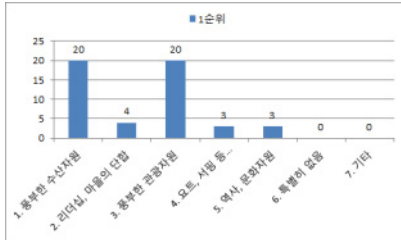
〈그림 2-58〉 수산업 활성화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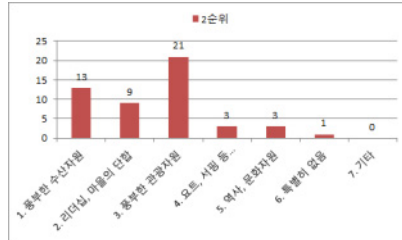
〈그림 2-59〉 수산업 활성화 방안(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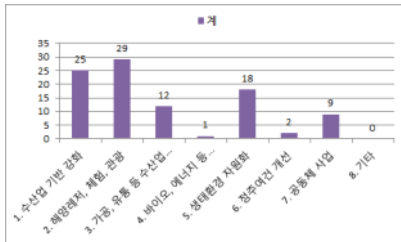
〈그림 2-60〉 어촌 활성화 특화자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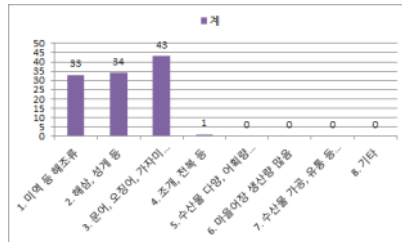
〈그림 2-61〉 어촌 활성화 특화자원(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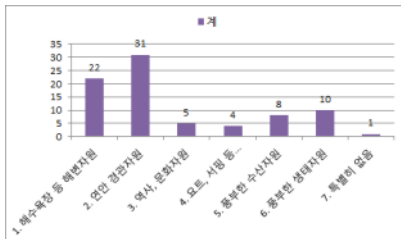
〈그림 2-62〉 어촌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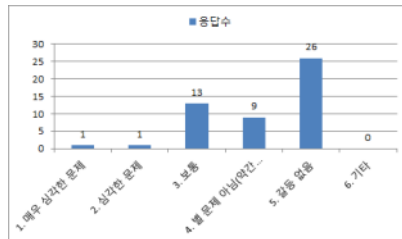
〈그림 2-63〉 수산업 분야의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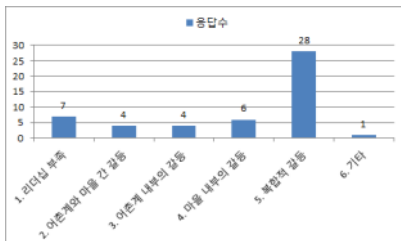
〈그림 2-64〉 관광자원의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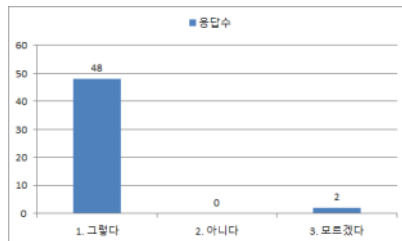
〈그림 2-65〉 마을 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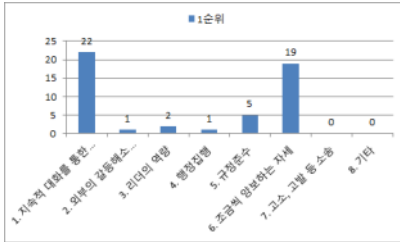
〈그림 2-66〉 마을 갈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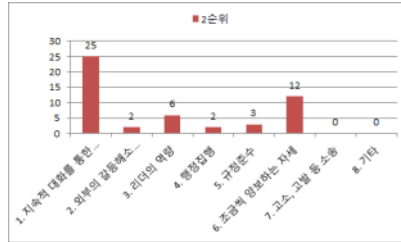
〈그림 2-67〉 마을 갈등의 자체해소 가능 여부



〈그림 2-68〉 마을 갈등 해소방안(1순위)



〈그림 2-69〉 마을 갈등 해소방안(2순위)



기타로 금구도 접안시설, 자원회복, 방파제 보강 등 어항 안전대책 마련, 나잠 입수조건 완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체험사업, 텃세 없애기, 자원육성, 양식사업, 관광객 체류 방안 등이 어촌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라. 종합적 결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는 어촌 자체적인 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특화자원으로는 수산자원, 관광자원으로 응답했고, 수산자원으로는 문어, 해조류, 성게 등을 꼽았다. 문어자원은 저도어장 입어 등으로 생산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게자원은 과거 풍부했으나 현재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성게보다 문어자원을 우선적으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수산기반 강화, 경관자원 활용 관광자원화로 금구도의 활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도어촌의 주민 간 갈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규로 이주한 주민에 대한 텃세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어촌 쇠퇴, 고령화 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활성화 사업화는 우선 고령층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어촌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촌 주민들의 의식개선, 사업화 마인드 함양, 사업화 방안 기획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도어촌은 과거 성계를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문결과(신남어촌)

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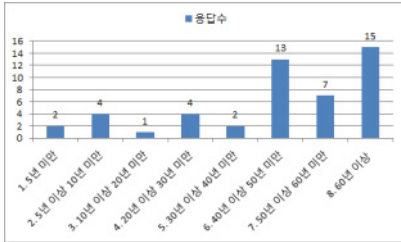
‘귀하는 현재 거주지역에 얼마나 거주하십니까?’에 대해 60년 이상이 15명, 40년 이상 50년 미만이 13명, 50년 이상 60년 미만이 7명 순으로 많았다. 40년 이상은 35명으로 전체의 70%, 50년 이상은 22명으로 44%, 60년 이상은 30%였다. 전체적으로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오랫동안 거주해온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에 대해 60대가 22명, 70대가 17명, 40대가 4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전체의 78%로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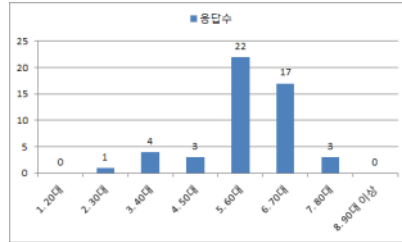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어업이 22명, 무직 및 기타가 12명으로 많았다.

‘귀하는 어떤 어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가정주부, 무직 및 기타를 제외하면 어선어업이 15명, 맨손어업이 5명 순으로 많았다. 어선어업은 전체의 60%(25명 중 1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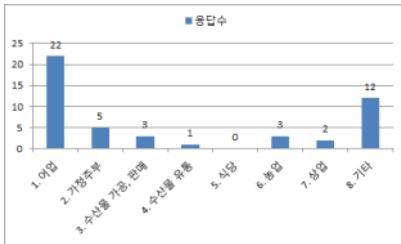
〈그림 2-70〉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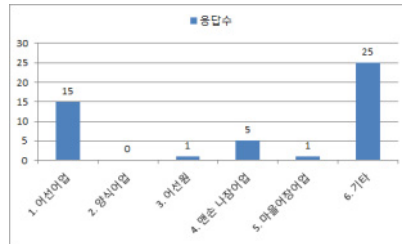
〈그림 2-71〉 연령대



〈그림 2-72〉 직업의 종류



〈그림 2-73〉 어업의 종류



나. 어촌에 대한 인식

‘귀하가 거주하는 어촌은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전체의 96%가 그렇다고 답해, 대부분의 어촌주민들은 어촌마을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1순위로 수산물 생산량 감소 25명, 인구감소 13명, 소득감소 5명 순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소득감소 17명, 인구감소 10명, 고령화 및 수산물 생산량 감소가 각각 9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어촌 쇠퇴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어촌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심각하다 32명, 매우 심각 9명, 보통이 6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의 82%가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수산물 생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감소 28명, 매우 감소 18명 순으로 많았다. 감소 또는 매우 감소가 전체의 92%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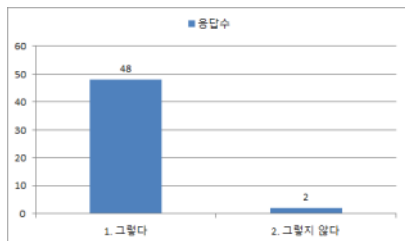
‘어촌의 고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심각 30명, 매우 심각 12명, 보통 8명 순으로 많았다.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이 전체의 84%로 높았다. 이는 인구감소에 대한 질문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을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미미 14명, 심각 11명, 전혀 문제없음 1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갈등이 있다는 응답이 31명으로 전체의 62%로 나타나 신남어촌은 갈등이 존재하고, 심각 또는 매우 심각이 26%로 갈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를 구분하여 60대 이하에서는 심각 또는 매우 심각이 24%, 70대 이상에서는 2%로, 고령자 층과 젊은 층 사이에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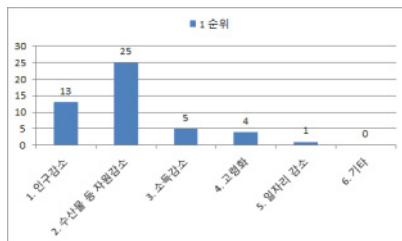
‘귀하의 마을이 향후 소멸될 것이라고 보십니까?’에 대해 그렇지 않다 40명, 그렇다 10명으로 대부분이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귀하의 마을이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2명이 응답했고, 각각 안정적 인구유지, 자원풍부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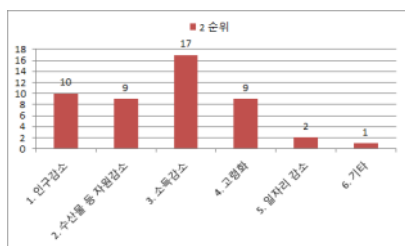
〈그림 2-74〉 여촌마을 쇠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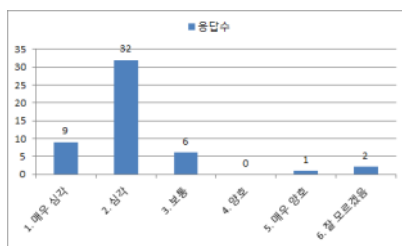
〈그림 2-75〉 쇠퇴의 원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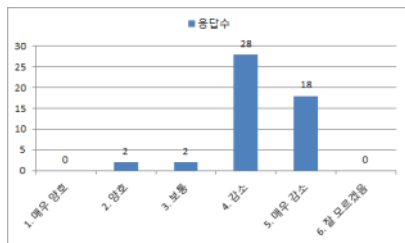
〈그림 2-76〉 쇠퇴의 원인(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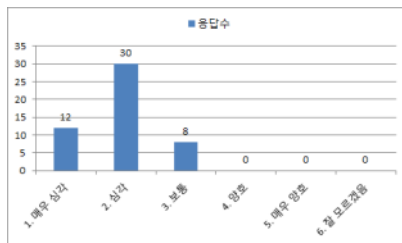
〈그림 2-77〉 여촌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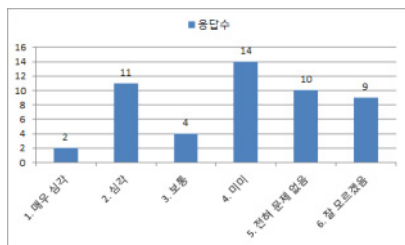
〈그림 2-78〉 수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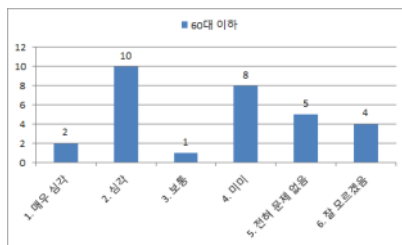
〈그림 2-79〉 고령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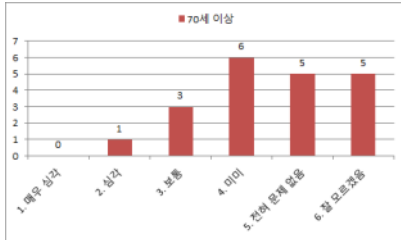
〈그림 2-80〉 마을 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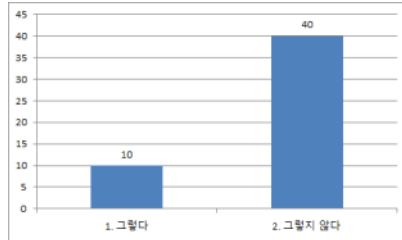
〈그림 2-81〉 여촌 갈등에 대한 인식(60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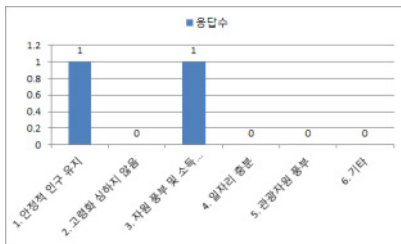
〈그림 2-82〉 어촌 갈등에 대한 인식(70대 이상)



〈그림 2-83〉 마을 소멸에 대한 인식



〈그림 2-84〉 마을의 침체, 쇠퇴에 부정적인 이유



다. 어촌 활성화 방안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1순위로는 수산자원 회복 10명, 인구유입 10명, 갈등 치유 9명 순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마을주민 역량강화 12명, 수산자원 회복 10명 순으로 많았다. 어촌 쇠퇴의 원인을 수산자원 감소로 꼽았듯이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회복이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고,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유입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1순위로는 일자리 창출, 마을의 개방이 각각 19명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일자리 창출 21명, 입주요건 완화 11명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마을의 개방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는 마을 자체의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1순위로는 자원조성 확대 14명, 마을의 갈등해소 9명, 공동체 사업 7명, 어촌체험사업 7명 순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자원 조성 확대 10명, 6차산업화 9명, 양식업 육성 8명 순으로 많았다.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조성 확대, 갈등 해소, 6차산업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이 수산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특화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한 1순위로는 풍부한 수산자원 22명, 레저자원 11명으로 많았다. 2순위로는 리더십, 마을의 단합 14명, 풍부한 수산자원 13명, 풍부한 관광자원 1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수산자원, 관광자원, 레저자원의 특화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단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복수선택 가능한 응답으로 해양레저, 체험, 관광사업 29명, 수산업 기반 강화 14명, 6차산업화 11명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촌 내에서 자체적인 사업화 추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귀하의 어촌에 수산업 분야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한 복수선택 가능한 응답으로 미역 등 해조류 자원 37명, 문어, 오징어, 가자미 등 자원 20명, 해삼, 성게 등 자원 19명으로 많았다. 신남마을은 미역 등 해조류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많은 주민이 인식하고 있고, 문어, 오징어, 가자미, 해삼, 성게 등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결과였다.

‘귀하의 어촌 관광자원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한 복수 선택 가능한 응답으로 특별히 없음 18명, 연안 경관자원 14명, 해수욕장 등 해변자원 10명 순으로 많았다. 연안 경관자원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신남어촌의 기존 관광자원인 해신당공원, 남근조각공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별문제 아님 15명, 갈등없음 13명, 심각한 문제 11명이었다. 별문제 아니거나 갈등이 없다는 응답이 28명으로 과반이었지만 갈등이 있거나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도 20명으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고, 전체의 26%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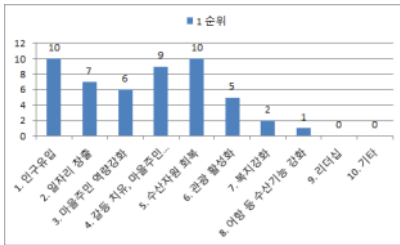
‘귀하의 어촌의 경우, 어촌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복합적 갈등 16명, 어촌계와 마을 간 갈등 12명, 리더십 부족 12명으로 어촌계와 마을 간 갈등이 주요한 것으로 보이고, 복합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60대 이하는 복합적 갈등 11명, 어촌계와 마을 간의 갈등 8명, 리더십 부족 5명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리더십 부족 7명, 복합적 갈등 5명, 어촌계와 마을 간의 갈등 4명이었다. 고령층은 리더십 부족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60대 이하에서는 복합적 갈등이나 어촌계와 마을 간의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면서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의 어촌의 경우, 어촌의 갈등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모르겠다 24명, 아니다 19명이었다. 그렇다는 14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60대 이하에서는 아니다 14명, 모르겠다 12명, 70대 이상에서는 모르겠다 12명, 아니다 5명이었다. 젊은 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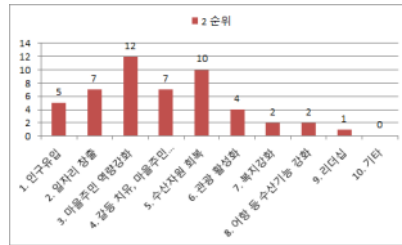
는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고, 고령층에서는 판단 유보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였다.

‘귀하의 어촌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 24명, 지속적 대화 13명, 외부의 조정 6명 순으로 많았고, 2순위로는 지속적 대화 20명, 외부의 조정 17명으로 많았다. 1, 2순의 모두 행정집행, 소송 등은 적었다. 결과적으로 갈등 자체해소 관련 설문에서 자체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갈등해소 방안 관련 설문에서는 양보, 대화 등 순리적인 응답이 많았다. 결국, 아직까지는 양보, 대화 등의 기회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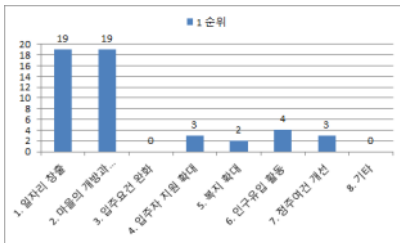
〈그림 2-85〉 어촌 활성화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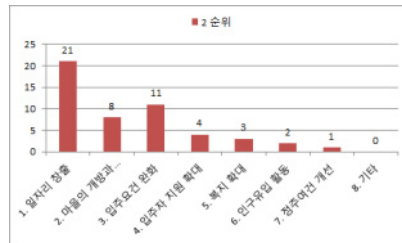
〈그림 2-86〉 어촌 활성화 방안(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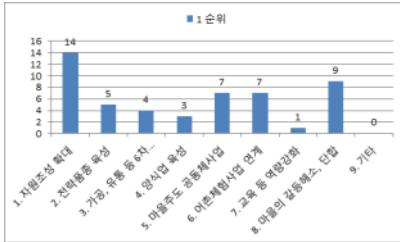
〈그림 2-87〉 인구유입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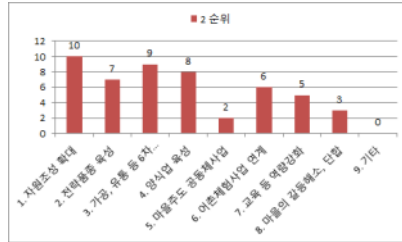
〈그림 2-88〉 인구유입 방안(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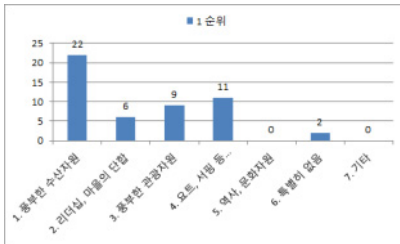
〈그림 2-89〉 수산업 활성화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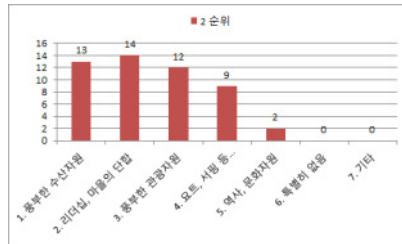
〈그림 2-90〉 수산업 활성화 방안(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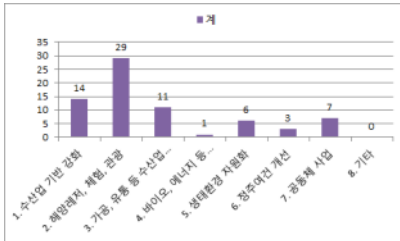
〈그림 2-91〉 어촌 특화자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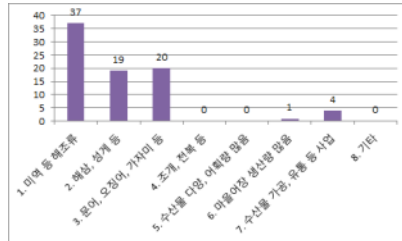
〈그림 2-92〉 어촌 특화자원(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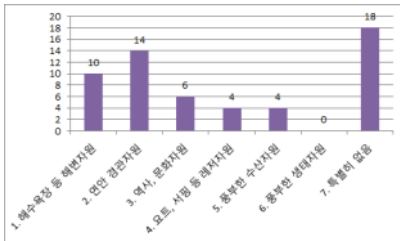
〈그림 2-93〉 어촌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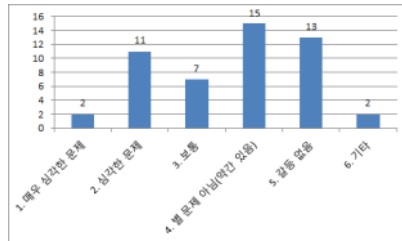
〈그림 2-94〉 수산업 분야의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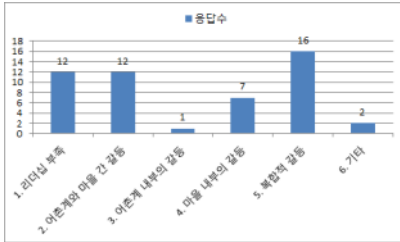
〈그림 2-95〉 관광자원의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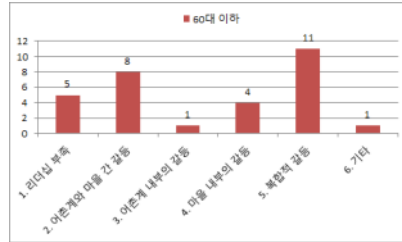
〈그림 2-96〉 마을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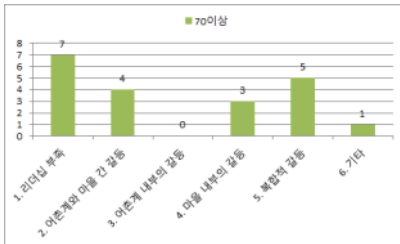
〈그림 2-97〉 마을 갈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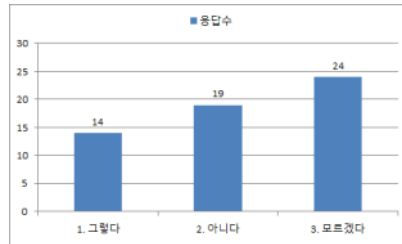
〈그림 2-98〉 마을 갈등의 원인(60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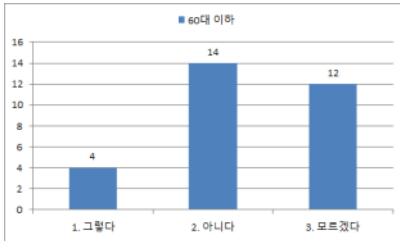
〈그림 2-99〉 마을 갈등의 원인(7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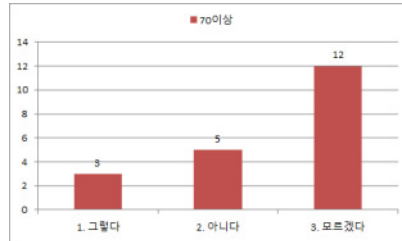
〈그림 2-100〉 마을 갈등의 자체해소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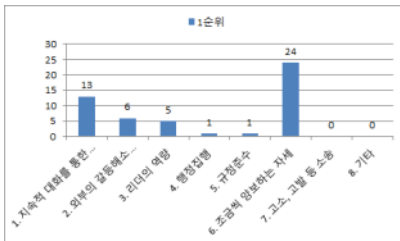
〈그림 2-101〉 갈등의 자체해소 가능 여부(60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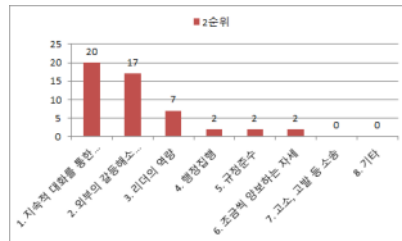
〈그림 2-102〉 갈등의 자체해소 가능 여부(70대 이상)



〈그림 2-103〉 갈등해소 방안(1순위)



〈그림 2-104〉 갈등해소 방안(2순위)



기타 제안사항으로는 동질감 회복, 역량강화, 어항 준설, 주민 화합 등을 시급한 과제로, 공동체사업, 관광자원화, 화합, 자원육성, 인구유입 등을 어촌 활성화 과제로 제시하였다.

라. 종합결과

전체적으로 어촌은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촌의 침체 원인으로는 수산자원 감소, 소득감소를 꼽은 것으로 보아 수산물 생산량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어촌의 주요 자원은 해조류, 문어, 해삼 등 수산자원, 해변, 경관 등 관광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 수산자원 회복, 어촌의 개방 등이 중요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특화자원으로는 풍부한 수산자원, 경관자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수산자원을 이용한 6차산업화 및 공동체 사업, 수산기반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신남어촌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외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주민 간 갈등해소를 추진하면서 어촌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의 화합, 인식 개선, 사업화 마인드 함양 등이 필요하고, 지역의 수산자원, 경관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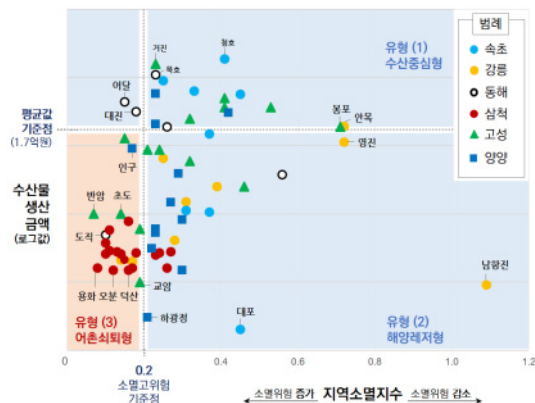
제 3 장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 구상

제1절 어촌 활성화 유형 검토

1차년도 연구에서 어촌의 소멸지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어촌을 ‘수산물 중심형’, ‘해양레저형’, ‘어촌쇠퇴형’으로 구분하였다¹⁷⁾.

〈그림 3-1〉 강원도 시군 어촌의 유형별 분류



17) 박상우 외(2018), p. 115

1. 수산 중심형 마을

수산 중심형 마을은 어촌 소멸지수는 0.2 이상이고 수산물 생산금액은 평균 이상인 마을로, 고성군 거진, 봉포, 속초시 청호, 강릉시 안목, 동해시 묵호 등의 어촌마을이 해당된다. 이 지역은 시내권과 가까이 위치하면서 인구가 많아 어촌 소멸지수는 0.2 이상이고 수산업이 발달하여 수산물 생산고도 높은 마을이다. 어촌 분류 기준에 따르면 임원, 정라, 장호1리는 수산 중심형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국가어항이 있고 배후에 시내지역이 있어 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어선세력이 크고, 위판기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 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3-1〉 수산 중심형으로 분류된 어촌

시군(20개 마을)	어촌	어촌소멸지수	고령화지수
고성군(6개 마을)	봉포	0.71	27.0
	천진	0.41	19.8
	가진	0.41	20.7
	오호	0.53	27.6
	거진	0.23	30.0
	공현진	0.32	26.3
속초시(4개 마을)	청호	0.41	23.9
	동명	0.45	21.5
	금호	0.33	23.4
	교동	0.25	20.0
양양군(3개 마을)	기사문	0.42	22.3
	동산	0.23	30.5
	광진	0.23	31.8
동해시(3개 마을)	어달	0.15	37.9
	대진	0.18	31.6
	묵호	0.23	32.3
강릉시(1개 마을)	안목	0.72	15.3
삼척시(3개 마을)	임원	0.16	33.5
	정라	0.11	38.7
	장호1리	0.24	28.3

자료: 김충재·김주원(2018), p. 25-33

2. 해양레저형 마을

해양레저형은 시내권과 가까이 위치하면서 인구가 비교적 많으나 수산업의 발달은 수산 중심형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다. 대상은 강릉 남항진, 영진, 속초 대포, 양양 하광정, 삼척 호산, 후진, 비화, 장호1리, 동해 천곡 등으로 수산업 중심보다는 레저, 관광 등을 중심으로 어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이다.

〈표 3-2〉 해양레저 중심형으로 분류된 어촌

시군(26개 마을)	어촌	어촌소멸지수	고령화지수
양양군(7개 마을)	남애1리	0.30	28.0
	물치	0.30	26.2
	수산	0.29	26.5
	낙산	0.27	25.8
	남애2리	0.23	33.1
	오산	0.23	28.2
	하광정	0.21	30.5
고성군(5개 마을)	청간	0.46	20.6
	동호	0.21	29.5
	아야진	0.23	12.9
	문암2리	0.32	31.2
	대진	0.21	32.5
삼척시(4개 마을)	장호1리	0.24	28.3
	호산	0.24	29.6
	후진	0.27	25.1
	비화	0.23	26.5
강릉시(5개 마을)	남항진	1.01	10.2
	영진	0.72	15.1
	사천진리	0.39	24.0
	사근진	0.31	28.4
	안인	0.33	24.6
속초시(4개 마을)	물치	0.45	20.5
	장사	0.37	21.7
	내물치	0.37	28.5
	외웅치	0.31	26.7
동해시(2개 마을)	천곡	0.56	17.5
	추암	0.26	24.8

자료: 김충재·김주원(2018), p. 25-33

3. 쇠퇴형 마을

어촌 쇠퇴형은 어촌 소멸지수가 0.2 미만으로 낮고, 수산물 생산고도 높지 않다. 시내권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인구도 적은 마을로 쇠퇴가 심화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삼척용화, 오분, 덕산, 강릉 도직, 고성 반암, 초도, 교암, 동호, 문암1리 등의 마을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임원, 장호1리, 정라 등은 수산 중심형이지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촌 쇠퇴형에도 포함되었다.

〈표 3-3〉 쇠퇴형으로 분류된 어촌

시군(20개 마을)	어촌	어촌소멸지수	고령화지수
삼척시(14개 마을)	갈남	0.11	43.1
	광진	0.15	29.6
	궁촌	0.13	36.9
	노곡	0.10	49.2
	대진	0.10	42.0
	덕산	0.16	38.5
	신남	0.11	43.1
	오분	0.12	35.9
	용화	0.08	38.7
	임원	0.16	33.5
	장호2리	0.18	30.8
	정라	0.11	38.6
	증산	0.17	36.4
	초곡	0.14	44.0
고성군(5개 마을)	반암	0.07	27.0
	초도	0.14	17.8
	교암	0.19	33.2
	동호	0.15	29.5
	문암1리	0.15	33.2
강릉시(1개 마을)	도직	0.10	35.4

자료: 김충재·김주원(2018), p. 25-33

제2절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 마을 선정

1.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 유형 및 개수

수산 중심형은 대체로 어촌의 인구가 많고 어선세력이나 수산물 위판 실적도 양호한 편이다. 해양레저 중심형은 수산기능에 더하여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서핑 등의 해양레저 활성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은 이미 여러 지원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자력으로 어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으로 어촌 쇠퇴형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어촌을 대상으로 2곳을 선정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 선정

어촌 쇠퇴형 중에서 발전사업 등으로 인해 삼척의 노곡이나 대진과 같이 어업수역이 수용되거나 보상으로 어업인이 대거 이주하여 수산업 기반이 미약해진 곳은 제외하였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어촌, 기존에 여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 마을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어항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은 대부분이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반대로 어촌소멸지수가 낮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중에서도 어촌계원이 적어 어촌 활성화를 추진할 인력이 없는 어촌도 제외하였다.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마을 선정 기준으로는 어촌에 특화할 수 있는 수산자원, 관광자원, 문화자원, 레저자원, 산림자원 등이 있고, 어촌계

는 20명 이상으로 안정적 유지기반을 갖추고 어촌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어촌 활성화 모델화를 위한 대상 마을 선정 세부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쇠퇴형으로 분류된 2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해 분석한 결과 삼척시의 신남어촌과 고성군의 초도어촌을 선정하였다.

〈표 3-4〉 쇠퇴형으로 분류된 어촌의 특징

시군 (20개)	어촌	어촌소멸지수, 고령화지수	어촌계원	특징
삼척시 (14개)	갈남	0.11, 43.1	49	농산어촌개발사업 진행
	광진	0.15, 29.6	11	후진항과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궁촌	0.13, 36.9	34	국가어항
	노곡	0.10, 49.2	20	발전단지, 어장축소
	대진	0.10, 42.0	55	전원개발구역지정
	덕산	0.16, 38.5	38	국가어항
	신남	0.11, 43.1	27	지방어항, 관광자원 풍부(해신당, 남근조각공원, 어촌민속전시관 등)
	오분	0.12, 35.9	26	자원부족
	용화	0.08, 38.7	20	어업기능미약, 레일바이크 등. 펜션단지
	임원	0.16, 33.5	116	국가어항
	장호2리	0.18, 30.8	26	펜션단지 많음. 어항 없음
	정라	0.11, 38.6	115	국가항만
	증산	0.17, 36.4	11	어촌계원수 적음
	초곡	0.14, 44.0	28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고성군 (5개)	반암	0.07, 27.0	40	어촌뉴딜 300사업 진행
	초도	0.14, 34.7	50	어촌정주어항, 성계자원
	교암	0.19, 33.2	39	지방어항, 천학정 등 자원 있음
	동호	0.15, 29.5	16	어항 없음
	문암1리	0.15, 33.2	48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강릉시 (1개)	도직	0.10, 35.4	17	소규모(항포구), 어촌계원수 적음

자료: 김충재·김주원(2018), p. 25-33 자료 참고

제3절 어촌 활성화 추진 방향

1. 고성군 초도어촌

1) 어촌 활성화 컨셉

초도어촌은 과거 금강산 관광이 진행될 당시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계를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사업으로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관광이 중단된 이후 관광객 감소로 중단한 바 있다. 그 당시 마을에서는 금구도 자원화, 성계비빔밥 등으로 성공적인 체험마을사업을 진행했으나 소득창출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원인은 관광 소구력, 집객력이 약하고, 성계자원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초도어촌은 성계마을로 알려져 있어 성계에 대한 이미지는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촌 활성화는 성계, 문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되 가공품을 제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계와 문어를 가공품화하여 특화하고, 금구도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한다면 제품화와 관광객 집객으로 일자리,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초도어촌 활성화 방향

구분	내용	시사점
외부 시각	청정환경, 해안관광	청정성 부각, 환경의 관광자원화
내부 시각	청정한 수산자원, 우수한 생태경관자원	저부가가치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금구도 자원화
전문가 시각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제품화 선점	금구도 관광자원 연계 금구도 브랜드화 (광개토대왕 스토리텔링 강화) 광개토대왕, 대왕문어 연계 브랜드화
요약	문어, 성게 등 가공품 제조, 금구도 등 관광자원화 연계	

자료 : 저자 작성

2)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고성군 초도에서는 미역, 다시마, 성게, 홍합, 문어 등을 비롯해 어선어업에 의한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성게는 어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성게 자원이 지속 감소하면서 상품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주민들은 문어자원이 풍부하고 저도어장 입어시기에는 가격이 하락하여 제값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어자원의 가공품화가 유망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동해안 문어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인식도 좋기 때문에 문어를 가공품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문어는 그동안 숙회(삶은 문어를 식용)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숙회를 포함하여 건문어, 초절임 등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가공품화한다면 일자리,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어 가공품화를 필두로 향후 성게, 홍합, 미역 등 지역의 자원을 가공품화한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서 인구유입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3) 어촌역량강화

초도어촌은 고령화율이 고성군에서는 반암어촌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고령자가 많고, 오랫동안 거주해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은 필수적이다. 어촌역량강화교육은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도어촌은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어촌역량강화교육 과정에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기획, 시제품 생산 등을 진행한다면 향후 어촌 공동체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어촌 6차산업화

지역의 수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품의 생산, 판매, 유통 등으로 연계하는 것은 6차산업화의 전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5) 금구도의 관광자원화

어촌마을에서는 식당운영, 가공품 생산과 주변의 해변 등 경관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초도어촌은 광개토대왕릉이 있다고 하는 금구도를 브랜드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광선이나 구름다리 등으로 어항과 금구도를 연계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경관 개선

초도어항은 어촌정주어항이지만 기반시설은 우수한 편이다. 다만 많은 시설, 물건들로 채워지면서 공간이 협소해지고, 정리가 되지 않

은 상태이다. 어구보관함, 위판장, 기타 컨테이너시설 등을 잘 정비하여 가공품 생산의 거점으로서 어항의 경관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2. 삼척시 신남어촌

1) 어촌 활성화 컨셉

신남어촌은 원덕권역에서는 관광거점화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 초기에는 갈등해소, 공동체사업 등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관광거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어촌은 해신당공원, 남근조각공원, 자연생태공원이 집적되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타 어촌에 비해 소득창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자생하는 미역뿐만 아니라 밀려오는 미역(절방미역) 등 미역자원이 풍부하다. 최근에는 해삼종묘배양장이 위치하면서 매년 해삼종묘를 방류하여 해삼자원도 풍부하다. 수산자원은 풍부하고 특화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을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점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갈등의 문제는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고령자가 많고, 외부로부터 유입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고 마을 거주민들의 기득권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젊은 어촌계장, 마을이장이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마을 자체적으로 갈등의 문제(위판장, 난전 등)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김충재·조근식(2019), p 101.

따라서 신남어촌의 어촌 활성화 방향은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품 개발, 맞춤형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경관자원화, 해삼자원의 특화, 레저 등으로 확대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갈등해소를 위한 어촌역량강화교육과 자체적인 대화와 토론이다. 향후에는 해삼자원을 특화하면서 휴양관광거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3-6〉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신남어촌 활성화 방향

구분	내용	시사점
외부 시각	청정환경, 해안관광	청정성 부각, 환경의 관광자원화
내부 시각	청정한 수산자원, 우수한 생태경관자원, 갈등 해소, 공동체 사업	갈등해소 조정, 저부가가치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경관 자원화
전문가 시각	갈등 해소, 지역 자원 특화, 관광객 활용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역량강화, 미역, 해삼 등 지역 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객 대상 맞춤형 제품 개발
요약	역량강화 통한 갈등해소, 공동체 사업 구상, 관광객 대상 맞춤형 제품화. 장기적으로 건강휴양관광거점화 추진	

자료 : 저자 작성

2) 갈등 해소와 역량강화교육

현재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역량강화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므로 내부의 갈등은 스스로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마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대화, 토론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출해야 한다.

갈등의 근본적 문제는 리더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촌계 규정

을 어기는 질서파괴에 대해 방치한 것이 오늘날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무질서의 원인으로 보인다. 회센터에 대한 무상사용과 개인 주거공간화, 건어물센터의 미활용과 무단 난전설치 등에 대해서는 어촌계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체사업 추진

신남어촌의 많은 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사업과 같은 공동체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공동체사업 추진이 갈등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고령화,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희망대로 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단합된 조직으로 소득창출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공동체사업을 위해서는 공동체구성을 통해 사업구상부터 해야 된다. 외부에서의 시각으로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이 수십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품화, 관광지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마을제품의 소비시장을 창출하여 소득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4)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신남어촌을 포함하여 삼척 해변은 암초가 많아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풍부하다. 신남어촌의 경우에도 봄에는 자연산 미역뿐만 아니라 파도에 떠밀려나온 미역이 많아 미역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미역은 보통 건조시켜서 판매한다. 동해안은 문어, 가자미,

도루묵, 양미리, 오징어 등 수산물이 풍부하다. 신남어촌은 마을에 해삼종묘배양장이 있어 해마다 연안에 종묘를 방류하면서 해삼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삼을 특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신남어촌은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민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어물 구이를 주로 판매한다. 이는 난전의 형태로 어항의 육역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어촌계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도루묵, 가자미, 양미리 등 생선을 건조하여 연탄불에 구워서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제품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개별적인 상행위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건어물을 제품화하고 브랜드화하여 신남어촌 지역의 홍보, 건어물 홍보 등으로 파급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즉, 구이용 건어물도 상품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삼은 생산량을 확보하여 신남의 특화상품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해삼을 연계하여 건강휴양관광지 조성을 핵심 이미지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인구유입 전략

신남어촌은 최근 고령인구의 감소(사망으로 추정)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72명에서 2017년 167명으로 5명 감소하였고, 이 중에는 고령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어촌계장에 의하면 빈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빈집을 수선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임대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 상태로는 외부로부터 입주하고자 하여도 주거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변 임야를 활용하여 주거, 상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거, 상업시설 공간은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탈리아의 카프리섬과 같이 관

광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6) 관광거점화

앞서 서술하였듯이 신남은 원덕권역에서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남쪽의 임원항, 북쪽의 장호항이 인접해 있고, 어업인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산기능은 약하지만, 관광자원이 집적화되어 있어 관광기반을 강화한다면 관광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항은 어선이 적기 때문에 유희공간이 있으므로 낚시보트, 요트 등의 계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안의 암초, 기암괴석 등의 경관을 자원화하기 위한 걷기 길 데크를 조성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관광객 집객에도 유리할 것이다. 배후의 임야는 주거지로 개발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펜션 등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육역에는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한 마을식당, 커피숍 등이 필요하다. 해삼을 주제로 한 건강식사, 가공품, 전시관, 체험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여 건강휴양관광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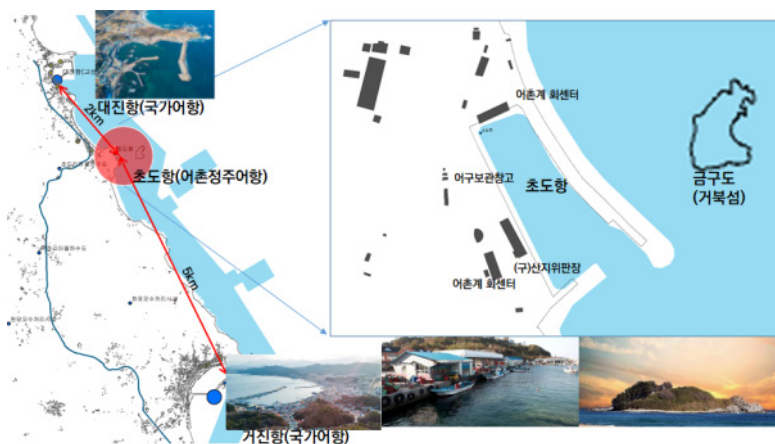
제4절 어촌 활성화 모델사업화 방안

1. 고성군 초도어촌 활성화 방안

1) 초도어촌 현황 및 진단

고성군 초도어촌은 동해 최북단 국가어항인 대진항과 거진항 사이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어촌으로 화진포, 통일전망대, 금구도 등이 있다. 초도어촌은 어촌정주어항인 초도항을 기반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초도1리와 초도2리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 초도어촌 어촌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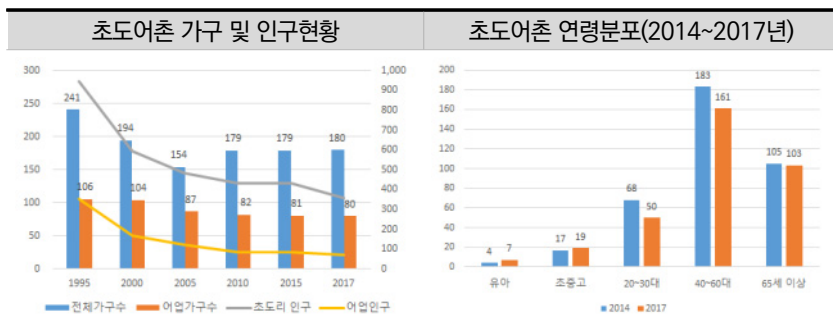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 인구 및 여촌계 현황

초도어촌은 1995년 241가구에서 2017년 180가구로 약 30% 감소하였고, 어가수는 1995년 106가구에서 2017년 80가구로 약 25% 감소하였다. 인구는 1995년 945명에서 2017년 360명으로 약 163% 감소하였고, 어업인구는 1995년 353명에서 2017년 80명으로 약 300% 감소하였다. 평균가구원수는 1995년 3.9명에서 2017년 2명으로 줄었고, 어업가구는 3.3명에서 0.9명으로 감소하였다.

초도어촌의 연령분포를 보면, 연령은 40세 이상~60세 미만이 161명, 65세 이상이 103명, 20세 이상~30세 미만이 50명, 초중고 학생이 19명 미취학 아동이 7명인 순으로 나타나 28.6%의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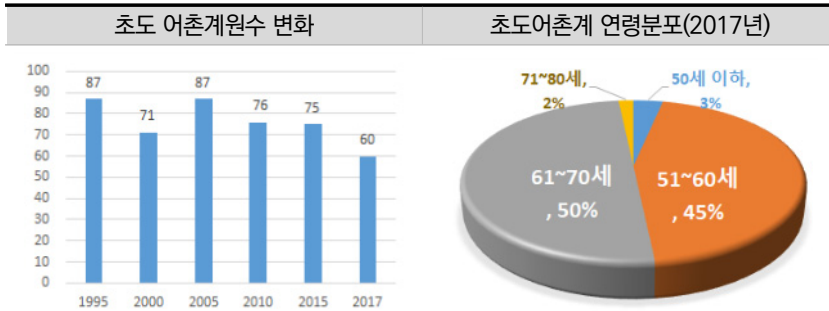
〈그림 3-3〉 초도어촌 인구현황(1995~2017)



자료: 수협중앙회, 여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연도(1995~2017)

초도어촌의 어촌계원은 1995년 87명에서 2017년 6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어촌계원 연령분포는 61세 이상 어업인이 52%를 차지하고, 51~60세 이하 어업인이 45%, 50세 이하 어업인 3%로 초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 초도어촌 어촌계 현황(199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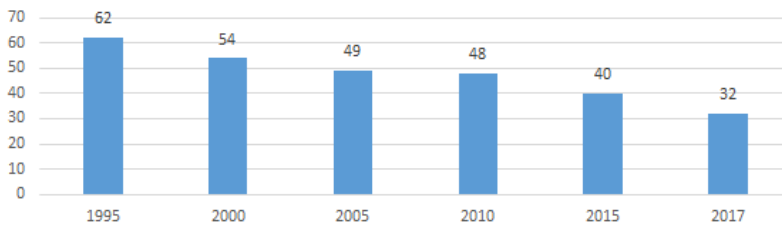


자료: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연도(1995~2017)

(2) 수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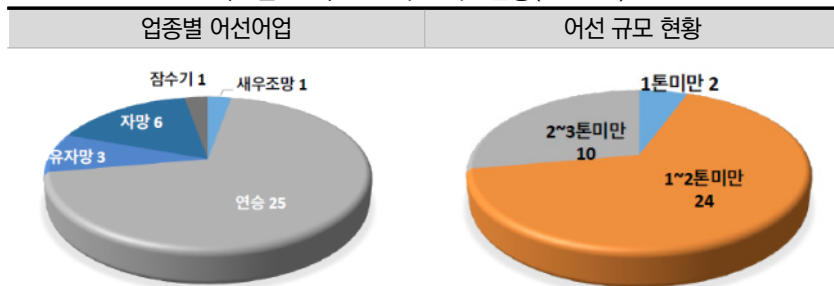
초도항의 어선수는 1995년 62척에서 2017년 32척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연승어업은 25척, 자망어업은 6척, 유자망어업은 3척, 잠수기어업은 1척, 새우조망어업은 1척으로 나타났다. 톤수별로 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은 2척, 1~2톤 미만의 어선은 24척, 2~3톤 미만의 어선은 10척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초도어촌 어선척수(1995~2017)



자료: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연도(199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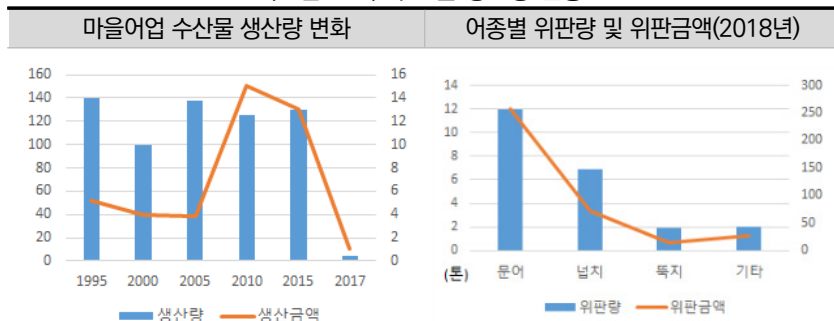
〈그림 3-6〉 초도어촌 어선현황(2018년)



자료: 해양경찰청, 어선출입항 신고 내부자료, 2018

초도어촌 마을어장의 주요자원은 성게, 미역 등이며, 1995년까지 수산물생산량은 140톤이고, 2017년 4톤까지 급감하였다. 1995년 생산금액은 5억 2천만 원에서 2010년 15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 1억 원으로 하락하였다. 어선어업 품종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을 보면, 2018년 총 22.8톤을 수협에 위판하였고, 위판금액은 3억 7천 1백만 원이다. 문어의 생산량은 12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가 6.9톤, 뚝지가 1.9톤, 기타어류가 2톤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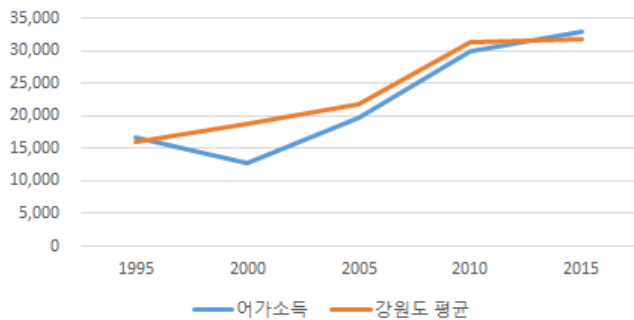
〈그림 3-7〉 수산물 생산량 현황



자료: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연도(1995~2017); 수협중앙회 수산물위판현황(2018)

어가소득을 보면, 1995년 초도어촌과 강원도 어촌 평균소득은 1천 6백만 원 수준으로 비슷하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초도어촌은 강원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5년부터 초도어촌은 강원도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3천 3백만 원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림 3-8〉 초도어촌 어가소득(199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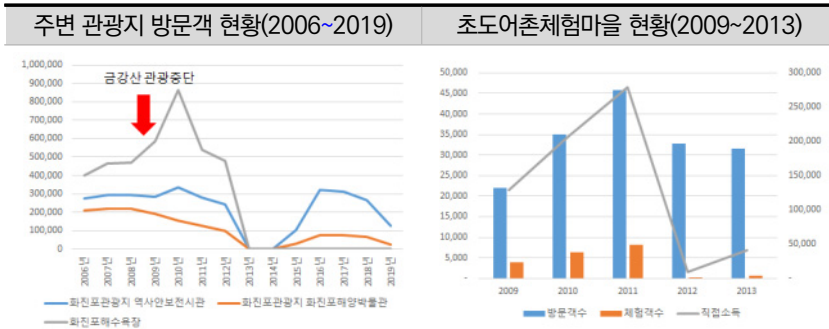


자료: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연도(1995~2017)

(3) 관광 현황

초도어촌은 마을주변으로 화진포관광지 및 화진포 해수욕장이 입지해 있다. 화진포관광지의 관광객 수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8년에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초도어촌체험마을은 2009년 2만 2천 명이 방문하였고, 2014년 체험마을 중단까지 3만 1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초도어촌은 방문객은 많으나, 직접적인 소득원인 체험관광객은 2009년부터 방문객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부터 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여건변화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도어촌은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 이후 어촌 방문객도 급속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9〉 초도어촌 인근 방문객 현황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각 연도(2006~2019)」
(검색일: 2019. 12. 16); 한국어촌어항공단 내부자료, 각 연도(2009~2013)

(4) 초도어촌 진단

고성군 초도어촌의 문제점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도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하다. 초도어촌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었고, 현재 인구가 1/3수준으로 줄었고,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어촌계에서 50대 이상의 어업인은 97%로 향후 10년 후에 어촌계의 어업인력은 고령인구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마을어장의 주요자원은 미역, 성게 등이 있으나 생산량 급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995년에 미역 및 성게의 생산량이 140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4톤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 따라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초도어촌의 주요자원인 성게, 문어 등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초도어촌은 성게, 문어 등을 생물로 판매하고 있는데, 성게, 문어 등은 선도에 따라 그 가격의 변동이 크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시기에 과도한 생산으로 인하여 그 가격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계는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은 생산량이라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가격을 높여 소득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도어촌은 주요 관광자원으로 체험마을을 다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초도어촌은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였지만, 방문객의 급감 및 사업운영에 대한 역량 등의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을 재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0〉 초도어촌 문제점 진단



자료: 저자 작성

(5) 방향성 설정

초도어촌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신상품 및 지역브랜드를 만들고, 판로를 확대하여 소득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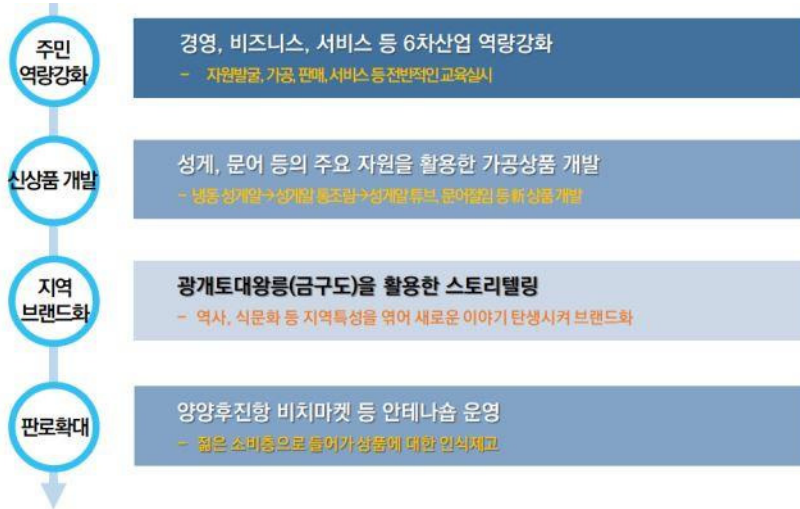
첫째, 초도어촌은 주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지역경제 및 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경영마인드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가공, 판매, 서비스 등의 6차산업화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초도어촌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다. 과거 초도어촌은 성게와 미역을 주로 생물로 판매하였고, 이러한 판매방식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성게, 문어 등의 주요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한철에 생산되는 성게 등을 급속냉동시켜 통조림, 성게알 튜브를 만들어 판매하고, 사계절 지속적인 자원인 문어 등을 활용하여 문어절임 등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초도어촌은 지역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초도어촌은 역사적으로 광개토대왕릉이라는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역사, 문화, 식문화 등 지역특성을 엮어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초도어촌은 새로운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 초도어촌은 주변에 화진포, 통일전망대, 속초아바이마을, 양양 후진항 비치마켓 등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판로개척은 이러한 좋은 시장여건을 활용하여 안테나숍 등을 운영하여 젊은 소비층에 어필하고 초도어촌의 상품을 어필함으로써 상품의 인식제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1〉 초도어촌 방향성 설정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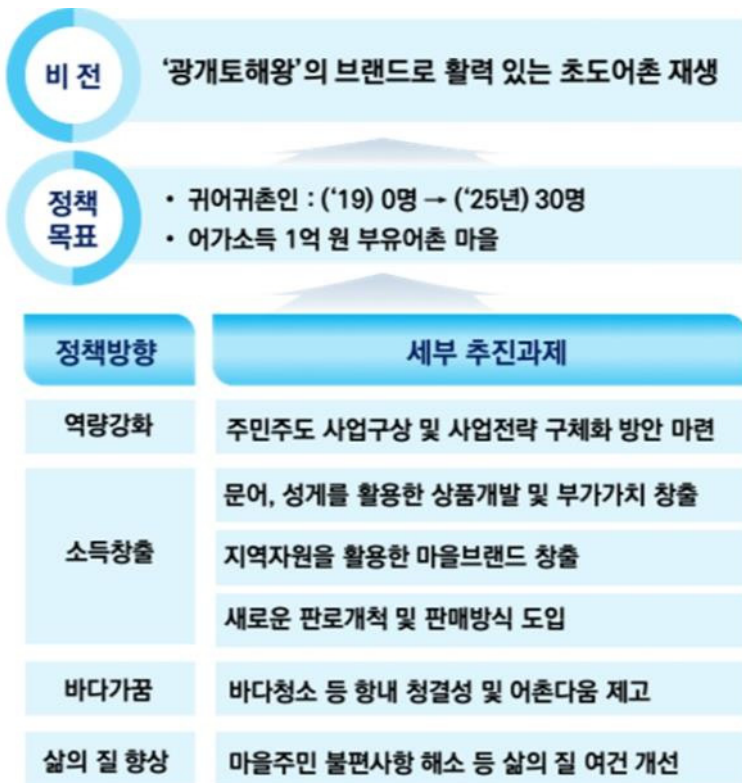
2) 추진전략

고성군 초도어촌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조건불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지역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어 지역소멸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초도어촌은 화진포, 통일전망대 등 집객력 높은 관광자원이 주변에 입지해 있고, 어촌현장포럼에서 초도어촌은 어촌공동체의 내발적인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도어촌은 지역의 주요 수산물과 지역자원을 브랜드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 판매함으로써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력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초도어촌은 ‘광개토해왕’의 브랜드로 활력 있는 어촌재생을 비전으로 삼아 2025년까지 젊은 인력을 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소득을

1억 원 이상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재생을 위한 정책방향의 4가지로, 역량강화, 소득향상, 환경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6가지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세부추진과제는 ① 주민주도의 사업 구상 및 전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 ②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③ 지역고유자원을 통한 마을브랜드 창출, ④ 새로운 판로개척 및 판매방식 도입, ⑤ 바다청소 등 항내 청결성 및 어촌다움 제고, ⑥ 생활SOC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여건개선이다.

〈그림 3-12〉 초도어촌 어촌 활성화 전략



자료: 저자 작성

3) 어촌 활성화 추진 전제 조건

초도어촌은 유무형의 지역자원과 입지적 특성상 유동 관광객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어업활동을 위한 어항이 방문객 동선과 떨어져 있어 찾아오는 관광을 유도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자원을 상품화·브랜드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도어촌은 몇 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초도어촌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에 앞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촌 활성화는 한 개인에 의해서 성공할 수 없다.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할 때 그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 활성화 사업에 앞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한계와 내재된 갈등을 인지하고 주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초도어촌 활성화 사업은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초도어촌은 수산업 침체 및 고령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초도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어업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 양성 및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초도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주도뿐만 아니라 행정, 특화지원센터,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력을 담보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주도의 어촌개발은 전문가와 행정이 직접 지역에 들어가 어촌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고,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과정들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4) 어촌발전 전략의 공론화 과정

초도어촌의 어촌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동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어촌현장포럼을 통해 시작되었다. 다만, 어촌현장포럼은 마을구성원과 초도어촌의 발전가능성을 논의했던 초기단계의 과정에 불과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마을의 역량과 발전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어촌계 등 마을주체가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강원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주도형 어촌개발을 위한 실천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며,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의 일방적인 집체교육보다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초도어촌의 활력화 방안에 대한 예비사업계획을 주민, 행정, 전문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과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선진사례를 어촌주민이 직접볼 수 있도록 방문하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문제점, 이에 대한 마을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5) 세부 추진전략

(1) 역량강화

가. 지역주민 기초역량강화 실시

초도어촌을 포함한 대부분의 어촌은 어촌 활성화를 위해 무슨 자원을 활용하여,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이으며, 인지하였더라도 어떻게 실행해야할지 모른다. 또한, 어촌에 내재한 고령화 등의 한계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참여도도 높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기초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역량강화 사업은 고령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업에서 공동체 형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시키고, 지역주민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인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령자가 많은 초도어촌의 한계와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둘째, 기초역량강화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지역활성화 기초교육은 어촌자원에 대한 이해, 마을이 가진 잠재력 분석,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개발 등의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어촌 활성화사업을 준비한다.

셋째, 어촌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고,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계원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어촌의 리더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 간 역할을 분담한다.

〈그림 3-13〉 기초 어촌역량강화사업 실시



자료: 해양수산부(2013), p. 4

나. 주민주도 사업구상 및 사업전략 구체화 방안 마련

어업인들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구상과 실천과제 마련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만으로 성공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주민주도형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고성군 지역에서 리빙랩 방식의 주민주도 사업구상 마련이 필요하다. 리빙랩 방식의 사업구상은 현장의 문제와 구체적인 솔루션을 어촌주민이 직접 토론하고,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초도어촌이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소득창출

초도어촌의 핵심자원인 성게, 피문어 등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브랜드화(상표, 디자인, 포장 등) 및 판매 전략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가. 초도어촌 상품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

초도어촌을 대표하는 주요자원은 성게와 피문어이다. 성게와 피문어는 저차가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초도어촌은 성게와 피문어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현재 고성군 관내 화진포,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수산자원의 상품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얻어지는 소비자 니즈 결과를 기반으로 수산자원의 가공방식, 크기, 포장, 가격 등을 결정하며, 특히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판매하는 가에 대한 전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표 사례로 유럽 스페인의 갈리시아 어촌은 지역자원인 문어를 가지고 고차가공을 통해 브랜드화하고, 유럽 전역으로 고차가공된 문어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페인은 와인과 맥주에 곁들여 뿔보(Pulpo)라는 문어초절임을 많이 먹는다. 따라서, 이 지역 4~5명의 소규모 여성 어업인은 문어자원을 활용하여 초절임 문어를 만들고, 유통기한을 길게 포장하여 지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갈리시아 지역에서 잡힌 문어라는 지역고유자원을 브랜드화함으로써 문어의 부가가치를 높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도어촌은 피문어를 활용하여 지역소비자의 니즈를 찾고, 지역브랜드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4〉 스페인 갈리시아 문어 초절임 상품화 사례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자: 2018. 10. 24)

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브랜드화

초도마을은 금구도를 중심으로 광개토대왕의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마을브랜드 전략으로 활용하고, 이를 상표등록, 포장디자인 등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초도마을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요소가 필요하다. 수산물을 활용한 브랜드화보다는 지역의 역사성을 근거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명소화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초도마을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강원도 고성군 초도리는 고구려 연대기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는 거북이 모양의 금구도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를 근거로 초도어촌에 스토리를 입혀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도어촌은 좋은 브랜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초도어촌의 브랜드 요소는 광개토대왕, 거북이, 강원도의 섬, 수산물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묶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브랜드 네임은 거북이 모양의 심볼마크로 ‘광개토해

왕’으로 제안한다. 광개토대왕과 수산물, 거북이, 섬 등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네임과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다섯째, 초도어촌은 새로운 브랜드 네임을 활용해야 한다. 초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및 유통 브랜드에 광개토해왕의 브랜드를 적용하고, 직영판매점 및 레스토랑의 명칭을 광개토해왕으로 한다. 또한, 초도 및 화진포의 관광상품으로 광개토해왕 캐릭터 또는 이모티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초도어촌은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브랜드화는 광개토해왕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시작하고, 광개토대왕, 거북이, 섬 컨셉의 심볼마크 등을 개발한다. 그리고 광개토해왕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광개토해왕 관련 상품개발 및 패키지 디자인, 포장지 등을 디자인 한다.

〈표 3-7〉 초도어촌 브랜드화 제안

구분	브랜드화
차별화 요소	• 수산물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명소화 및 차별화
스토리텔링 요소	•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는 구금도(고구려 연대기) • 거북이 모양의 금구도
브랜드링 요소	• 광개토대왕 + 거북이 + 섬
브랜드 네임	• 광개토해왕 - 거북이 모양의 심볼마크 또는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활용 방안	• 생산 및 판매되는 수산물 및 유통 브랜드에 ‘광개토해왕’ 브랜드 적용 • 초도항 내 어촌계 직영 판매 및 레스토랑 명칭에 ‘광개토해왕’ 브랜드 적용 • 관광상품으로 ‘광개토해왕’ 캐릭터 또는 이모티콘 상품 개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방향	• ‘광개토해왕’ 브랜드 디자인 개발 • 광개토대왕+거북이+섬 컨셉의 심볼마크 등 • ‘광개토해왕’ 상표출원 • ‘광개토해왕’ 관련 상품 개발 및 패키지 디자인

자료: 저자 작성

다. 새로운 판로개척 및 판매방식 도입

초도어촌은 유동 관광객을 초도마을로 유입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화진포 관광단지, 통일전망대, 비치마켓 등 주변 집객력이 높은 지역으로 나가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판로개척과 판매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품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개발하고, 개발된 상품은 소비지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사토수산은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적절한 소비지에 판매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1인 가구, 대가족, 선물세트, 이동음식 등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제품을 소비지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림 3-15〉 사토수산 연어상품 판매방식



자료: 사토수산 홈페이지(검색일: 2019. 12. 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초도어촌 청결성 및 어촌다움 제고

초도어촌은 금구도와 주변 어항의 풍경이 뛰어난 반면 항내 어구(자망, 통발) 적재로 인해 쾌적한 어촌환경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관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경관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청정한 해양환경 유지를 통해 생태계를 보존하고 다양한 수산자원 확보 및 어획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결한 이미지를 통해 어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방문객 증가, 체험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며,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통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항과 주변 마을의 청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경관정비 등 어촌다움을 향상시켜 매력성을 높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바다가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어촌의 청결성 및 어촌다움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림 3-16〉 어촌의 청결성 및 어촌다움 제고



자료: 저자 작성

(4) 마을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초도어촌계가 경제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마을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연금제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 내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공동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어업인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왕어촌계는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중왕어촌은 고령화된 어촌주민을 통합하여 역량강화를 시도하였고,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년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감태자원을 가공하는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중왕어촌은 가공공장의 설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소득을 마을에 분배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실현의 사례이다.

〈그림 3-17〉 서산 중왕어촌계의 사회적 가치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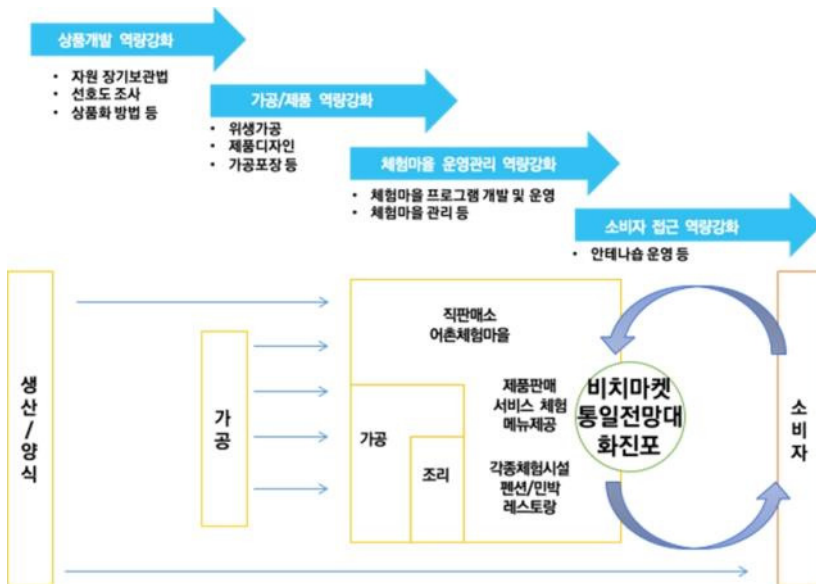
자료: 서산중왕어촌계 내부자료

6) 6차산업화 사업화 및 지원사업 연계 방안

(1) 사업화 방안

초도어촌의 활성화는 단계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초기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초기단계, 사업진행단계, 사업안정화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그림 3-18〉 초도어촌 활성화 사업화 방안(안)



자료: 저자 작성

사업초기 성패는 핵심적인 상품개발을 통한 사업모델 마련 여부에 좌우되며, 사업준비단계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원의 장기보관법, 선호도 조사, 상품화 방법 등을 고려해야한다.

사업초기단계는 전략상품의 가공판매와 관련된 역량강화를 실시하며, 가공상품에 대한 위생, 제품디자인, 가공포장 등을 통해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사업진행단계는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중단했던 어촌체험마을을 재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 등이 필요하다. 역량강화사업은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체험마을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체험마을의 직판매소 서비스, 가공체험 프로그램, 펜션, 음식점 등 각종 주변자원과 연계하여 진행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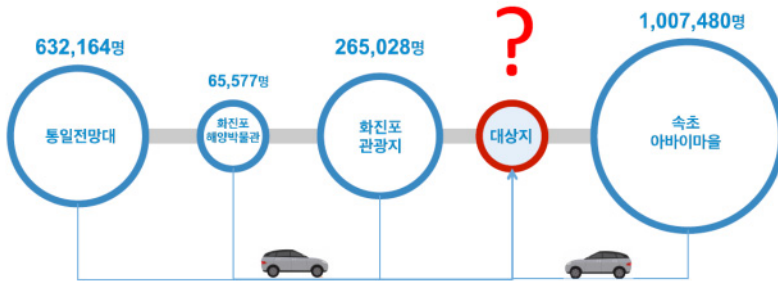
〈그림 3-19〉 초도어촌 사업구상(안)



자료: 저자 작성

사업안정화단계는 생산된 가공상품을 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화진포, 통일전망대, 속초아바이마을, 양양비치마켓 등에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소비자시장을 확대한다.

〈그림 3-20〉 소비시장 확대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안정화된 사업모델로 정착 이후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의 사업모델이 안정화되면 어촌체험을 통한 집객력 강화, 브랜드 파워를 통한 판로 및 판매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다.

(2) 지원사업 연계방안

초도어촌의 정부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지역개발 사업 중 사업목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2021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원규모와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를 통해 100~150억 원 규모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규모와 지원성격을 고려할 때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일반농산어촌개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행정안전부)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한편, 어촌뉴딜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을 유치하여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강원도의 경우 어촌특

화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역량강화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전문가 강의 등 수동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주민주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준비하는 실천적인 과정으로 추진하고, 이를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성군,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림 3-21〉 초도어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삼척시 신남어촌 활성화 방안

1) 추진 전략

중장기적으로 해삼과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건강과 휴양을 키워드로 건강휴양레저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원덕권역의 관광거점화 및 마을공동체로 갈등을 극복한 혁신마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은 관광객 맞춤형 제품 개발, 관광 거점화 기반 확충, 해삼건강 특화마을 조성으로 하였다.

추진방안으로 신남관광공동체 조직화, 관광객 맞춤형 제품화, 경관관광자원화, 해삼특화 사업화, 관광객 체류기반 구축, 레저기반 구축의 6대 전략과 이에 대한 12대 세부전략을 설정하였다.

〈그림 3-22〉 신남어촌 어촌 활성화 전략

비전	건강휴양레저 거점화로 신나는 신남어촌 조성	
목표	▶ 원덕권역 관광거점화 ▶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거듭나는 혁신마을 조성	
추진 방향	▶ 관광객 맞춤형 제품 개발 ▶ 관광 거점화 기반 확충 ▶ 해삼건강 특화마을 조성	
추진 전략	신남관광공동체 조직화	• 어촌마을기업(어촌계+마을주민) 구성 • 관광제품화, 마케팅 사업화 추진
	관광객 맞춤형 제품화	• 건어물 제품화, 브랜드화 • 다품종 소량생산, 소포장, 고품질 안전 제품화
	경관관광자원화	• 어촌마을 둘레길 조성 • 청정한 어촌만들기
	해삼 특화 사업화	• 해삼 생산, 유통의 거점화 • 해삼 식품 등 건강상품화, 해삼박물관 조성
	관광객 체류 기반 구축	• 각종 편의시설, 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확충 • 촬영명소 만들기(신남 산토리니, 신남 카프리스 조성)
	레저기반 구축	• 낚시 보트, 요트 등 계류시설 구축 • 레저객 집객 서비스 구축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 활성화 추진 전제 조건

신남어촌은 마을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갈등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어촌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공동체성의 회복, 인식의 개선, 공동체사업의 필요성 인식 등이 유도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역량강화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교육과정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강화교육은 공동체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 시제품 생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갈등관리 방안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어촌계와 마을주민 간의 건어물 난전과 회센터이다. 난전은 일정 금액을 어촌계에 지불하고 임대하는 형식이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는 문제, 회센터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개인 숙소로 활용하는 등 규정 미준수 문제가 핵심이다. 난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어물을 판매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이므로 극단적인 철거보다는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규정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체사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센터의 경우는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서비스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어항 육역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어항 경관훼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가 지원한 공공시설이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정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체사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별책을 두는 것도 검토할만할 것이다. 다만, 난전, 회센터의 문제는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세부 추진전략

(1) 신남관광공동체 조직화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제품의 판매로 파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관광공동체화(영어조합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를 제안하는 것은 늘 찾아오는 고객이 있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집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구성은 법인으로 하고 어촌계원이나 어업인,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 간사, 총무 등을 선임하고, 공동체 운영을 위한 규칙이나 규정은 구성원의 동의하에 제정한다. 기타 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법을 중용하면 된다.

관광공동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비롯하여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 집객, 제품 판매 확대 등 전반적인 사업 활동을 해야 한다.

(2) 관광객 맞춤형 제품화

신남어촌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건어물을 구워주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루묵, 양미리, 문어, 가자미, 명태, 대구, 오징어, 미역 등 건어물은 작은 단위로 소포장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관광객은 제품을 구입하고 구이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고객 맞춤형은 연령층,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수산물, 가공의 정도, 제품별 양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장류, 주류, 기념품 등은 자체적으로 생산 및 제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통합된 신남어촌의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표 3-8〉 신남어촌 브랜드화 제안

구분	브랜드화
신남어촌의 차별화 요소	수산물보다는 경관 및 관광 특화 브랜드 개발 필요
스토리텔링 요소	‘신남다’라는 ‘신남’을 브랜드화하여 구전효과 기대 주변 관광지 연계 및 향내 레저 상품에 적용
브랜딩 요소	즐겁고 재미있는 어촌관광, 신나는 해양레저
브랜드 네임	신남(SEANNAM)
브랜드 활용 방안	레저, 관광 브랜드에 ‘신남’ 적용 (예시, ‘신남’ 해양레저, ‘신남’ 스쿠버, ‘신남’ 해안트레킹 등 신남어촌의 관광상품으로 ‘신남이’ 캐릭터(또는 이모티콘) 상품 개발 ‘신남 마을축제’ 브랜드로 활용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방향	‘신남(SEANNAM)’ 브랜드 디자인(B.I.) 개발 : 기본형 + 적용형 + 이모티콘(다양한 종류별 해양 레저스포츠 컨셉의 픽토그램형 이모티콘 디자인 개발) - ‘신남(seannam)’ 상표출원 - ‘신남’ 관련 해양레저 상품 개발 및 유니폼 등의 레저용품 디자인 - ‘신남’ 관련 해양레저 굿즈 상품 개발 (추후)

자료: 김인경, (주)인큐브랜드 내부자료.

(3) 경관 관광자원화

신남어촌은 암초, 기암괴석으로 이어져 있어 이러한 경관을 관광 자원화하여 기존의 단조로운 관광에 경관을 연계하여 볼거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쪽으로는 갈남항, 남쪽으로는 임원항까지 해안가 걷기 길 데크를 조성하여 기암괴석의 자연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관을 강릉의 바다부채길, 삼척 초곡의 들레길과 같이 명소화해야 한다. 해신당공원, 남근조각공원과 연계되

도록 조성하고, 중간 중간에 지역 특산물,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한다면 지역민의 소득창출에도 효과적인 것이다.

어항과 어항 육역은 어구, 어망, 컨테이너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므로 청정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돈하고 가급적 앞바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항의 정돈, 정비는 어촌계에서 매월 또는 매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날에는 어업도 중단하고 청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일부 어촌계 사례 참고).

(4) 해삼 특화사업화

해삼 종묘를 지속 방류하고 필요에 따라 해삼섬을 조성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삼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량씩 채취하여 위판, 또는 횃집에 판매하였으나 향후에는 해삼을 신남어촌의 특산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관리에 나서야 한다. 신남어촌에 수족관 등을 시설하여 유통, 판매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동해안 해삼을 대상으로 해삼 박물관(또는 소형 수족관)을 만들고 신남어촌의 해산물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횃집, 식당 등도 필요하다.

(5) 관광객 체류기반 구축

신남어촌에는 건어물 판매점 및 난전, 편의점을 제외하면 편의시설이 없다. 먹거리를 위해 회센터를 건립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커피숍도 있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할 만한 곳이 없는 상태이다. 관광객은 버스를 타고 어항 내에서 내린 후 바로 해신당공원으로 갔다가 되돌아와서 타고 온 버스 부근에

서 건어물 등을 구워먹고 가버린다. 관광지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콘텐츠를 확대하면 체류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마을공동체에서는 사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진찍기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 신남어촌을 촬영 명소로 만들어 집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마을의 모든 건물을 한 가지 색으로 칠한다거나 특이한 벽화를 그린다거나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애바위 전설(해신당공원)의 여주인공을 상징물로 건립하여 사진 명소화하고 이를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제 4 장

강원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1절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필요성

1. 개요

강원 어촌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는 강원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던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원연구원·KMI 시·도 해양수산포럼’에서 발표 및 토론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원 어촌마을은 수산자원이 급감하면서 체감하는 위기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정책에서도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차년도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강원형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1) 지원사업 간 연계성 강화 필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강원도 어촌지원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창업어가 멘토링,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지원, 귀어홈스테이, 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어촌특화지원센터, 수산업 창업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 중에서 지역단위 사업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어촌특화지원센터이다. 이 기관에서는 어촌역량강화사업, 도시민어촌유치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타로 귀어학교 운영, 귀어귀촌지원,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지원 등 어촌 활성화 관련 여러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의 사업들은 예산지원 관련 부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 어촌일자리지원단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각 사업대상지의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기타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추진, 지원되면서 사업 간 연계성이 낮고 정보의 공유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2) 장기적인 어촌 활성화 기획 마련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기획 속에서 각각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나 현재는 개개의 사업들이 별개로 추진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낮은 점이다. 어촌 활성화는 어촌, 어항, 수산업, 인구유입, 정주여건, 복지증진, 일자리 등 종합적으로 추진되면서 권역별 거점화, 지역별 통합 등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어촌뉴딜 300사업과 같이 단순히 공모사업에 대해 준비가 잘 된 지역을 선정한다면 어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3) 사후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향후 사업 종료 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어촌은 사업의 추진보다 지속성 및 자립화를 위한 사후 관리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군에서 지원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부서 이동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4) 유희시설의 증가에 따른 활용성 제고

최근 어촌의 인구감소, 수산업 기능 약화로 위판장을 비롯한 여러 유희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시설의 관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판장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어촌에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수산업 거점역할을 하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 또는 시군별로 통합적 관리를 통해 유희시설의 재활용 등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5) 수산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어촌 활성화는 수산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체계화해야 한다. 어업인 감소,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이르는 과정의 지원을 포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유입은 어촌마을에 대한 측면과 어업인, 수산인의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하고, 어촌으로의 귀어는 대부분이 수산업을 염두에 두는 경우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6) 어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통합적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

따라서 어촌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기획, 중장기적 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세부 사업 또는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해면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지원사업도 총괄 지원 및 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표 4-1〉 강원도 2019년 어촌 활성화 관련 사업과 지원기관

사업명	지원, 관리기관
어촌뉴딜 300사업	해수부, 어촌어항공단, 도시군
창업어가 멘토링	해수부, 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지원	해수부, 도시군
귀어홈스테이 운영	해수부, 도시군
어촌체험 휴양마을 기반시설 확충	도시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수부, 시군
마을단위 특화개발	해수부, 시군
지역역량강화	해수부, 시군
어촌역량강화	어촌특화지원센터(해수부, 도)
수산산업창업지원	수산산업창업지원센터(해수부, 도)
귀어귀촌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해수부, 도)
귀어학교	강릉원주대학(해수부, 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어촌특화지원센터(해수부, 도시군)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강원형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 추진

앞에서 강원도 어촌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업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마을소멸위기에 진입했거나 고위험인 어촌이 전체 어촌의 90%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결국 일자리, 소득, 정주여건 등의 여러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후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 생산한다 하더라도 과거 많이 생산되었을 때의 1/3 수준이다. 수산물 생산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원도 어촌이 특히 낙후되고 있는 것은 어촌 자체적으로 발전 동력을 확보해가지 못한 점도 있겠으나, 현장과 행정의 괴리, 지원정책과 현장 전달의 문제 등도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촌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 현장과 행정의 괴리를 메꿔주는 역할, 정책의 현장전달 역할 등과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새로운 정책의 발굴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치를 제안한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어촌개발지원단’과 유사한 성격이나 보다 종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거버넌스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18개 시군, 해변, 내수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영서지역과 남부지역의 강마을 등과 동해안 지역의 어촌마을 등이고, 지원 대상자로는 내수면의 어업계 및 어업인(수산인), 해수면의 어촌계 및 어업인(수산인) 등이 된다.

2) 어촌, 강마을 구성원

어촌, 강마을의 구성원이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의 지원 대상이지만, 어촌이나 강마을에는 어업을 주로 하는 어업인 이외에 비어업인(마을주민)이 다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어업인, 어촌계, 어업계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한다.

어촌이나 강마을에는 대표적인 어업조직으로 어촌계, 어업계가 있고, 그 외에도 여성어업인협의회, 각종 사업 관련 협의체 등이 있으므로 이들 각 협의회, 협의체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각각의 협의체들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회장, 협의체 리더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3)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그룹

대학, 연구기관 등은 어촌 활성화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협력기구로 연계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은퇴자 풀, 전문 컨설턴트, 사업가, 마케터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책연구기관,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여 수산양식 기술 개발, 종묘생산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은 어촌과 연계한 수산업 관련 기술 교육에도 필수적이므로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거버넌스로 구축되어야 한다.

4) 기존 지원조직과의 연대 및 통합화

강원도에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경제 및 산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진흥원을 비롯하여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강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강원도 일자리지원센터, 신농정기획단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주로 농업농촌지원 중심이지만 어업어촌지원을 위한 거버넌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바이오 분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사업단)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어업, 어촌, 수산업 분야의 기존 지원기관인 어촌특화발전지원센터,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수산산업창업지원사업 등은 신규로 설립되는 지원단과 통합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정책이나 예산 등 중복성을 줄이고 정보공유, 지원협력 등을 가능하게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해양수산부 어촌개발지원단과의 연계

해양수산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개발지원단’을 신설하였다. 이 조직의 기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 평가 등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과 같다. 이 조직은

해양수산부의 어촌, 어항 관련 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에는 지역마다 어촌개발지원단과 같은 조직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6)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과¹⁹⁾의 연계

생활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 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국무조정실은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생활SOC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생활SOC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활SO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협의기구를 두고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다부처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진단)을 두고 있다. 추진단의 주요 과제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추진, 생활SOC 공급과 관련한 국가 최소 기준 등의 마련, 생활SOC 선도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의 발굴, 생활SOC 공급 관련 추진상황의 관리,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국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므로 정주여건이 불비한 어촌은 적극적으로 정책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추진단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의 교류, 사업발굴, 정책 제언 등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검색일: 2019. 12.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연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획단에서는 정책, 지역혁신, 지역균형, 생활SOC복합화추진단, 정책기획, 대외협력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 지역균형국에서는 농산어촌과를 두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산어촌 분야 균형발전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부처 협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관련 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의 교류, 사업발굴, 정책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역할과 기능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의 핵심 역할은 어촌 활성화이다. 어촌의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소득감소, 정주여건 악화 등의 문제를 완화, 해결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어촌의 공동화, 소멸을 막기 위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대적 트렌드에 순응 또는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정책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큰 틀의 역할과 목표 속에서 기존 지원기관과의 연대와 통합, 새로운 기능의 추가, 기존 또는 현재 진행되는 각종 어촌사업들에 대한 평가, 관리, 지원, 새로운 사업의 발굴, 어촌역량 강화, 지역인력 육성, 지역인재 활용, 정주여건 개선, 어항의 기능에 따른 특화 방안 마련 및 추진, 일자리 매칭

〈표 4-2〉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 사업내용(안)

구분	사업내용	기능
어촌 공동체 역량강화	•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 어촌주민 역량강화 컨설팅(해수부 지원 대상 제외) • 어촌 활성화 컨설팅 등 어촌 경쟁력 강화 - 어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전문 컨설팅 등 추진 • 강원형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경제 육성 - 어촌사회에 사회적 경제조직 유입 유도 및 육성	어촌의 자립화, 경쟁력 강화
지역사업 발굴, 관리, 지원	•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지원 및 사후관리 - 어촌뉴딜 300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지원 - 사업 집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지 평가·관리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이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신규사업 사전 검토, 성과평가,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전 사업성 검토 • 지역사업의 평가 및 지원관리 - 어촌지역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 지원 등 • 어촌, 어항의 거점화 등 체계적 육성 지원 - 어촌, 어항의 기능별 특화 전략 마련 및 육성 지원 • 유희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효율적 활용 추진	지역사업의 발굴, 기존 사업의 관리, 평가, 지원
정주여건 개선	• 생활형SOC 발굴 및 점검 - 강원지역 생활형SOC 사업발굴 및 정책지원 - 국무조정실 생활형SOC 추진단, 균형발전위원회 연계	정주여건 개선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 구인구직 매칭 체계 구축 - 수도권과 어촌을 연계한 구인 구직 운영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매칭, 인구유입
어촌개발 기획, 연구	• 지역개발 기획, 정책, 연구 등 수행 - 중장기 계획 수립, 각종 정책 개발, 사업의 기획, 연구 등 • 정부사업 수주지원 -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 대응, 사업수주 활동	종합발전계획 기획, 지원사업 수주 역량 제고
지역인력 양성	• 젊은 인력 양성 - 지역의 어촌을 이끌어 갈 인력양성 • 지역전문가 풀 구축 및 관리 - 강원지역 전문가 인력 풀 구축	지역인재 육성, 전문가 활용

자료: 저자 작성

체계 구축 등의 수단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로 어촌의 침체, 공동화, 소멸을 막고 어촌을 살기 좋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4. 거버넌스 체계

1)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 법인 설립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은 「어촌·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및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강원도 조례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조례를 근거로 이사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단장을 선임하여 지원단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2) 기존 지원조직과의 연대 및 통합

새로이 조직되는 통합조직은 기존의 어촌지원 중간조직인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센터, 귀어학교 등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조직과의 통합은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이 적은 별도의 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산업창업지원센터는 어촌을 포함한 수산업으로 넓은 범위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이지만 장기적

으로는 ‘강원어촌신활력지원센터’ 내에서 창업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원조직 외에 지역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평가, 지원하는 기능, 지역사업 개발, 연구 및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기능, 구인구직 매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능 등이 신규로 구축되어야 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

강원도의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대학, 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지역 대학, 국공립 및 도립을 포함한 민간 연구기관 등을 비롯하여 경제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강릉해양바이오융합본부 등과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강원일자리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중앙조직과의 연계

해양수산부의 어촌개발지원단은 어촌, 어항 관련 정부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 조직과는 상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어촌개발지원단을 운영하는 어촌어항공단은 어촌, 어항 관련 다양한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균형발전위원회의 SOC 추진단과 농산어촌과, 국무조정실의 생활형SOC 추진단과도 항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강원도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지역사업 개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5) 어촌, 어업인 협의체 연대

어촌, 강마을의 주체인 어민, 어촌계, 어업계 및 구성원과 이들의 관련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각종 사업과 관련한 협의체(어촌뉴딜 300사업 협의체) 등과도 연계하여 상향식 정책제안, 수요도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들 각각의 협의체는 서로 연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시군마다, 또는 시군 내에서도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개별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원어촌신활력지원단’은 이들 개개의 주민과 각종 협의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지원조직과 관련 사업이 있어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현장 밀착형의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지원단 설립 추진 방안

1) 조직과 역할

조직은 재단법인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단장, 지원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팀은 지역사업지원관리, 어촌개발기획, 인력양성일자리지원, 행정지원의 4개로 구성한다.

신설되는 조직의 인력은 지원단장 1명, 팀장 4명, 팀원 6명, 강원도 파견 1명으로 구성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표 4-3〉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조직 및 역할

조직 (1단 4팀)	세부 조직	역할
단장 1명	지원단장	• 지원단 업무 총괄
팀장 4명	지역사업 지원관리팀 (2명)	•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지역사업 관리, 평가, 지원 등 • 지자체 주요사업평가 시스템 개발 운영 • 어촌 활성화, 창업컨설팅 및 지원 • 유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어촌개발 기획팀 (2명)	• 사업발굴, 어촌개발 기획, 연구 • 어촌뉴딜 300 기획지원 • 공모사업 기획지원 및 강원도 자체 정책개발 제공
	인력양성, 일자리지원팀 (1명)	• 구인구직 일자리매칭, 지역인력 양성 • 어촌지도자, 수협직원, 해양수산공무원의 어촌리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촌 경영전문가,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등
	행정지원팀 (1명)	• 행정업무 총괄
강원도 파견 1명	1명	• 시군 행정수요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지원 • 중앙, 시군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2) 추진 일정

조직설치는 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의회, 강원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재단법인 설립, 단장 임명 및 연구원 채용, 조직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이 연구는 수산업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강원 어촌의 신활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증사례를 통한 어촌 활성화 모델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강원형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강원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추구하는 해양수산 지역혁신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증모델을 마련하고자 수행한 연구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강원 어촌은 수산자원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타 시·도와 비교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레저는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나 공모를 통한 사업유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강원 어촌의 종합적 발전구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강원 어촌 신활력을 이끌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공모사업 등 양적 성장을 위한 어촌지원단 TF를 민관 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법적근거와 예산·조직을 정비한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을 설립하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1. 민·관 협의체 (가칭) ‘강원형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 추진

1) 개요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는 1단계(2020~2021년)로 어촌지원단 TF(임시조직)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2단계(2022년 이후) 과정에서 (가칭) 강원형 어촌 신활력 지원단을 설립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전담조직의 난립을 최소화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표 5-1〉 어촌 신활력 지원을 위한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안)

구분	1단계 (2020~2021년)	⇒	2단계 (2022년 이후)
거버넌스	어촌지원단 TF (임시조직)		(가칭) 강원형 어촌 신활력 지원단 (상설조직)
업무영역	어촌뉴딜 300 내륙어촌 활성화		어촌어항개발사업 전반 (기획·사업지 관리·성과평가 등) 인력 및 인재양성 어촌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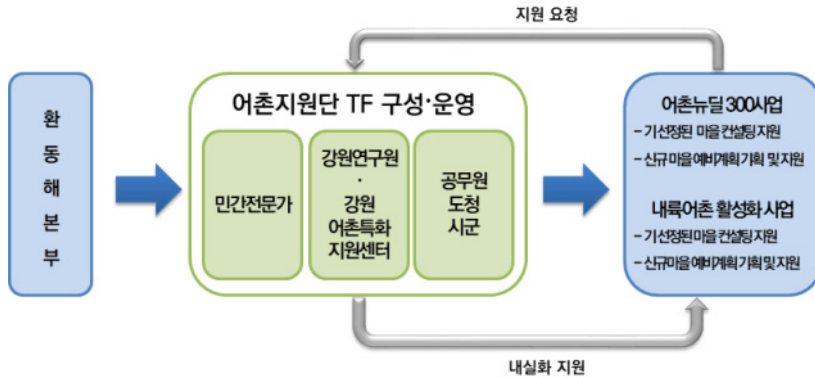
2) 어촌뉴딜 300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어촌지원단 TF’ 운영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을 통합하여 낙후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민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까지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연안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전기획 등을 통해 사업유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칭) ‘강원형 어촌 신활력 지원단’을 설립하기 전에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한정하여 「어촌지원단 TF」를 운영함으로써 운용방식과 사업성과 도출 등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1차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가. 어촌지원단 TF 구성

어촌지원단 TF는 수산·어촌, 지역개발, 관광 등의 강원도 내외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중에서 1인을 선발하고, 10명 내외(민간전문가 5명, 공무원 5명)로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강원 어촌지원단 TF 구성(안)



자료: 저자 작성

나. 어촌지원단 TF 운영

어촌지원단 TF의 주요업무는 i) 어촌주민 역량강화, ii) 예비계획 수립 지원, iii) 사업성 평가, iv) 사업지 관리, v) 사업성과 평가 등 크게 5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촌뉴딜은 주민주도로 지역의 현안발굴과 해결방안을 직접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강원도 어촌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사전 역량강화 필요성은 중요하다.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역량강화를 확장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한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와 주민이 문제진단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예비계획 수립의 방향성 도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자 중심의 계획안을 마련해 어촌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추진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원단 TF는 용역기관을 지정하고, 어촌

뉴딜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특히, 용역기관이 현장밀착형으로 어촌주민과 함께 예비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마을의 예비계획서 수립에서 필요한 외부전문가, 행정 담당자, 어업인 이해당사자가 어촌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토론과 합의과정을 이끌어내 사업계획안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 담보가 필요하다.

셋째, 어촌뉴딜은 단기간 내에 100억에서 15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모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촌사회 내 축적된 갈등문제, 지역 숙원사업, 특정인에게 수혜가 쏠리는 사업 등을 스크린하고 지역재생을 통한 활력을 높이고, 수혜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환원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평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원단은 사업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지원단 내 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지 관리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촌마을에 한정하여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자기진단,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사업지 관리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 평가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촌뉴딜의 정책목표에 따른 일자리 창출, 소득원 마련, 관광활성화 등 성과평가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원단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선도모델을 지정하고, 성과모델을 홍보·확산해 나가야 한다.

〈표 5-2〉 어촌지원단 TF 사업내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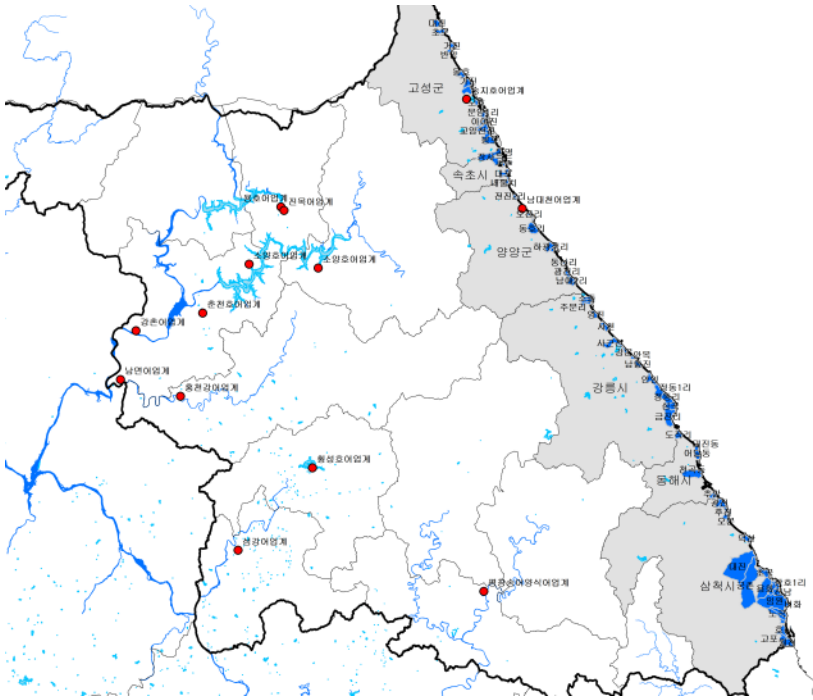
구분	사업내용	사업대상	비고
어촌주민 역량강화	•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 어촌주민 사전 역량강화 컨설팅 • 아름다운 동해안 바다만들기 추진	모든 어촌마을	- - 해수부 바다가꿈 연계
예비계획 수립 지원	• 사업설명회 및 Q&A • 공모 대비 예비계획서 수립	공모 추진	- 용역기관 지정
사업타당성 평가	• 공모 예비계획의 사업타당성 평가 • 공모 시 강원도 우선순위 선정	어촌마을	-
사업지 관리	• 어촌뉴딜 사업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사업시행 어촌마을	어촌뉴딜 300사업 내륙어촌 활성화
사업성과 평가	• 사업목표 성과관리 • 선도모델 평가 및 홍보·확산 방안 마련		-

자료: 저자 작성

다. 어촌지원단 TF 지원업무 커버리지

어촌지원단 TF의 지원업무 영역은 74개소 연안 어촌마을과 11개소 내륙어촌으로 총 85개소로 업무의 영역과 범위가 6개 연안 시군, 7개 내륙 시군에 해당된다. 어촌뉴딜의 업무영역을 어촌뉴딜로 한정하더라도 2019년까지 공모에서 총 9개소(연안어촌 8개소, 내륙어촌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지 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2020년 공모에는 대부분의 관내 기초 지자체와 어촌마을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촌지원단 TF 운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며, 강원도 환동해본부(13개 기초지자체)와 강원연구원,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그림 5-2〉 강원 어촌지원단 TF 지원업무 커버리지



자료: 저자 작성

3)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 추진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1단계 ‘어촌지원단 TF’를 규모화·체계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통해 강원형 어촌 전담조직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 수산업·어촌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민·관 협의체이다.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거버넌스 체계 및 구성과 운영 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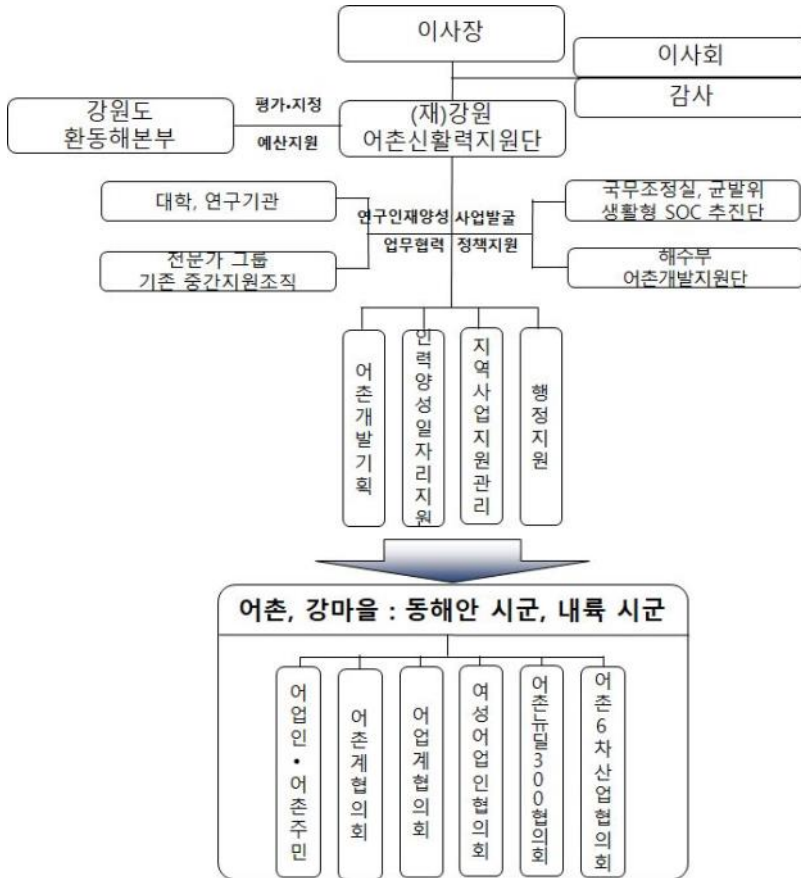
가.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안)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지역 현안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강원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지원단을 지정하고,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지역대학, 수산·어촌분야 중간지원조직을 기능적 통합²⁰⁾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민간전문 영역과 행정업무 기능을 포괄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복합형 생활SOC 추진업무와 해양수산부 어촌개발지원단, 국무총리실 산하 농어업인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 등 어촌개발업무 및 어업인 복지향상과 관련된 업무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강원도 어촌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강원도는 6개 연안 시·군에 74개소 어촌뿐만 아니라 북한강 수계를 기반으로 7개 내륙 시·군 11개소 내륙어촌이 분포하고 있어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로서 어촌공동체(어촌계 협의회, 어업계 협의회, 여성어업인 협의회, 어촌체험마을 협의회 등) 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기 지정되어 운영 중인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해양수산부 제2017-1호),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귀어학교(2019년)의 고유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통합을 의미함.

〈그림 5-3〉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나.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구성(안)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고, 지역사업 지원관리팀, 어촌개발 기획팀, 인력양성·일자리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고, 강원도 환동해본부 및 관내 기초지자체, 지역전문가 등 민·관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표 5-3〉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구성 및 역할(안)

조직 (1단 4팀)	세부 조직	역할
단장 1명	지원단장	• 지원단 업무 총괄
팀장 4명	지역사업 지원관리팀 (2명)	•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지역사업 관리, 평가, 지원 등 • 지자체 주요사업평가 시스템 개발 운영 • 어촌 활성화, 창업컨설팅 및 지원 • 유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어촌개발 기획팀 (2명)	• 사업발굴, 어촌개발 기획, 연구 • 어촌뉴딜 300 기획지원 • 공모사업 기획지원 및 강원도 자체 정책개발 제공
	인력양성, 일자리지원팀 (1명)	• 구인구직 일자리매칭, 지역인력 양성 • 어촌지도자, 수협직원, 해양수산공무원의 어촌리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촌 경영전문가,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등
	행정지원팀 (1명)	• 행정업무 총괄
강원도 파견 1명	1명	• 시군 행정수요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지원 • 중앙, 시군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다.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지원업무 커버리지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업무 커버리지는 연안 6개 시·군 74개 소의 어촌마을과 내륙 7개 시·군 11개소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1단계 어촌지원단 TF는 공모사업 유치 등 어촌 활성화의 양적 성장에 역점을 두는 반면에 2단계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위축되고 있는 강원 어촌마을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한 인재육성, 지속적인 컨설팅, 사업지 관리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어업인의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추진방향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는 강원도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원단의 거버넌스는 강원도지사가 평가·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타 시·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 5-4>와 같이 총 11개 조항으로 목적 및 설치근거, 기능·구성, 지원단 운영·관리, 예산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강원도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 조례 제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5-4>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분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소멸 등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어촌 지역재생 정책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등 어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개발사업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3. 어촌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내용
	4. 어촌정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정책에 대한 평가 6. 어촌 정책과 관련한 중앙부처와의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네트워크 등의 운영)	지원단장은 어촌마을의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업인 역량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선진사례 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어촌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의 분리)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 저자 작성

3. 강원형 어촌현장포럼 운영

1) 개요

강원형 어촌현장포럼은 (가칭)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어촌주민, 지원단이 함께 지역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주민주도형 사회문제해결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주도로 의견을 이끌어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주도형 어촌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강원형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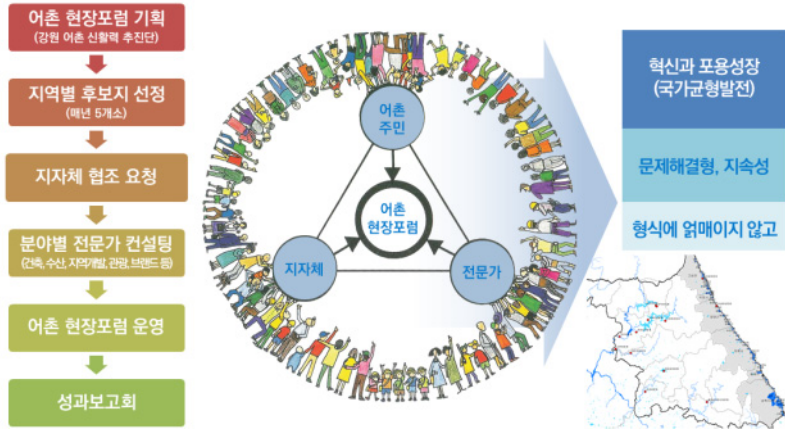
2) 어촌현장포럼 운영방안

(1) 추진방안

어촌현장포럼은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이 주도하여 당해 연도의 기획, 대상지 선정, 지자체 협조요청과 전문가 섭외 등을 통해 현장포럼을 매년 5회 정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는 수산·양식, 어촌정책, 관광, 브랜드, 갈등관리 등 마을현안과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를 섭외함으로써 어촌현장포럼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형 어촌현장포럼은 내륙어촌(강마을)과 해면어촌을 적정하게 포함하여 추진하고, 어촌현장포럼 결과는 예비사업계획서 마련, 운영관리 방안 마련, 지역현안 진단 및 갈등관리 등 어촌현장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5-4〉 강원형 어촌현장포럼 운영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프로그램 예시

어촌현장포럼은 공무원, 어촌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어촌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현장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어촌마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해결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정형화된 포럼방식이다.

〈그림 5-5〉는 충남 태안군 사례로 지역의 핵심 수산자원인 우럭을 활용한 건우럭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내 밀집된 농어촌민박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행정기관, 어촌주민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과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건우럭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5-5〉 충청남도 어촌현장포럼 운영사례(태안군 대야도 어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6〉 전라북도 어촌현장포럼 운영사례(군산시 개야도 어촌)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자: 2019. 2. 11)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2012~2017).

김인겸, 「신남어촌 브랜드화 제안」, (주)인큐브랜드 내부자료.

김충재·박상우, 「강원도 동해안 어촌의 소멸위기와 대응」,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734호, 강원연구원, 2019.

김충재·김주원,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18-45, 강원연구원, 2018.

김충재·조근식, 「강원도 동해안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항기능 재편 방향」, 연구보고서 19-11, 강원연구원, 2019.

서산중앙어촌계, 내부자료.

수협중앙회, 「어선별 수산물 위판량 및 위판금액」, 2018.

한선희,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연도(1995~2017).

박상우·황재희·이호림·이상규·김충재·김주원,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2018.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통계」, 내부자료, 각 연도(2009~2013).

해양경찰청, 「어선출입항 신고」, 내부자료, 2018.

해양수산부, 「태안 중장5리마을 어촌특화예비계획서」, 2013.

해양수산부(2013), p. 4

〈인터넷 자료〉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opm/info/soc01.do>(검색일: 2019. 12. 18)

- 사토수산 홈페이지, <https://www.sato-suisan.co.jp>(검색일: 2019. 12. 20)
-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검색일: 2019. 12. 21)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검색일: 2019. 12. 1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https://know.tour.go.kr/stat/statMain.do>(검색일: 2019. 12. 16)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12. 20)
- Google Earth Pro, <https://www.google.co.kr/intl/ko/earth>(검색일: 2019. 12. 21)

〈참고 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어촌·어항법」
- 「농어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부 록

〈설문지〉

※ 모바일 설문 환경에 맞추어 설문 소개 및 문항 간소화

강원도 어촌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 강원도의 어촌을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우리 어촌을 아끼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응답자 보호

※ 어촌(漁村):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을 주요 경제활동으로 하는 마을
(어선, 양식, 마을어장 등)

(타켓팅 정보)

SQ1. 귀하는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 ① 서울·경인 ② 대전·충청·세종 ③ 강원·경북·대구 ④ 전북·전남·광주·제주
⑤ 부산·울산·경남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SQ3.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

- ① 20~39세 ② 40~59세 ③ 60대 이상

S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직 ② 서비스·판매직 ③ 전문·관리직 ④ 농림어업 경영·종사
 ⑤ 학생 ⑥ 전업주부 ⑦ 기타()

(본 문항)

Q01. 강원도의 ‘바다’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중복 2개 응답) (서플링, 기타는 고정)

- ① 정동진, 해변 산책길 등 해안 관광지 ② 서핑, 카누 등 해양레저 활동
 ③ 고기잡이 배가 있는 항구 ④ 고즈넉한 어촌마을
 ⑤ 신선한 해산물 ⑥ 청청한 자연환경
 ⑦ 북한·중국어선 등 안보 관리 ⑧ 기 타 ()

Q02. 강원도의 ‘어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고성군 ② 속초시 ③ 양양군
 ④ 강릉시 ⑤ 동해시 ⑥ 삼척시

Q03. 강원도의 연안·어촌지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05)

Q04. 강원도 어촌에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응답 후 →Q06)

- ① 여행 ② 거주 또는 향후 귀촌지역으로 탐색
 ③ 업무 ④ 친지 방문 ⑤ 기타()

Q05. 강원도 어촌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방문할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② 정보가 없어서
(방문할 이유가 없어서)
- ③ 너무 멀어서 ④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⑤ 기타()

Q06. 강원도의 어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08)

Q07. 강원도 어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계십니까?

- ① TV, 신문 등 대중매체 ② 인터넷 등 SNS
- ③ 친지 ④ 홍보자료 ⑤ 기타()

Q08. 강원도 어촌이 점차 쇠퇴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어촌의 특징이 사라진 지역이 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 등

- ① 예 (→Q09) ② 아니오 (→Q10) ③ 모르겠다

Q09. ‘예’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Q11)

(서플링, 기타는 고정)

- ① 거주인구가 줄어들어서 ② 수산자원이 감소해서 ③ 어업활동 여건이 취약해서
- ④ 방문 매력도가 낮아서 ⑤ 기타()

Q10.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플링, 기타는 고정)

- ① 거주지로서 매력도가 높아서 ② 관광객이 증가해서 ③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서
- ④ 정책적으로 지원받고 있어서 ⑤ 기타()

Q11. 강원도의 어촌이 지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① 풍부한 수산자원					
② 청정한 자연환경					
③ 다양한 관광자원(역사, 문화, 생태 등)					
④ 활발한 어촌공동체					
⑤ 수도권과의 접근성(KTX, 고속도로)					
⑥ 항만·물류 입지(동북아-수도권 연계)					

Q11-1. 강원 어촌의 경쟁력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Q12. 강원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셔플링, 기타는 고정)

- ① 특화산업 육성 ② 수산자원 회복 ③ 마을공동체 활성화
④ 귀어·귀촌 등 인구유입 ⑤ 관광인프라 확대 ⑥ 기타()

Q13. 강원도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특화사업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셔플링, 기타는 고정)

- ① 수산업(어선·양식어업) ② 해양레저·관광
③ 바이오·에너지 등 신산업 ④ 생태계 보전 및 연구기능
⑤ 기타 ()

Q14. 강원 어촌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플링, 기타는 고정)

- | | |
|-----------------|-------------------------------|
| ① 전문인력 배치 | ② 주민참여 기반·역량 강화 |
| ③ 지역 간 차별화 | ④ 지역연계형 사업 추진 |
| ⑤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 | ⑥ 기타 ()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동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활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02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3	사업체 총조사 MD를 활용한 2016,2017 어촌지역 고용통계	한광석
04	외래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엄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02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03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정지호
04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황규환
05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6	한국산 수산물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한기욱
07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이윤정
08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안지은
09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영균
10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박상우
11	지역 해양수산 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황재희
12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박성준
13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차보관 의무 도입방안 연구	임병호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02	딥러닝 기반의 건축물선 사항예측 연구	윤희성
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최건우
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최상희
0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정지호
06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이경한
07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8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김지연
09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Ⅰ)	장정인
10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2차년도)
-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 사업구상 -

인 쇄 | 2020년 02월 27일 인쇄

발 행 | 2020년 02월 29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세브스가든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